

# Shean.T



- 고1 당시 영어 모의고사 5등급
- 한국외대 영어통번역학과 4년 장학
- 국내파 통역장교, 4성장군 통역
-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 과정
- 최초 수능영어 주간지, 주간 KISS 저자
- 오르비 베스트셀러,  
Masterpiece 영어모의고사 저자



- 인강) 대성마이맥
- 현강) 대치 이강, 강남/대치 오르비  
서초/대치 명인



- 제작 도움: Mi Youn
- 검토: Mi Youn, Jae Hwi
- 디자인/편집: Chae Hyeon, Seong Gyun, Yu Min

# KISS ESSENCE

## 방향성

하이 가이드즈, 셉티입니다.

어느새 2022학년도 수능영어 마지막 커리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올해 6, 9평 영어는 모두 어려웠습니다. 6평이 어려웠기에 9평은 무난하려나 했는데, 오히려 9평이 더 어려웠지요. 이번 수능영어도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라 예상됩니다. 모의평가의 어려운 수능영어 기조에 불안한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많을테지만, 간접연계 50% 시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하는 material은 정해져 있습니다.

- ① 작년 수능, 올해 6/9 평가원
- ② 최중요 최근 평가원, 최중요 올해 EBS

1번은 두말 할 필요 없이, 올해 수능영어를 낼 때 출제위원 분들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3개의 시험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수능영어만 10수 이상 한 사람으로 보신다면, 저는 매년 ‘아.. 또 작년 수능에 있는 이 단어, 표현 그대로 나왔네, 올해 6/9평에 쓰인 순/삽 근거나 어휘, 구문 그대로 나왔네’ 이렇게 느낍니다. 소위 ‘테자뷰’를 느낍니다. 제발제발제발, 파이널에는 양적으로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3개의 시험지를 ‘단어, 해석, 논리’를 내가 씹어 먹고 또 씹어 먹어 완벽히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이널이라고, 또 수능영어 어렵게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 풀고 채점하기’만 하시면, 평생 2, 3등급 위로 못 올라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씹어 먹어야 할 두번째로 중요한 컨텐츠는, 최중요 평가원과 EBS입니다. 이 KISS ESSENCE에는, 작수 및 올해 6/9평과 논리/소재 면에서 중요한 연관이 있는 최근, 최중요 평가원 기출문제를 수록할 것입니다(주간 KISS에서 선별). 분명 평가원이 ‘최근’ 좋아하는 논리/소재 지문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서 혹 아직까지도 제대로 최근 중요한 평가원 기출을 보지 않은 학생이라면 무조건 보고 가서야 하고, 이미 이 기출들을 본 학생이라도, 다시 한번 내가 단어, 해석, 논리에서 막힘이 없는가 완벽히 소화하셔야 합니다. 절대 아까운 시간이라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한, 간접연계 50%가 유지되는 만큼, 학생들은 EBS를 아예 안 보고 가기에는 ‘찝찝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실제로 6, 9 평가원에서 몇 개의 문항은 EBS의 중요 지문 소재의 익숙함을 느낄 수 있게 출제되었습니다. EBS가 critical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가원 외 어렵고 중요한 지문을 볼 거라면 ‘그래도’ 익숙한 소재가 보일 수 있는 EBS 지문을 보는 게 낫다는 생각이 당연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KISS ESSENCE에는, 주간 KISS에 수록된 영어, 영독, 완성 총 126개 중요 지문을 또 50여개 지문으로 추리고 추려 ‘논리, 소재, 난이도’ 측면에서 가장 좋은 EBS 지문들로 하프모의고사 4세트를 수록하였습니다. 주간 KISS 원 문항이 유지되는 문항도 있으나 다른 유형으로 변형을 최대한 할 것이고, 특별히 ‘밑줄 의미’ 문항은 EBS가 아닌, 올해 외주 받은 고퀄 문항을 넣어 고난도 하프모의고사를 완성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최중요 150개 지문을 ‘EBS 선별’로 구성했습니다. 작년까지의 KISS ESSENCE는 이 EBS 150개 지문의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어 마지막 ‘영어력’을 기르는 한편, 이 150개 지문 중 5개 이상 지문이 수능에 그대로 보여 꿈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막판 2등급 향상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올해도 대략 150개 지문으로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먹어 마지막 ‘영어력’을 향상시킨다는 방향성에는 변화 없으나, 이 EBS 직접연계가 사라져 dramatic한 막판 상승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당연히 수능날 포텐이 터지는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능, 올해 6/9평, 최중요 평가원 및 EBS의 단어/해석/논리를 씹어 드시면, 막판 향상된 영어력은 물론, 수능에서 단어/해석/논리/소재 측면의 ‘데자뷰’ 현상을 통해, 학생에 따라 막판 1~2등급 향상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잡다한 콘텐츠들에 흔들리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액기스만 담은 ‘에센스’를 ‘제대로’ 하시고, 진인사대천명하시기 바랍니다.



# 구성

---

## Week 1

- 작수 및 올해 6, 9평 대의파악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

## Week 2

- 작수 및 올해 6, 9평 어법, 어휘, 요약, 2장문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

## Week 3

- 작수 및 올해 6, 9평 빈칸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

## Week 4

- 작수 및 올해 6, 9평 순서/문삽 묶어 보기
- 논리/소재 연관성 높은 평가원 기출 수록(주간 KISS)

---

## Week 5

- 올해 최중요 EBS 지문 하프모의고사 2세트  
(논리/소재 면에서 좋은 주간 KISS 지문. 적중 목적 X)

---

## Week 6

- 올해 최중요 EBS 지문 하프모의고사 2세트  
(논리/소재 면에서 좋은 주간 KISS 지문. 적중 목적 X)



# 학습 Guide

\* 기본적으로 '풀채단해논'이 모든 영어 학습의 핵심이다. 풀고, 채점하고, 단어 다 내 것으로 만들고, 해석 어려운 문장은 이렇게 해석 되는구나 익히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답이 나오는구나 확인하는 것. 여기서 '풀채'만 해서는 절대 1등급이 될 수 없다.

---

## Week 1 ~ 4

---

- 풀: 하루치 문제를 시간 재고 푼다. 보통 대의과약은 1분 30초 ~ 2분, 그 외 어려운 문항은 실력에 따라 2분 30초 ~ 3분을 준다.

\* 중요 포인트: 내가 이미 답을 아는 평가원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찍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오롯이 요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며 내려와야 한다.

- 채: 채점을 한다. 채점 후 틀린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단어/해석/논리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꼭꼭 가진다.

- 단: 해설을 보며 내가 몰랐던 단어/표현을 모두 나만의 단어장에 적으며, 적는 시간 및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철저히 암기한다.

- 해: 문제에 집착 말고, 우선 하나의 지문이 적어도 7, 80% 정도는 자연스럽게 해석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해석이 안 됐던 부분을 직독직해를 참고하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구나' 익히시고, 이 또한 본인만의 해석 노트에 따로 적어 정리하면 좋다.

- 논: KISS Logic 해설을 보면서 내가 반응했어야 할 부분, 여기는 이래서 중요하고 이런 ABPS 논리를 끌어낼 수 있고 그래서 답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이해한다. '실전'에서 상세한 KISS Logic 해설처럼 완벽하게 풀 수는 없다. 허나, '평소'에 이렇게 완벽하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중요한 부분과 아닌 부분을 구분할 줄 알려고 학습해야, '실전'에서 이게 70% 정도 발휘되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다.



# 학습 Guide

## Week 5 ~ 6

- 풀: 하프모의 1세트를 시간 재고 푼다. 1등급이라면 30분, 2등급 이하라면 35분 추천한다.

\* **중요 포인트:** 내가 이미 답을 아는 EBS 문제라고 해서 그냥 답만 찍는 우매한 짓은 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가정하고 지문을 오롯이 요리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하지 않은지 잘 체크하며 내려와야 한다.

- 채: 채점을 한다. 채점 후 틀린 여부와 관계 없이 '스스로' 단어/해석/논리 측면에서 모르는 부분을 체크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꼭꼭꼭 가진다.

- 단해논의 '방식'은 평가원과 똑같다. 단, Day 1에 4문제, Day 2에 4문제, Day 3에 5문제 이런 식으로 하나의 하프모의를 1/3씩 나눠 평가원처럼 철저히 단해논을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6일 간 두 개의 하프모의를 풀고 분석한 뒤, Day 7에는 마스터피스를 풀고 분석하는 날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다.

\* **중요 포인트:** 등급별로 하루치 '단해논'을 제대로 하는 시간이 다 다를 것이다. '보통' 1등급 친구는 1시간도 안 걸릴 것이고, 2등급 친구들은 1시간 ~ 1시간 반, 3등급 친구들은 1시간 반 ~ 2시간,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더 걸려야 '정상'이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단해논' 파트를 제대로 안 하고 속속 넘어가면, 제대로 된 성적 향상은 힘들다. 하나의 지문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완벽히 소화하고 가자.

\* **중요 포인트:** 총 6주 과정으로 구성했지만, 당연히 남은 시간에 따라 2일, 3일씩 묶어서 3주, 2주만에 끝낼 수도 있겠다. 그만큼 하루에 시간을 더 투자하여 '단해논' 파트만 제대로 하길 바랄 뿐이다.

\* **중요 포인트:** 에센스를 '제대로' 하는 게 이번 수능영어에 가장 중요한 부분. 이걸 제대로 한 사람만이 추가적으로 많은 실전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다. 마스터피스만으로 부족하다면, 에센스를 제대로 끝낸 친구의 경우, 막바지에 기타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면서(이때도 단해논은 꼭 가져가려 하자) 수능 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 Table of Contents

<b>Week 1</b> P.12 ~ P.59	<b>Week 2</b> P.44 ~ P.71
<b>Week 3</b> P.76 ~ P.105	<b>Week 4</b> P.108 ~ P.155
<b>Week 5</b> P.158 ~ P.167	<b>Week 6</b> P.170 ~ P.199

수능영어의 노력이라는 가치를 믿기에, 이를 가르칩니다.  
꼭 1등급이 나와 수시, 정시에서 큰 우위를 가지길 바라며,

Shean.T

**Keep It Short and Simple**

해설편  
**KISS ESSENCE**

by Shean.T

# Week 1



대의과약

Aries

# Week 1: 대의파악

## Day 1

\* 작수, 올해 6/9 요지

- 세 시험지 모두 PS의 느낌은 크게 없고 'AB'를 확실히 잡아야 했던 지문이었다. 특히 작수, 올해 9평은 둘 다 공통적으로 '전문가 vs. 대중'의 AB로 동일했다는 점에서 이번 수능도 항상 '개인(천재, 전문가..) vs. 집단(대중, 시민)'의 AB를 염두해두면 좋을 것이다.

## Day 2

\* 작수, 올해 6/9 주제

- 올해 6평과 9평 모두 AB를 정확히 잡고 정답 선지에서 AB를 확인하며 지문의 핵심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했다. 6평은 어린 시절 및 어른의 '놀이'에 대한 소재로 어렵지 않았지만, 9평은 칸트의 관점에서 기하학과 미적 경험을 AB로 했기 때문에 소재 자체가 어려웠다. 수능의 AB 소재는 9평과 유사하거나 살짝 힘을 뺀 정도로 출제되지 않을까.

## Day 3

\* 작수, 올해 6/9 제목

- 세 시험지 모두 완전 AB 개념 잡기이고, 그 속에 P를 섞었다. 6, 9평 모두 A쪽(통념, 필자가 까는 것)의 P를 강조하는 선지로 구성되었다. 제목 문제인 만큼 지문 소재가 쉽지 않은데, 대립적 표현 앞뒤를 확실하게 읽어서 AB 개념을 정확히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 Day 4

\* 작수, 올해 6/9 의미

- 작수는 드물게도 의미 지문이 PS 중심이었으나, 올해 6, 9평은 완전한 AB였다. 특히 9평은 또 개인 vs. 집단의 고전적인 AB였다는 점에서 이 개념은 그냥 수능날 머릿속에 박고 가는 게 좋겠다. 작년 수능처럼 '환경' 소재와 같이 PS인 경우는 드물고, 의미 문제는 완전 깔끔한 AB일 때가 많음을 염두해두자(아니 이번 수능도 당연 PS일 수도 있지..!).

## Day 5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

- 이번 9평을 필두로 돋보였던 '개인 vs. 집단(사회)'의 AB 지문들을 모았다. 19학년도 9평 23번은 '대중 vs. 비평가'의 AB로 역시 중요 기출 소재는 들고 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수능에서도 대의파악에서 '개인 vs. 집단(사회)'의 AB 지문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으니 꼼꼼하게 학습하도록 하자.

## Day 6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

- 최근 평가원 대의파악 중 '고난도, 중요 소재' AB 지문들을 넣었다. 이번 수능도 대의파악에서 9평 느낌의 고난도, 빈출 소재 AB 지문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문들을 꼼꼼하게 학습하자. 특히, '유전(선천) vs. 환경(후천)'의 AB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 Day 7

\* 주간 KISS 최중요 평가원 4문제

- 최근 평가원 밀줄 의미 중 '고난도, 중요 소재' AB 지문들을 넣었다. 이번 수능도 이정도 난이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냥 AB가 명확하게 표현된 게 아니라, AB를 왔다갔다 하며 애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지문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AB가 무엇인지 잡는 게 중요하다.

by Shean.T

# Week 1



대의과약

Taurus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글의 서두를 급하게 읽지 말고, 천천히 읽어서 AB를 잡은 후에 그 뒤 AB를 확인하며 빠르고 정확하게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다.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Thus, instead of 같은 AB 표현이 있으니 다시 한번 AB를 확실히 잡아주고 답을 내자. 오답 선지에서 '세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음악 앨범 출시

A: 과거, 비평가 위주 < B: 현재, 대중 위주

Vocabulary

1. file-sharing	1. 파일 공유	9. alike	9. 둘 다, 똑같이
2. exclusively	2. 독점적으로	10. obtain	10. 얻다
3. release(n)	3. 발매	11. simultaneously	11. 동시에
4. the general public	4. 일반 대중	12. publicize	12. 홍보하다
5. preview(v)	5. 시사평을 쓰다	13. social media bios	13. 소셜 미디어 약력
6. accessible	6. 접근 가능한	14. the masses	14. 일반 대중
7. availability	7. 이용할 수 있음	15. subconsciously	15. 잠재의식적으로
8. democratize	8. 민주화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22

Prior to **file-sharing** services(B), music albums landed **exclusively** in the hands of music critics(A) before their **release**. These critics(A) would listen to them well before **the general public**(B) could and **preview** them for the rest of the world in their reviews.

파일 공유 서비스 이전에, / 음악 앨범은 음악 비평가들의 손에 독점적으로 들어갔다 / 발매 전에. / 이런 비평가들은 그것을 들곤 했다 / 일반 대중들이 들 수 있기 훨씬 전에 / 그리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을 위해 시사평을 쓰곤 했다 / 자신의 비평에서.

**선택** 첫 문장부터 '선후관계'로 표현한 AB를 잡으시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은, '수능은 더욱 더 AB가 명확하다'는 믿음 속에서 더 가능하겠다. 파일 공유 '전' 음악 앨범은 비평가들 손에 있었다고 하니, 과거 현재 시점의 AB를 느끼면서 과거에 해당하는 비평가를 A, 현재에 해당하는 파일 공유를 B로 잡아주면 좋다.

**선택** 다음 문장에서 '비평가'와 '일반 대중'이라는 두 대상의 대립성을 느끼면서 더 확실하게 각각 AB를 잡아줄 수 있겠다. 이 시점에서 머릿속에 A는 비평가, B는 일반 대중이라는 AB를 박고 가야 한다. 특별한 역접이 없으면 이 AB 속에서만 움직여야 하고, 글의 서두를 찬찬히 읽고 이해해서 이렇게 AB를 잡았으면 이제 빨라져야 한다.

Once the internet(B) made music easily **accessible** and allowed even advanced releases to spread through online social networks, **availability** of **new** music became **democratized**(B), which meant critics(A) **no longer** had unique access. That is, critics(A) and **laypeople**(B) **alike** could **obtain** new music **simultaneously**.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자, / 그리고 미리 공개된 곡들이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퍼질 수 있게 되자, / 신곡을 접할 수 있는 것이 민주화되었는데, / 이는 비평가들이 더 이상 그들만이 유일하게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 즉, 비평가와 비전문가가 똑같이 동시에 신곡을 얻을 수 있었다.

**선택** 인터넷!! 새로운 음악!! 민주화(대중화)!!! 모두 시점적으로도 그렇고 대상으로도 그렇고(대중) B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이다. 딱 B로 잡아주시고, not A 논리를 치는 no longer에 반응하면서 비평가를 A로 잡아주자. 이제 A와 B 모두 동시에 새로운 음악을 접할 수 있다. 예전에는 A > B였다면, 이제는 둘의 위치가 A = B 느낌으로 대등한 셈.

Social media services **also** enabled people to **publicize** their views on new songs(B), list their new favorite bands in their **social media bios**, and argue over new music endlessly on message boards. **The result** was that critics(A) **now** could access the opinions of **the masses**(B) on a particular album before writing their reviews.

소셜 미디어 서비스는 또한 가능하게 했다 / 사람들이 신곡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알리는 것을, / 자신의 소셜 미디어 약력에 자신이 좋아하는 새로운 밴드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 그리고 메시지 게시판에서 신곡을 놓고 끝없이 논쟁하는 것을. / 그 결과 비평가들은 이제 대중의 의견을 접할 수 있었다 / 특정 앨범에 관한 / 자신의 비평을 쓰기 전에.

**선택** also 문장은, B의 부연이니 가볍게 이해한다. 오케이, 사람들(B)이 자기 의견을 알릴 수 있음 ㅇㅇ! 그리고 '결과'를 말해주는 The result에 다시 한번 집중. A가 B의 의견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이 B의 위치 격상의 장점이 되겠다.

**Thus, instead of** music reviews(A) **guiding** popular opinion(B) toward art (as they did in preinternet times), **music reviews**(A) began to reflect — consciously or **subconsciously** — **public opinion**(B).

\* laypeople: 비전문가  
그러하여 음악 비평이 예술에 관한 여론을 인도하는 대신에, / (인터넷 이전 시대에 했던 것처럼) / 음악 비평은 반영하기 시작했다 / 의식적으로든 혹은 잠재의식적으로든 / 여론을.

**선택** 결과 표현인 Thus가 나오고 대표적인 not A but B 표현인 instead of 가 나오니 반응하시고 마지막으로 집중해서 AB를 잡아주자. 여기서 'music reviews'를 비평가들이 하는 것이니 A로 잡아주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A가 B를 인도하는 대신(A>B), A가 B를 반영한다(A<B)라는 어떤 값을 관계의 변화를 이해하면서, 독해를 마무리하자. 1번 문장에서 '음악 비평'이라는 소재와 '대중'이라는 B 키워드에 환장(?)하면서, 1번으로 답을 확정하자.

- ① 미디어 환경의 변화로 음악 비평이 대중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A < B)
- ② 인터넷의 발달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off)
- ③ 비평가의 음악 비평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반으로 한다. (off)
- ④ 오늘날 새로운 음악은 대중의 기호를 확인한 후에 공개된다. (off)
- ⑤ 온라인 환경의 대두로 음악 비평의 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off)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B를 드러내는 문장은 지문에 걸쳐 많으니, 어느 지점에라도 잡으시면 된다. B의 키워드를 확실히 잡고(면밀한 계획이 중요하구나!), 선지에서 B인데 헛소리에만 걸리지 않으면 되겠다.

A: 실행 과정 < B: 세부적인 계획 과정

Vocabulary

1. contractor	1. 도급업자, 계약자	9. scheme	9. 계획, 책략
2. place weight on	2. ~에 비중을 두다	10. allowable	10. 허용되는
3. proper	3. 적절한	11. budget	11. 예산
4. methodology	4. 방법론	12. execute	12. 실행하다
5. restriction	5. 제약	13. flawlessly	13. 흠 없이
6. address(v)	6. 다루다	14. objective(n)	14. 목표
7. estimate(v)	7. 추정하다	15. chances	15. 가능성
8. workable	8. 실행 가능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6.22

Contractors that will construct a project may **place more weight on the planning process(B)**. **Proper** planning forces detailed **thinking(B)** about the project. It allows the project manager (or team) to “build the project in his or her head.” The project manager (or team) can consider different **methodologies** thereby deciding what works best or what does not work at all.

주택 단지를 건설하려는 도급업자들은 / 비중을 더 많이 둘 수도 있다 / 계획 과정에. / 적절한 계획은 면밀한 사고를 하게 한다 / 그 건설 사업에 대해. / 그것은 건설 사업 책임자(또는 팀)가 ‘그 주택 단지를 자기 머릿속에 지어 보게’ 해준다. / 그 건설 사업 책임자(또는 팀)는 여러 다른 방법론을 고려할 수 있고 / 그렇게 함으로써 결정한다 / 어떤 것이 가장 잘 작동되는지를 / 또는 어떤 것이 전혀 작동되지 않는지를.

**선티** 첫 문장부터 ‘계획 과정’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니, 계획 과정이라는 개념을 B로 잡을 수 있다. 그 다음 문장에서 ‘면밀한’ 사고를 B로 잡을 수 있겠고, 그 뒤 문장들은 모두 ‘계획 과정이 좋다는 얘기군..’ 정도로 읽을 수 있겠다.

This detailed **thinking(B,S)** may be **the only way** to discover **restrictions** or risks(P) that were not **addressed** in the **estimating** process.

이런 면밀한 사고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 제약이나 위험을 발견할 수 있는 / 추정 과정에서 다루지 못했던.

**선티** restrictions, risks 등의 단어에서 P로 반응한 뒤, ‘면밀한(디테일한) 사고’를 다시 한번, 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B, S의 개념이구나 확정할 수 있다.

It would be **far better** to discover **in the planning phase(B)** that a particular technology or material will not work **than in the execution process(A)**. **The goal of the planning process(B)** for the contractor is to produce a **workable scheme** that uses the resources efficiently within the **allowable** time and given **budget**.

훨씬 더 나은 것이다 /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편이 / 특정 기술이나 재료가 작동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 실행 과정보다는. / 도급업자에게 계획 과정의 목표는 /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 허용되는 시간과 주어진 예산 내에서.

**선티** better than!!! 비교급이 나왔으니, 이 지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계획 과정’이 중요한 B임을 머릿속에 박고 있던 친구라면 한 번 더 확실히 확인하는 문장이 될 것이고, 혹여나 급하게 읽느라 지문의 AB를 제대로 못 잡은 친구라면 여기서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실행 과정(execution process)을 A로, 계획 과정을 B로 잡고, 그 다음 문장은 B가 좋다는 얘기네~ 정도로 읽는 게 중요하다.

A well-developed plan(B) **does not guarantee** that the **executing** process will proceed **flawlessly(A)** or that the project will even succeed in meeting its **objectives**. It **does, however, greatly improve its chances(B)**.

\* execute: 실행하다  
잘 만들어진 계획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 실행 과정이 흠 없이 진행되리라는 것을 / 또는 심지어 그 건설 사업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하리라는 것을. /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그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선티** does not에 반응하고 추가적인 not A but B를 잡자. however와 어우러져 not A but B가 된다. 계획을 디테일하게 짰다고 해서 ‘완벽하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chances!! 중요!!)을 높여준다. 이를 그대로 서술한 4번으로 가자.

- ①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면(off)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 ② 안정적인 예산 확보(off)는 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 ③ 사업 계획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off)될 수 있다.
  - ④ 면밀한 계획 수립은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B)
  - ⑤ 대규모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off) 세부 계획(B)이 중요하다.
- 매력적 오답: 세부 계획은 B가 맞으나 이를 수식하는 부분 ‘대규모 사업’ ‘지속적 성장’이 off이다. 이렇게 같은 B 선지이나 헛소리인 부분은 민감하게 체크해야 한다.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요지 문제인데 '소재, 어휘, 표현'의 급을 높여 어렵게 '보이게' 만들었다. 그렇지만 AB를 결국 또 개인 vs. 집단 쪽이라고 볼 수 있는 친구이다. 그 AB의 키워드와 간단한 관계(A < B)만 잡는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친구. 어휘력과 표현력이 부족하다면 한없이 어렵게,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많이 어렵지는 않았을 문항이다.

A: 전문직, 자율성, 권위 < B: 대중, 사회적 책임

Vocabulary

1. intended to V	1. ~하고자 의도된	9. expertise	9. 전문지식
2. tension	2. 긴장	10. confer	10. 주다
3. pursuit	3. 추구	11. at the expense of	11. ~을 대가로
4. accountability	4. 책임성	12. be qualified for	12. ~할 자격이 있다
5. grant	5. 부여하다	13. in proportion to N	13. ~에 비례해서
6. contribute to N	6. ~에 기여하다	14. disposition	14. 성향
7. conduct	7. 수행하다	15. irreversibly	15. 뒤집을 수 없게
8. consistent with	8. ~와 일치하는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22

Historically, the professions and society have engaged in a negotiating process **intended to** define the terms of their **relationship**. At the heart of this process is the **tension between** the **professions' pursuit of autonomy(A)** and the **public's demand for accountability(B)**.

역사적으로 전문직과 사회는 참여해 왔다 / 협상 과정에 / 그들의 관계의 조건을 규정하고자 의도된. / 이 과정의 핵심에는 긴장이 있다 / 전문직의 자율성 추구하고 책임성에 대한 공공의 요구 사이의.

**선티** 첫 문장은 relationship이라는 단어를 통해 '전문직'과 '사회'의 AB인가?를 생각하는 정도로 읽을 수 있겠다. 두번째 문장 tension between!!!에서 충돌, 대립성을 파악 느끼며 확실히 AB를 잡아준다. A는 전문직의 자율성, B는 대중의 책임 요구가 되겠다. 뭐.. 큰 반전 없으면 A < B 관계 아닐까? 그래도 뒤를 빠르게 확인은 하자. 뭘 확인하나? A < B의 관계인 것을 확인한다.

Society's **granting of power and privilege to the professions(A)** is premised on their willingness and ability to **contribute to social well-being(B)** and to **conduct** their affairs in a manner **consistent with broader social values(B)**. It has long been recognized that the **expertise and privileged position of professionals(A)** **confer authority and power(A)** that could readily be used to advance their **own interests(A) at the expense of those they serve(B)**.

사회가 전문직에 권한과 특권을 부여한 것은 / 전제로 한다/ 그들의 자발성과 능력을 /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 사회 복지에 기여하고 더 넓은 사회적 가치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 전문직의 전문지식과 특권적 지위는 권위와 권한을 준다는 것이 / 쉽게 이용될 수 있는 / 그들 자신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서.

**선티** 동사 기준 앞뒤를 '길게' 표현하고 있는데, AB 단어가 눈에 딱 들어와야 한다. professions를 보고 주어 A로, social을 보고 뒷부분을 B로 잡아준다. and 뒤에 'broader social' 같은 단어를 보면서 더욱 더 B를 '넓은, 사회적' 개념으로 확정한다. 반대로 A는 '좁은, 개인의(전문직)' 개념이 된다.

**선티** 이 개념이 at the expense of(~을 희생해서, 대가로) 앞뒤로 더 뚜렷해진다. A는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 권력을 쓸 수도 있다 그들이 봉사하는(serve) 사람들(B!! 왜? 대중, 사회 쪽이니까)을 희생해서.

**선티** 지금 하는 이 모든 것은, 기본 구문과 '깊고 넓은' 어휘/표현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어휘/표현을 얻어가도록 하자.

As Edmund Burke observed two centuries ago, "Men are **qualified for civil liberty in exact proportion to their disposition to put moral chains upon their own appetites.**" Autonomy has **never been a one-way street(A)** and is **never granted absolutely and irreversibly(A)**.

\* autonomy: 자율성 \*\* privilege: 특권 \*\*\* premise: 전제로 말하다 Edmund Burke가 두 세기 전에 말했듯이, / "인간은 시민적 자유를 누릴 자격이 부여된다 / 정확히 비례해서 / 그들의 성향에 / 자신의 욕구를 도덕적으로 구속하는." / 자율성은 일방통행로였던 적이 없었으며 / 결코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절대적이고 뒤집을 수 없게.

**선티** 우리 딱 봐도 어려워 보이는 인용문은 가볍게 넘어가주고(쉽고 로직이 명확하면 잡아줘야지), 마지막 문장에서 자율성을 not A로 '까는' 뉘앙스를 느끼시고 독해를 마무리하자.

**선티** A에는 B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A < B의 관계를 말해주는 1번으로 가면 되겠다. 2번 선지는 지문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요지'가 아닌 '세부'적 내용으로 세부의 함정이다.

- ① 전문직에 부여되는 자율성(A)은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B)을 수반한다.
- ② 전문직의 권위는 해당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이용되어 왔다.(세부의 함정)
- ③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할 수 있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off)
- ④ 전문직이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사회 경제적 요구에 따라 변화해 왔다.(off)
- ⑤ 전문직의 업무 성과는 일정 수준의 자율성과 특권이 부여될 때 높아진다.(off, A 강조)

# Note



**Shean.T's Comment**

정답: ③번.

P 지문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으나, '정확한 P'가 무엇인지 잡는 게 중요하다. 이 정확한 P를 잡는 데 있어 역시 AB의 개념이 활용된다. 인간과 기계를 '분리(A)'하고 인간도 기계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둘이 '협력(B)'하며 인간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

P(A): 인간과 기계의 업무를 분리하고 인간에게 기계 업무를 맡기는 것

S(B):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며 인간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것

**Vocabulary**

1. arise	1. 발생하다	9. operation	9. 작업
2. collaborative	2. 협력의	10. precision	10. 정밀함
3. assign	3. 맡기다, 배정하다	11. component	11. 구성 요소
4. automate	4. 자동화하다	12. take advantage of	12. ~을 이용하다
5. end up	5. 결국 ~에 이르다	13. rely upon	13. ~에 의존하다
6. in ~ fashion	6. ~ 방식으로	14. unsuited	14. 부적합한
7. capability	7. 능력	15. blame(v)	15. 비난하다
8. keep alert	8. 경계를 유지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23(54.1%)

Difficulties(P) arise when we do not think of people and machines as collaborative systems(B), but assign whatever tasks can be automated to the machines and leave the rest to people(A). This(P) ends up requiring people to behave in machine-like fashion(P), in ways that differ from human capabilities(B).

어려움이 발생한다 / 사람과 기계를 협업 시스템으로 생각하지 않고, / 자동화될 수 있는 작업은 무엇이든 기계에 할당하고 / 그 나머지를 사람들에게 맡길 때. / 이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기계와 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 즉 인간의 능력과 다른 방식으로.

**선택** 첫 문장부터 바로 P를 말하는구나 잡아주고, P가 생기는 '상황'을 not A but B의 논리로 표현하고 있으니(여기서의 AB는 그냥 표현을 나타내는 AB..) 그 AB를 또 제발제발 천천히 읽고 생각해서 이해한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은 B가 된다. 즉, '협력(collaborative)'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but 기계랑 인간이 각기 따로 일을 하면 P가 생긴다. 전자를 B, 후자를 A로 잡아주자. A를 이해할 때, 제발 그냥 이해하지 말고, '협력'의 반대는 뭐지? 아 분리해서 할 때 문제 생긴다고~ 하면서 AB의 대립성을 느끼며 이해하자.

**선택** 다음 문장에서 P 상황을 이어주고 있다. 인간이 기계처럼 행동하는 게 P구나 하고 P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We expect people to monitor machines(A), which means keeping alert for long periods, something we are bad at(P). We require people to do repeated operations with the extreme precision and accuracy required by machines(A), again something we are not good at(P).

우리는 사람들이 기계를 감시하기를 기대하는데, / 이는 오랫동안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 그것은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 우리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할 것을 요구한다 / 기계에 의해 요구되는 극도의 정밀함과 정확성을 가지고, / 이 또한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어떤 것이다.

**선택** 인간이 '기계처럼' 행동해서 나오는 P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인간이 기계처럼 '정확성!!!'을 추구하며 일하면 P가 생기거나~ 하는 것을 'bad at, not good at' 같은 표현을 통해 잡아주고 이해하자.

When we divide up the machine and human components of a task in this way(A), we fail to take advantage of human strengths and capabilities(P) but instead rely upon areas where we are genetically, biologically unsuited(P). Yet, when people fail, they are blamed(P).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과제의 기계적 구성요소와 인간적 구성요소를 나눌 때, / 우리는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 그 대신 영역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다 /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부적합한. / 하지만, 사람들이 실패할 때, 그들은 비난을 받는다.

**선택** 글의 서두에서 예측했던 A의 개념, 즉 '분리(divide)'가 나오므로 바로 A 상황으로 잡아주시고, 그래서 P가 생기는구나 이해한다. Yet 뒤에 S라도 나오나!? 하지만, 사람들이 P가 생길 때 결국 비난 받는 건 사람들이라는 P가 강조되고 있구나 잡으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선택** 이 P를 정확하게 표현한 3번으로 가자. 이 지문의 P는 인간에게 기계처럼 행동하라는, 맞지 않는 일을 맡겨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둘이 잘 '협력'하는 게 B이자 S!

- ① difficulties of overcoming human weaknesses to avoid failure(off P) 실패를 피하기 위해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는 것의 어려움
- ② benefits(off) of allowing machines and humans to work together 기계와 인간을 함께 일하게 하는 것의 이점(17.3%)
- ③ issues of allocating unfit tasks to humans in automated systems(P) 자동화 시스템에서 인간에게 부적합한 작업을 할당하는 문제
- ④ reasons why humans continue to pursue machine automation(off, A 쪽) 인간이 계속해서 기계 자동화를 추구하는 이유(17.1%)
- ⑤ influences of human actions on a machine's performance(off) 인간의 행동이 기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제발 지문의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가 파악부터 하도록 하자! 이 지문은 지문 처음, 중간, 끝 중 중간이 중요하다. 왜? 대놓고 통념의 표현과 not A but B의 논리를 때리고 있으니까 :) 여기서 확실히 B의 개념을 '놀이의 변화'로 잡아 답과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

A: 통념, 어른들은 놀이를 안 함 < B: 필자, 어른이 되어도 다른(변화된) 형태의 놀이를 함!

**Vocabulary**

1. effortlessly	1. 쉽게, 노력 없이	9. transformation	9. 변신, 변화
2. absorption	2. 몰입, 흡수	10. moving	10. 감동시키는
3. narratively	3. 이야기식으로	11. stability	11. 안정성
4. adolescence	4. 청소년기	12. identify with	12. ~와 동일시하다
5. fiction	5. 소설, 허구	13. alter	13. 변경하다
6. regress	6. 퇴행시키다	14.	14.
7. derive from	7. ~에서 기인하다	15.	15.
8. metaphorical	8. 은유적인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6.23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between play and **absorption** in a story, as if both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The taking of roles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 is not very different than the taking of roles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아이들은 쉽게 이동한다 / (역할) 놀이와 이야기로의 몰입 사이를, / 마치 그 둘이 같은 활동의 형태인 것처럼. / 이야기식 구조의 해적 게임에서 역할을 맡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다 /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며 역할을 맡는 것과 / 영화를 감상하면서.

**선티** 이 두 문장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답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 의식도 없고, 대립성도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지문 전체에서 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 한다. 두번째 문장은 'not different'이므로 대립성이 아니다. 아이들이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 놀이 같은 거 하는구나~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다.

It might be thought that,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people give up childhood play(A), **but this(A) is not so**. **Instead, the bases and interests of this activity change and develop(B)** t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to the **fiction** of plays, novels, and movies, and nowadays to video games.

여겨질 수도 있다 /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 사람들이 아동기의 놀이를 그만둔다고, / 하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 대신에, 이런 활동의 기반과 흥미가 바뀐다 / 그리고 스포츠 활동과 관람으로 발전한다, / 연극, 소설, 영화의 허구로, / 그리고 최근에는 비디오 게임으로 발전한다.

**선티** It might be thought that..에서 '통념' A구나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라는 뜻이니, 필자가 아니라 필자가 까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 그 내용을 A로 잡아준다. 통념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놀이를 포기한다는 것. 그걸 not so!!!로 까주고, Instead를 통해 필자의 의견 B를 말해주고 있으니 집중해서 잡고 이해한다. 아 어른들이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놀이의 기반과 흥미가 '바뀌는' 것이구나.

In fiction,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this is **not** a sign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or regressed(A). It **derives from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 of our selves in new ways(B), in new worlds, in ways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 pirate: 해적 \*\* incoherent: 일관되지 않은 허구에서 사람들은 있을 법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 그런 세계에서 감정들을 경험하면, / 이는 신호가 아니다 /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거나 퇴행하고 있다는. / 그것은 기인한다 / 우리 자신의 은유적 변신을 시도하는 것에서 /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계에서, / 우리에게 감동적이고 중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티** AB를 잡았으니 이 뒤는 이에 대한 부연이다. 혹 완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서 잡은 AB가 중요한 부분이거나 기억에 남아야 한다.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은 이 부분도 이해하는 것. not!!!에 반응하면서, 다시 한번 not A (but) B를 잡아주자. 우리가 허구(연극, 소설..)에 빠지면, 이는 우리가 나쁘다는(incoherent, regressed)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이 변화(transformations)!!!! 하는 것이구나에 제발 반응하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선티** 머릿속에는 우리가 나이 먹어도 놀이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변한다!!!'라는 개념이 박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휘력이 된다면 4번의 'altered'라는 단어가 눈에 확 박혀야 한다. 어린 시절 '후'는 B를 뜻하고, 놀이의 변경된 형태에 B를 때리면서 4번으로 답을 고르자.

- ① relationship between play types and emotional **stability**(off)  
놀이 유형과 정서적 안정 간의 관계
- ② reasons for **identifying with** imaginary characters in childhood(off)  
아동기에 가상의 등장인물과 동일시하는 이유
- ③ ways of helping adolescents develop good reading habits(off)  
청소년이 좋은 독서 습관을 개발하도록 돕는 방법
- ④ **continued engagement in altered forms of play(B) after childhood(A)**  
아동기 이후 변화된 형태의 놀이에의 지속적인 참여
- ⑤ effects of narrative structures on readers' imaginations(off)  
이야기 구조가 독자의 상상력에 미치는 영향

###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어휘, 논리, 소재로 어렵게 나온 대의과약이다. 어휘력과 논리력이 어느정도 뒷받침 된다면, 지문의 'AB' 키워드와 그 특성만 명확히 잡는다는 생각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이 지문은 '기하학적 모양 vs. 미적 경험'이라는 AB를 잡은 후, 각각의 특징을 드러내는 단어를 추가로 AB로 grouping한 후에 지문 후반부는 빠르게 확인만 하며 독해를 마무리해야 한다.

A: 기하학적 모양, 측정 가능, 제약

B: 미적 경험, 감정, 상상력, 측정 X, 제약 X

### Vocabulary

1. induce	1. 유발하다	9. stimulate	9. 자극하다
2. insofar as	2. ~하는 한	10. associated with	10. ~와 연관된
3. underlying	3. 근본적인	11. indefinable	11. 규정할 수 없는
4. precision	4. 정확성	12. decode	12. 해독하다
5. grasp(v)	5. 이해하다	13. present(a)	13. 존재하는
6. give rise to N	6. ~을 일으키다	14. comfort zone	14. 안락 구역
7. immeasurability	7. 헤아릴 수 없음	15. violate	15. 벗어나다, 어기다
8. constrained	8. 제약된	16. inclination	16. 경향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23

In Kant's view, geometrical shapes(A) are too perfect to induce an aesthetic experience(B).

칸트가 보기에, 기하학적 모양은 너무 완벽하다 / 심미적 경험을 유발하기에는.

**선택** too to라는 '사실상' 부정 표현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기하학적 모양'과 '미적 경험'이라는 두 개념이 대립됨을 확실하게 잡아주자. 기하학적 모양이 미적 경험을 유발할 수 '없다'고 하니, 기하학적 모양을 A로, 미적 경험을 B로 잡아주자.

Insofar as they agree with the underlying concept or idea — thus possessing the precision that the ancient Greeks sought and celebrated — geometrical shapes(A) can be grasped, but they(A) do not give rise to emotion(B), and, most importantly, they do not move the imagination(B) to free and new (mental) lengths.

그것들이 근본적인 개념이나 생각에 일치하는 한 / 그래서 '정확성'을 갖고 있는 한 / 고대 그리스인들이 추구하고 찬양했던, / 기하학적 모양은 이해될 수는 있다 / 하지만 그것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 그것들은 상상력을 움직이게 하지 않는다 / 자유롭고 새로운 (정신적인) 범위로.

**선택** 문장이 길다. 문장이 긴 이유는 부사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Insofar as S V(~하는 한)이라는 부사절이 끝나고 주절의 주어가 'geometrical shapes'구나 파악하는 게 먼저다. 그리고 부사절의 어려운 내용은 '덜' 중요하므로 주절에 집중해서 AB를 잡아준다. 특히 but과 do not!!에 반응하자. 기하학적 모양은 감정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고 하니, 전자를 A, 후자를 B로 잡자. 이제 슬슬 AB의 개념이 잡힌다. 아~ A는 그저 기하학적 모양이고(물리적), B는 미적 경험(감정, 상상 = 추상적)이라는 얘기이구나!

Forms or phenomena(B), on the contrary, that possess a degree of immeasurability(B), or that do not appear constrained(A), stimulate the human imagination(B) — hence their ability to induce a sublime aesthetic experience(B).

그와는 반대로, 형태나 현상은, / 어느 정도의 헤아릴 수 없음을 가진, / 혹은 제약되어 보이지 않는, /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 따라서 숭고한 심미적인 경험을 유발할 수 있다.

**선택** 역접 on the contrary가 나왔으니 또 반응! 형태와 현상을 B로 잡아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태, 현상이랑 모양이랑 어떻게 다르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 본인 배경지식에 맞춰 이해가 안 가더라도, 구조적으로 이 앞이 A에 대한 얘기였고 on the contrary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B여야 한다. 그리고 B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들 통해 B를 더욱 구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때, not A로 표현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A의 특징도 이해하는 것이다. '측정 불가(immeasurability)'가 B의 특징이면, A는 측정 가능하다는 것. '제약되지 않은' 것이 B의 특징이면, A는 제약되어 있다는 것.

The pleasure associated with experiencing immeasurable objects(B) — indefinable or formless objects — can be defined as enjoying one's own emotional and mental activity(B). Namely, the pleasure consists of being challenged and struggling to understand and decode the phenomenon present to view. Furthermore, part of the pleasure comes from having one's comfort zone (momentarily) violated.

\* geometrical: 기하학의 \*\* aesthetic: 심미적인

\*\*\* sublime: 숭고한

헤아릴 수 없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과 연관된 즐거움은, / 즉 규정할 수 없거나 형태가 없는 대상을 (경험하는 것) / 정의될 수 있다 / 사람 자신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활동을 즐기는 것으로. / 다시 말해, 그 즐거움은 구성된다 / 도전 받고 애쓰는 것으로 / 볼 수 있게 존재하는 현상을 이해하고 해독하기 위해. / 게다가, 그 즐거움의 일부는 온다 / 사람의 안락 구역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는 데서.

**선택** AB를 확실히 잡았고, 또 개념도 거의 이해한 상태에서 추가적인 역접이 없는 한 세세하게 더 읽는 것은 무의미하다. 순접의 연결사들을 통해 계속 B 얘기를 하고 있구나~ '확인'하는 정도로만 읽으며 독해를 마무리한다.

**선택** 그대~로 B를 'not A(unconstrained)'로 표현한 5번으로 가자. unconstrained에서 not A를 느껴야 한다는 점에서 높은 어휘력과 논리력을 요구하는 문항이라 볼 수 있다.

- ① diversity(off) of aesthetic experiences in different eras  
서로 다른 시대에 심미적인 경험의 다양성
- ② inherent beauty in geometrically perfect shapes(A)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모양의 내재적 아름다움
- ③ concepts of imperfection(off) in modern aesthetics  
현대 미학에서 불완전함의 개념
- ④ natural inclination(off) towards aesthetic precision  
심미적 정확성을 향한 자연스러운 경향
- ⑤ aesthetic pleasure(B) from things unconstrained(not A)  
제약되지 않은 것으로부터 얻는 심미적 즐거움

# Note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글의 첫 문장부터 not A but B로 B를 정확히 표현해주시 시간이라는 B의 키워드를 머릿속에 박고 실험은 쪽 skimming 한 뒤 지문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B를 확인해주고 마무리해야 한다. 빠르고 정확하게 풀었어야 한다.

A: 통념, 촉각은 공간의 현상 < B: 필자, 촉각은 시간의 현상

**Vocabulary**

1. temporal	1. 시간의	9. sensory	9. 감각의
2. time-based	2. 시간에 기반을 둔	10. perception	10. 지각
3. spatial	3. 공간의	11. fingertip	11. 손가락 끝
4. carry out	4. 수행하다	12. acuity	12. 예민함
5. palm	5. 손바닥	13. make use of	13. ~을 이용하다
6. identify	6. 확인하다	14. unlock	14. 열다
7. clue	7. 단서	15. time-varying	15. 시간에 따라 변하는
8. at once	8. 즉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24(59.8%)

People(A) don't usually think of touch as a temporal(B) phenomenon, but it is every bit as time-based(B) as it is spatial(A).  
사람들은 보통 촉각을 시간의 현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 하지만 촉각은 전적으로 시간에 기반을 두고 있다 / 공간적인 만큼.

**선택** 하... 진짜 이 수능 제목의 서두는 참 수능답다.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not A but B로 '하고 싶은 말' 확실하게 딱 때려주고 그 다음부터는 다 실험을 통해 이 하고 싶은 말을 부연하는 거다. 이 때, temporal과 spatial이라는 단어를 각각 시간의, 공간의로 명확히 아는 사람은 그 하고 싶은 말을 더 확실하게 잡고 진행할 것이고, 아닌 사람은 또 실험을 어떻게 읽고 파가지고 이해하려 하겠지... 제발 제발. 마지막까지 단어 외우고 또 외우고. 그 외운 것으로 많은 지문에 적용하고 또 적용하고.

**선택** 한 문장이지만 not A but B를 곰곰이 생각해서 잘 이해해야 한다. '사람들의 보통(usually)' 생각은 A인데, 그 A가 생각하지 '않는' 것이므로, 촉각을 '시간의 현상'으로 보는 건 필자, 즉 B의 입장이다. 이해가 되나!? 안 되면 다시 천천히 문장을 읽어보자. 사람들(A)는 촉각을 시간으로 보지 않지만, (필자가 보기에) 촉각은 시간 기반(B)인 것이다. 여기서 머릿속에 시간 시간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히 B로 잡고 가야 한다.

You can carry out an experiment to see for yourself. Ask a friend to cup his hand, palm face up, and close his eyes. Place a small ordinary object in his palm — a ring, an eraser, anything will do — and ask him to identify it without moving any part of his hand. He won't have a clue other than weight and maybe overall size. Then tell him to keep his eyes closed and move his fingers over the object. He'll most likely identify it at once. By allowing the fingers to move, you've added time to the sensory perception of touch. There's a direct analogy between the fovea at the center of your retina and your fingertips, both of which have high acuity.

직접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할 수 있다. / 친구에게 요청해 보라 / 손을 컵 모양으로 둥그렇게 모아 쥐라고, /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 그리고 눈을 감으라고. / 그의 손바닥에 작은 평범한 물건을 올려놓아라 / — 반지, 지우개, 무엇이든 괜찮다 — / 그리고 그에게 요청해 보라 /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라고 / 손의 어떤 부분도 움직이지 말고. / 그는 어떤 단서도 갖지 못할 것이다 / 무게와 아마 전체적인 크기 외에. / 그런 다음 그에게 말하라 / 눈을 감은 채로 그 물건 위로 손가락을 움직여보라고. / 그는 거의 틀림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낼 것이다. / 손가락이 움직이게 함으로써, / 촉각이라는 감각적 지각에 시간을 더했다. / 직접적인 유사함이 있다 / 망막의 중심에 있는 중심와(窩)와 손가락 끝 사이에, / 그것 둘 다 예민함이 높다.

**선택** 그리고 이 긴~ 실험 예시는 사실상 거의 안 읽다시피 해야 한다. 쪽 그냥 훑는 느낌. 전제는 B가 시간이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 '촉각은 시간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겠지 뭐~'하고 넘어간다.

Your ability to make complex use of touch, such as buttoning your shirt or unlocking your front door in the dark, depends on continuous time-varying(B) patterns of touch sensation.

\* analogy: 유사 \*\* fovea: (망막의) 중심와(窩) \*\*\* retina: 망막  
촉각을 복잡하게 사용하는 능력은, / 어둠 속에서 셔츠 단추를 잠그거나 현관문을 여는 것과 같이, / 촉각이라는 감각의, 지속적인,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패턴에 의존한다.

**선택** 마지막 문장에서 such as 부분은 가볍게 건너뛰시고, '촉각이 시간(시간이 변화하는 것에) 달려있다'라고 하니 신나게 time-varying에 B를 때려주시고 독해를 마무리하면 되겠다.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문항이다. 그대~로 시간이 촉각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2번으로 가자. matter가 자동사로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면 또 말짱도루묵인 얘기. count와 함께 꼭 '중요하다'로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 ① Touch and Movement: Two Major Elements of Humanity(off)  
촉각과 움직임: 인류의 두 가지 중대한 요소
- ② Time(B) Does Matter: A Hidden Essence of Touch  
시간은 중요하다: 촉각의 숨겨진 본질
- ③ How to Use the Five Senses in a Timely Manner(off)  
오감을 시기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 ④ The Role of Touch in Forming the Concept of Time(off)  
시간의 개념을 형성하는 데 있어 촉각이 하는 역할(23.3%)
- ⑤ The Surprising Function of Touch as a Booster of Knowledge(off)  
지식의 촉진제로서의 촉각의 놀라운 기능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첫 문장이 Although 문장이고 확실한 PS 대립이 있으니 소재에 대한 PS를 확실히 잡아주고, 중간은 가볍게 읽은 뒤 마지막 부분 Of particular importance에 반응하면서 다시 한번 B를 확정하는 수미상관 느낌으로 읽어야 한다.

A: 노년의 사회적 인식 P < B: 노년의 사회적 인식 S(긍정적 사고 등)

**Vocabulary**

1. neuropsychological	1. 신경심리학적인	9. cue	9. 신호
2. emphasize	2. 강조하다	10. presence	10. 존재
3. perception	3. 지각	11. positivity bias	11. 긍정 편향
4. qualitative	4. 질적인	12. tendency	12. 경향
5. considerable	5. 상당한	13. senior	13. 노년의
6. prioritize	6. 우선시하다	14. maturity	14. 성숙
7. attend to N	7. ~에 집중하다	15. reverse(v)	15. 되돌리다
8. implication	8. 영향, 암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6.24

Although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approaches emphasize the losses with age(A,P) that might impair social perception(P), motivational theories indicate that there may be some gains or qualitative changes(B,S).

인식적 접근법과 신경심리학적 접근법이 강조하긴 하지만 / 노화에 따른 상실을 / 사회 지각을 손상시킬지도 모르는, / 동기 이론은 보여 준다 / 어떤 이득이나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센터** 첫 문장부터 Although!! 때려주니 콤마 앞뒤 민감하게 반응하자. 나이에 따른 사회 지각 손실에서 바로 P를 느끼시고, 콤마 뒤는 S일 거라 예상! 나이가 들어도 이득(gains)이 있다는 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되겠다. 뒤에서 이를 뒤집지 않는 한, 이것이 이 필자의 핵심임을 제발 머릿속에 박고 진행하셔야 한다.

Charles and Carstensen review a considerable body of evidence indicating that, as people get older, they tend to prioritize close social relationships, focus more on achieving emotional well-being, and attend more to positive emotional information(B) while ignoring negative information(P). These changing motivational goals in old age(B) have implications for attention to and processing of social cues from the environment.

Charles와 Carstensen은 재검토한다 / 상당한 양의 증거를 / 보여 주는 /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 정서적 행복을 성취하는 데 더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 그리고 긍정적인 정서적 정보를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 부정적인 정보는 무시하는 반면에. / 노년의 이런 변화하는 동기 부여상의 목표는 영향을 미친다 / 사회적 신호를 주목하고 처리하는 것에 / 주변 환경으로부터의.

**센터** 두 인물이 나오니 첫 문장의 부연임을 인지하시고, 이 긴 문장을 while 앞뒤로 대립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아, 나이 들어도 장점이 많구나 ~ 정도로 가볍게 처리해야 한다.

Of particular importance in considering emotional changes in old age is the presence of a positivity bias(B): that is, a tendency to notice, attend to, and remember more positive compared to negative information. The role of life experience in social skills also indicates that older adults might show gains in some aspects of social perception(B).

\* cognitive: 인식의 \*\* impair: 해치다  
특히 중요한 것은 / 노년의 정서적 변화를 고려하는 데 있어 / 긍정 편향의 존재이다. / 즉, 경향이다 / 더 많은 긍정적 정보를 인지하고, 주목하고, 기억하는 / 부정적 정보와 비교해서. / 사회적 기술에 관한 인생 경험의 역할 또한 보여 준다 / 노년의 성인이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 사회 지각의 일부 측면에서.

**센터** 마지막으로 '특히 중요한 것은'이라고 해주니, B를 더 확실히 잡아준다. 나이가 들면 '긍정 편향'이 생긴다. 즉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한다는 것. 'bias'라고 또 아무 생각 없이 A나 P 쪽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필자가 특히 중요하다고 하니 B로 잘 이해하자. 그대~로, 나이가 들었을 때의 사회 인식이 not P!!!라는, 1번으로 가자.

① Social Perception in Old Age: It's **Not** All Bad News(P)!

노년의 사회 지각: 전부 나쁜 소식은 아니다!

② Blocking Out the Negative Sharpens Social Skills(off)

부정적인 것을 떨쳐 버리면 사회적 기술이 연마된다

③ Lessons on Life-long Goals from **Senior** Achievers(off)

노년에 크게 성취한 사람들에게 얻는 평생 목표에 대한 교훈

④ Getting Old: A Road to **Maturity** and Objectivity(off)

나이를 먹는 것: 성숙과 객관성에 이르는 길

⑤ Positive Mind and Behavior: Tips for **Reversing** Aging(off)

긍정적인 마음과 행동: 노화를 되돌리기 위한 조언

**Shean.T's Comment**

정답: ③번.

어휘, 해석, 소재가 어렵긴 하지만 AB, P가 명확해도 너무 명확한 지문. 지문 중 반부터 AB를 공공서비스와 시민 참여로 '확실히' 잡아주고, 쪽 내려오다가, 결국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B가 A로 바뀌면서 P!!!!가 있다는 것이구나 요리하면서 가볍게 3번을 골라주면 되겠다.

P: 공공서비스(A)가 시민 참여(B)를 대체함

**Vocabulary**

1. governance	1. 통치	9. replacement	9. 대체
2. administration	2. 행정	10. substitute(n), substitution	10. 대체자(물), 대체
3. institution	3. 제도, 기관	11. diminish	11. 줄어들다
4. citizenry	4. 시민들	12. have an implication	12. 영향을 미치다
5. taxation	5. 과세	13. preparedness	13. 준비 태세
6. utility	6. 공익사업	14. sound(a)	14. 건강한
7. displace	7. 대체하다, 쫓아내다	15. contemporary	15. 현대의, 동시대의
8. involvement	8. 참여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24

The world has become a nation of laws and **governance** that has introduced a syste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agement to keep order. With this administrative management system, urban **institutions** of government have evolved to offer increasing levels of services to their **citizenry**, provided through a **taxation** process and/or fee for services (e.g., police and fire, street maintenance, **utilities**, waste management, etc.).

세상은 법과 통치의 나라가 되었다 / 공공 행정과 관리의 시스템을 도입한 /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 이런 행정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 도시의 정부 기관들은 진화했다 / 자신의 시민에게 증대되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 과세 과정 그리고/또는 서비스 수수료를 통해 제공되는 / (예를 들면, 치안과 소방, 도로 유지 · 보수, 공익사업, 쓰레기 관리 등).

**선티** 이 부분까지, 공공 행정이라는 참 어려운 애기와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이 파악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여기까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 대립성과 P가 없으니까. 그저 공공 서비스 애기이구나~ 정도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된다.

Frequently this(A) has displaced citizen involvement(B). Money for services(A) is not a replacement for citizen responsibility and public participation(B). Responsibility of the citizen(B) is slowly being supplanted by government(A) being the substitute provider.

빈번하게 이것은 시민 참여를 대체했다. / 서비스를 위해 내는 돈은 대체하는 게 아니다 / 시민의 책임과 공적인 참여를. / 시민의 책임이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 / 대체 제공자가 되는 정부에 의해.

**선티** 이 부분부터 AB를 할 수 있는 지점이 나오니 반응! '어휘'가 되는 친구는 displace부터 반응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면 not부터 반응하면 된다. displace를 '대체하다, 쫓아내다'로 아는 수험생이라면(많진 않을 것), 공공 서비스가 시민 참여(보통 필자가 좋은 쪽으로 판단하는)를 대체했어? 공공 서비스가 A고 시민 참여가 B네, 라고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not과 replacement에 반응하면서, 서비스 비용(money)이 A고 시민과 대중의 참여, 책임이 B구나 잡을 수 있겠다.

**선티** 그 다음 문장 supplant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필자는 B가 A로 바뀌는 P!!!의 뉘앙스를 풍기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제발제발제발.. 이 시점부터 '공공서비스(A)', '시민 책임, 참여(B)'를 머릿속에 '박고' 내려가면서 이 개념들을 AB로 grouping만 할 뿐이다.

Consequently, there is a philosophical and social change in attitude and sense of responsibility of our urban-based society to become involved(B). The sense of community and associated responsibility of all citizens(B) to be active participants is therefore diminishing. Governmental substitution(A) for citizen duty and involvement(B) can have serious implications(P). This impedes(P) the nations of the world to be responsive to natural and man-made disasters(P) as part of global preparedness.

\* supplant: 대신하다 \*\* impede: 방해하다  
결과적으로,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변화가 있다 / 책임의 태도와 의식에서 /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우리 사회가 참여해야 하는. / 공동체 의식과 모든 시민의 관련된 책임감은 /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는 / 그래서 줄어들고 있다. / 시민의 의무와 참여를 정부가 대신하는 것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이것은 전 세계의 국가들을 방해한다 / 자연재해와 인제에 반응하는 / 전반적인 준비 태세의 일부로.

**선티** '결과적으로' 시민의 책임과 참여(B)에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변화는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겠다. 왜? A로 대체되니까. 그것을 다음 문장 diminishing에서 명확히 말해주고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A가 B를 대체하면서 P!!!!가 쯤다는 것을 여러 P단어들로 확실하게 느껴주시고, 이 AB, P를 진짜 예쁘게 예쁘게 꾸겨 넣은 3번으로 가면 되겠다. cost가 P로 느껴지는 것이 관건. A가 주도하게 됨으로써 그 비용(P)으로 (바람직한) B는 감소한다. 3번.

**선티** 대의파악 ABPS로 요리 못했으면 정말 반성해야 한다 πππ.

- ① A **Sound** Citizen Responsibility in a Sound Government(A 강조) 건전한 정부에 건전한 시민의 책임감(이 갖는다)
- ② Always Better than Nothing: The Roles of Modern Government(A) 없는 것보다 항상 더 낫다: 현대 정부의 역할
- ③ **Decreased** Citizen Involvement(B): A Cost(P) of Governmental Services(A) 줄어든 시민 참여: 정부 서비스의 대가
- ④ Why Does Global Citizenship Matter in **Contemporary** Society?(off) 현대 사회에서 세계 시민권은 왜 중요한가?
- ⑤ How to Maximize Public Benefits of Urban-Based Society(off) 도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의 공적인 혜택을 최대화하는 방법

# Note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이미 문제는 이제 그 정체성이 확실하다. 밑줄 의미는 추상적인 ‘말’이 나오니, 나는 그 추상적인 말을 ‘단순한 로직 의미’로 이해하면 되는 것. 환경 소재의 경우 보통 PS를 중심으로 읽으면 좋다는 팁 또한 챙겨가자.

P: 인권 중심으로 인한 환경 파괴 → S: 환경 권리도 증시하여 환경 보호

**Vocabulary**

1. proverb	1. 속담	9. accelerate	9. 가속화하다
2. tale	2. 이야기	10. cut down on	10. ~을 줄이다
3. glorify	3. 미화하다	11. alter	11. 바꾸다
4. put across	4. ~을 이해시키다	12. violation	12. 침해
5. rate(n)	5. 속도, 비율	13. uncover	13. 밝히다
6. consumption	6. 소비	14. underrepresented	14. 잘 드러나지 않은
7. unsustainable	7. 지속 불가능한	15. lawmaker	15. 입법자
8. disposable	8.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수능.21**

There is an African **proverb** that says, ‘Till the lions have their historians, **tales** of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 The proverb is about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 ‘사자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갖게 될 때까지, 사냥 이야기는 언제나 사냥한 자를 미화할 것이다.’라는. / 이 속담은 권력, 통제, 법 제정에 관한 것이다.

**선티** 속담이 나오고 그 속담 인용구에는 추상적인 말이 넘쳐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이해하려고 붙잡고 있거나 멘붕이 될 것인가? 절대 노노. 제발 아 이 속담은 권력, 법에 관한 거구나~ 하시고 쿨하게 넘어가야 한다.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the role of the ‘lion’s historians(B,S)’.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S). They **have to be the voice of wild India(S)**.

환경 저널리스트는 ‘사자의 역사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그들은 환경에 대한 관점을 이해시켜야 한다 / 법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 그들은 인도의 야생자연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선티** 밑줄 의미 문장의 ‘사자의 역사가’라는 추상적 의미에 쫓지 마시고 이를 로직으로 단순화하자. ‘have to’에 반응하시고 밑줄을 B, S 쪽으로 잡아보자. 환경 얘기를 하는 걸 보니 PS 쪽으로 읽으면 더 직관적으로 와닿겠다. 나는 이제 ‘환경’ 문제에서 어떤 S를 말하는 건지를 잡으면 그게 밑줄의 의미다.

**선티** 밑줄 바로 다음 문장에서도 have to를 치면서 S를 표현해주니 잡고 이해하자. 아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환경의 관점을(당연히 보호하자는) 전달해야 하는구나!

The present **rate** of human **consumption** is completely **unsustainable(P)**. Forest, wetlands, wastelands, coastal zones, eco-sensitive zones, **they are all seen as disposable for the accelerating demands of human population(P)**.

현재 인간의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불가능하다. / 숲, 습지, 황무지, 해안 지대, 환경 민감 지역, / 모두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수효를 위해.

**선티** 이 두 문장은 P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 소비가 지속 불가능이고, 또 여러 환경은 인간을 위해 마음대로 쓸 수 있는(disposable) P를 말하는 거구나 ‘정도’ 잡아주고 넘어간다.

**But** to ask for **any change in human behaviour(S)** — whether it be to **cut down on consumption, alter** lifestyles or decrease population growth — **is seen as a violation of human rights(P)**.

하지만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든 요구하는 것은 / 소비를 줄이는 것이든,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이든, 인구 증가를 줄이는 것이든, / 인권 침해로 여겨진다.

**선티** But이 나왔으니 S가 등장하는데(인간 행동의 변화), 문장의 뉘앙스를 잘 이해해야 한다. 현재 상황이, 이 S를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여겨져, 이 S가 ‘잘 되고 있지 않다’는 P를 말하는 것이다.

**But** at some point **human rights(A)** become ‘**wrongs(P)**’. **It’s time we changed our thinking(S)**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ights of humans(A) and the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B)**.

하지만 어느 시점에 인권은 ‘옳지 않은 것’이 된다. /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할 때이다 / 인간의 권리와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선티** 또 But이 나오니 초집중!! 항상 최종 역점은 가장 중요하다. 앞에 나온 ‘인권 중심 관점(A로 볼 수 있겠다)’을 P라고 간 뒤, ‘~할 때이다(It’s time ~)’라는 표현으로 S를 말하고 있으니 답과 직결되는 문장이다.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한다. 아,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꿔야 하는구나. 인권(A)과 환경 권리(B)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좀 더 B에 중점을 뒀야 한다는 S의 뉘앙스를 느끼며 독해를 마무리하자.

**선티** 이 ‘A에서 B로의 변화(shift)’를 S로 표현한 2번으로 가면 되겠다. 무슨 ‘사자의 역사가들’이라는 말과 답은 1도 상관 없는 것 명심. 나는 지문의 단순한 로직을 이해할 뿐이다.

- ① **uncovering** the history of a species’ biological evolution(off)  
한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밝혀내는 것
- ② **urging** a shift to sustainable human behaviour for nature(S)  
자연을 위한 인간의 지속가능한 행동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것
- ③ **fighting against** widespread violations of human rights(off S)  
만연한 인권 침해에 맞서 싸우는 것
- ④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off S)  
더 잘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역사를 다시 쓰는 것
- ⑤ **restricting** the power of environmental **lawmakers**(반)  
환경법 제정자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지문 첫 두 문장에서 AB를 확실히 잡고 이해한 뒤, 예시는 빠르게 확인하고, 지문 마지막에서 AB를 다시 한번 정의하며 답을 내야 한다. 밑줄 의미는 애초에 추상적인 표현이 나온다. 이 표현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표현을 AB or PS로 정의하고 그 '개념'을 이해해서 문제를 푼다!

A: 대응하는 일(사람들의 연락) < B: 창의적인 일(주업무)

Vocabulary

1. switch to N	1. ~로 전환하다	9. the grain of	9. ~의 성질, 결
2. reactive	2. 대응적인	10. willpower	10. 의지
3. block off	3. 차단하다	11. switch off	11. ~을 끄다
4. priority	4. 우선순위	12. abandon	12. 포기하다
5. used to V	5. ~하곤 했다	13. inbox	13. 수신함
6. productive	6. 생산적인	14. illusion	14. 환상
7. a string of	7. 일련의, 잇따른	15. professionalism	15. 전문성
8. particularly	8. 특히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6.21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is to **switch to** creative work(B) **first**, reactive work(A) **second**. This(B) means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B) on your own **priorities**, **with** the phone and e-mail(A) **off**.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변화는 / 여러분이 일하는 습관에서 이뤄낼 수 있는 / 전환하는 것이다 / 창조적인 일을 먼저 하고 대응적인 일은 그 다음에 하는 쪽으로. / 이것은 의미한다 / 매일 많은 시간을 차단한다는 것을 / 여러분 자신의 우선순위에 따라 창조적인 작업을 위해, / 전화기와 이메일을 끈 채.

**선티** 이긴 정말정말 첫 문장부터 AB 잡아줘야지!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하니, A에서 B로의 변화를 말하겠다. 그리고 대응고 first, second로 무엇이 첫째로 중요하고 무엇이 그 다음인지 말해주니 AB로 잡고 이해하자. 아~ 일할 때 창의적인 일(B) 먼저 하고 반응하는(대응하는, 수동적인 느낌이 들어야 할) 일(A)은 나중에 하라고~.

**선티** 다음 문장에서 creative work를 한번 더 B로 잡아주고, '폰과 이메일은 끈다(off)'고 하니, 폰과 이메일은 A로 잡아주자. A가 좀 더 이해 된다. 아 내가 주로 해야 하는 창의적인 일, B가 있는데, 사람들의 전화, 이메일 응답하느라 그 B가 어렵단 얘기구나. 그러니 A를 끄고 일하라는 것!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P). Making this switch(B) turned me into a **productive** writer(S). Yet there **wasn't** a single day when I sat down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without a string of** people waiting for me to get back to them(A). It wasn't easy, and it still isn't, **particularly** when I get phone messages beginning "I sent you an e-mail two hours ago..." By definition, this approach(B)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and the pressures they put on you(A).

나는 좌절감을 느끼는 작가였다. / 이렇게 전환하자 나는 생산적인 작가로 변신했다. / 하지만 단 하루도 없었다 / 내가 기사나 블로그 게시물 혹은 책의 한 챕터를 쓰려고 앉을 날이 / 일련의 사람들이 내가 그들에게 답장을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 그것은 쉽지 않았다, / 그리고 아직도 쉽지 않다 / 특히 전화 메시지를 받을 때는 / "2시간 전에" 이메일을 보냈어요...!"라고 시작하는. / 당연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맞지 않는다 /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압박에.

**선티** 이 부분부터 '예시구나' 인식하는 게 먼저다. 이 예시 부분을 '빡세게' 읽을지, '가볍게' 읽을지는 사바사이다. 누군가는 이미 첫 두 문장에서 AB를 확실히 이해해서 이 부분을 가볍게 읽으며 '다른 사람 연락에 응답하는 것 맞네 ㅇㅇ' 할 것이고, 첫 두 문장에서 어휘/해석/이해력 부족으로 이것을 못한 경우는 이 예시를 빡세게 읽어 AB를 이해해야만 하겠다. 선티는 당연히, 전자를 추천하고 전자를 위해 평소 어휘/해석/이해력을 많이 늘리고 또 연습할 것을 권고한다.

It takes **willpower** to **switch off** the world(B), even for an hour. It feels uncomfortable, and sometimes people get upset(P). But it's **better** to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B), **than to abandon** your dreams for an empty **inbox**(A). **Otherwise**, you'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P).

세상에 대한 스위치를 끄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 단 한 시간 동안이라도. / 그것은 불편한 느낌이 들고, / 때로 사람들이 기분 상하기도 한다. / 그러나 사소한 것에 대해 몇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낫다 /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보다 / 빈 수신함을 위해(수신함을 늘 비어 있게 하려고). /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자신의 잠재력을 희생하고 있다 / 전문성이라는 환상을 위해.

**선티** 세상(사람들의 연락)을 끄는 것은 쉽지 않은 P가 있지만,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응답 빨리빨리 안 해서) than 뒤보다 '낫다'라고 하니, than 앞을 B로, than 뒤를 A로 잡아주는 것부터 하자. 밑줄 의미에 해당하는 'an empty inbox'는, 네가 inbox의 뜻을 몰라도, A라고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inbox가 이메일에서 '받은 편지함'이라는 의미로 알면 훨씬 와닿겠지만, 아는 친구가 많지 않았을 것(그러니 밑줄로 낸 것이다).

**선티** A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응답에 요구하는 것' 정도가 된다. 이를 그대로 표현한 2번으로 가자!

- ①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off)  
혁신적인 행동 방침을 따르는 것
- ②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A)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하려고 시도하는 것
- ③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s(off)  
도전적인 일을 실수 없이 완수하는 것
- ④ removing social ties to maintain a mental balance(off)  
정신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유대를 제거하는 것
- ⑤ secur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off)  
소셜 네트워킹을 위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는 것

Shean.T's Comment

정답: ②번.

개인 집단 개인 집단이라는 지겹디 지겨운 AB의 개념이니,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도 But!!! 뒤를 통해 확실히 집단이 A고 개인이 B구나라는 로직 확정만 했으면, 그걸 '믿고' 확실하게 not A but B의 선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But 앞에 어떤 얘기가 있어도 결국 하고 싶은 얘기(로직)는 But 뒤라는 걸 잊지 말자.

A: 집단, 협력, 연결 < B: 개인, 자율

Vocabulary

- |                        |                 |                   |           |
|------------------------|-----------------|-------------------|-----------|
| 1. flick               | 1. (스위치를) 확 누르다 | 9. hyperconnected | 9. 과잉 연결된 |
| 2. collaboration       | 2. 협업           | 10. periodically  | 10. 주기적으로 |
| 3. stand in the way of | 3. ~에게 방해가 되다   | 11. diverse       | 11. 다양한   |
| 4. out of the loop     | 4. 상황을 잘 모르는    | 12. enforce       | 12. 시행하다  |
| 5. glued to N          | 5. ~에 열중한       | 13. punishment    | 13. 처벌    |
| 6. adjust              | 6. 조정하다         | 14. prohibit      | 14. 방해하다  |
| 7. go off on one's own | 7. 홀로 자리를 벗어나다  | 15.               | 15.       |
| 8. reassuring          | 8. 안도감이 드는      | 16.               |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2.9.21(70%)

**Flicking the collaboration light switch(S) is something that leaders are uniquely positioned to do, because several obstacles(P) stand in the way of people voluntarily working alone(B).**

협업의 전등 스위치를 확 누르는 것은 / 고유하게 지도자들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다, / 왜냐하면 여러 장애물이 방해되기 때문이다 / 자발적으로 혼자 일하는 사람들에게.

**선택** 밑줄 의미 부분에서 그 자체로 로직을 느낄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없는 케이스가 있다. 이 문항은 전자이다. 왜? collaboration이 너무 강력한 AB or PS가 되는 단어이다. '협력'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하는 것이다. 즉, '개인 vs. 집단(사회)'의 AB일 가능성이 높다.

**선택** 이 밑줄을 '리더가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하니, 기본적으로 밑줄 자체는 S라고 볼 수 있다. 그럼 과연 협력을 하는 게 S인지 안 하는 게 S인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는 동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고 알 수 있다. 근데 flick을 제대로 아는 수험생은 잘 없을 것이고, 수능날에도 아마 추상적이고 어려운 단어를 돌 확률이 높으니, flick을 통해 추론하는 사후적 해설까지 가진 않겠다. 그저 '협력(집단)'이라는 개념이 A(P)일지, B(S)일지 집요하게 파악해야지 생각만 해도 성공한 것.

**선택** because절에도 obstacle(장애물)이 로직 P로 바로 보이니 잡아준다. 그리고 뒤 쪽에 나오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표현에서 '협력'과 반대되는 단어가 딱 보이면 금상첨화. 뭐? alone. 아~ 이 지문 '혼자(개인) vs. 같이(집단)'의 AB 맞네 여기서 확정한다. 로직 '발'이기에 좀 더 꼼꼼히 생각해 보면, 리더는 '혼자'인 사람들에게 P가 있으니까 '밑줄'을 S로 해서 이 P를 해결해야 한다. 그럼 필자가 '강조'하는 사람들은 '협력'하는 쪽일까 '혼자' 일하는 쪽일까? 바로 혼자 일하는 쪽. 개인 집단의 AB이고, '집단'을 A로, '개인'을 B로 첫 문장을 읽고 잡을 수도 있겠다.

**선택** 첫 문장을 아주 길게 설명했는데, 실전에서 이것을 다 잡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평소 분석'할 때는 위와 같이 다 잡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얘기. 그래야 '실전'에서 위 여러 개 로직 중 몇 개라도 잡고 지문을 좀 더 미리, 확실히 이해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For one thing, the fear of being left out of the loop(P) can keep them glued to their enterprise social media(A). Individuals don't want to be — or appear to be — isolated(P). For another, knowing what their teammates are doing(A) provides a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because people(A) can adjust their own behavior to be in harmony with the group(A). It's risky(P) to go off on their own to try something new(B) that will probably not be successful right from the start.

우선, 상황을 잘 모르고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은 / 그들이 계속 자신들의 기업 소셜 미디어에 매달리도록 할 수 있다. / 개인들은 고립되거나 고립된 듯 보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 / 또 다른 이유로는, / 자신들의 팀 동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제공한다 / 편안하고 안전하다는 느낌은, /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집단과 조화를 이루도록. / 홀로 벗어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 위해 / 아마도 바로 처음부터 성공적이지 않을.

**선택** 첫 문장에서 그래도 '집단, 협력'이라는 개념을 A로 잡았다면, 이제 내려가면서 '집단' 쪽에 속하는 개념은 A로, '개인' 쪽에 속하는 개념은 B로 이해할 뿐이다. 지금 이 단락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필자는 이 사람들을 좋아할까 같까? 까지 않을까? 이 단락은 필자가 까는 사람들, 즉 A에 대한 얘기이다. 이 사람들은 B!!!(개인 활동)를 하지 않고 집단(미디어, 동료..)에 편승한다. 왜? B하면 P 생길 것 같으니까, 라는 이 필자가 A를 제시하며 A의 행태를 아니꼽게 보는 뉘앙스를 잘 느끼셔야 한다.

**But even though it feels reassuring for individuals to be hyperconnected(A), it's better for the organization if they periodically go off and think for themselves and generate diverse — if not quite mature — ideas(B). Thus, it becomes the leader's job to create conditions that are good for the whole by enforcing intermittent interaction(사실상 not A) even when people wouldn't choose it for themselves, without making it seem like a punishment.**

\* intermittent: 간헐적인

하지만 안도감이 든다고 느낄지라도 / 사람들이 과잉 연결되는 것이, / 조직을 위해 더 좋다 / 그들이 주기적으로 (조직을)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여 /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안하는 것이 / 그다지 성숙하지는 않더라도. / 따라서, 지도자의 임무가 된다 / 전체에게 유익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 간간이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시행함으로써 / 사람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는 때에도, / 처벌처럼 보이게 하지 않으면서.

**선택** But!!! 무조건 반응하자. 이 지문의 구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그널에 네모 치세요, 하면 이 But에 처야 한다. 이 위까지는 A의 행태를 제시하면서 간접적으로 깎다면 이 But 기준으로 AB를 확실히 필자의 입장에서 제시해준다. 'hyperconnected'라는 단어가 A로 팍팍 들어오셔야 하고, 혼자 떠나서(go off)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는 개념은 B로 잡아주어야 한다.

**선택** 마지막에 intermittent!! 때문에 헷갈린 친구들이 있을 듯 하다. interaction이라는 개념은 상호작용이니 A 쪽인데, '간헐적인'이라는 표현이 '완전 부정도 긍정도 아닌' 표현이다보니 헷갈렸을 것이다. 선택의 추천은, 이런 '말장난'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이니, '구조적'으로 이해하라는 것이다. 이 문장은 Thus를 통해 앞 문장의 로직을 그대로 이어오므로, interaction이라는 A를 부정하는 의미'여야만' 한다. 이 구조의 필연성을 통해서 '간헐적인'이라는 표현을 사실상 거의 안 한다는 부정의 의미로 썼었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선택** 이제 다시 밑줄 의미를 보고, collaboration은 A이므로 not A를 하는 게 S의 의미가 되었다. not A but B를 예쁘게 표현한 2번으로 가자. 사실상 1, 3, 5번을 모두 A 쪽으로 구성된 점을 통해 더욱 더 2번 정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겠다.

- ① breaking physical barriers and group norms that prohibit cooperation(반) 협력을 방해하는 물리적 장벽과 집단 규범을 타파하는 것
- ② having people stop working together(A) and start working individually(B)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멈추고 개인적으로 일하기 시작하도록 하는 것
- ③ encouraging people to devote more time to online collaboration(off, A) 사람들이 온라인 협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도록 격려하는 것
- ④ shaping environments where higher productivity(off) is required 더 높은 생산성이 요구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 ⑤ requiring workers to focus their attention on group projects(A)(27.7%) 직원들이 집단 프로젝트에 관심을 집중하도록 요구하는 것

# Note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전형적인 '어려운 대의과약' 문제다. 내용이 참 어렵고, 단어도 수준이 높다. 이때 가져야 할 태도는 단 하나. 'AB or PS'만 잡아서 '핵심'만 이해해서 답을 낸다. 내가 모든 단어, 문장을 이해할 수도, 이해할 필요도 없다.

A: 대중 문화, 저속한, 여성의 나쁜 이미지 vs. B: 비평가, 예술 옹호

Vocabulary

- |                      |                   |                      |                  |
|----------------------|-------------------|----------------------|------------------|
| 1. separate A from B | 1. A와 B를 분리하다     | 9. soap opera        | 9. 연속극           |
| 2. the masses        | 2. 대중             | 10. divorce A from B | 10.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
| 3. reject            | 3. 거부하다           | 11. righteous        | 11. 올바른, 정당한     |
| 4. refined           | 4. 세련된            | 12. subjectivity     | 12. 주관성          |
| 5. champion(v)       | 5. 옹호하다(advocate) | 13. corruption       | 13. 부패, 타락       |
| 6. self-reflexivity  | 6. 자기 반영성         | 14. hierarchical     | 14. 위계의          |
| 7. distancing effect | 7. 거리 효과          | 15. contrary to N    | 15. ~와 대조되는      |
| 8. suspected of      | 8. ~로 의심되는        | 16.                  |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19.9.23(52%)

1950s critics(B) separated themselves from the masses(A) by rejecting the 'natural' enjoyment(A) afforded by products of mass culture(A) through judgments based on a refined sense of realism.

1950년대 비평가들은 자신들을 대중과 분리시켰다 / 대중 문화 상품에 의해 제공된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거부함으로써 / 현실주의의 세련된 감각에 기반한 판단을 통해.

**선티** 첫 문장부터 바로 AB 잡기. separate A from B라는 표현을 통해 두 대상이 등장한다. 비평가와 대중. 둘 중 어느 것으로 AB를 잡아도 크게 상관은 없으나(본질은, '나누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필자가 좀 더 방점을 두는 대상은 '비평가'가 되겠다. 그러니 주어 자리에 있을테고. 비평가를 B로 잡고 대중을 A로 잡자. 문장의 길이나 내용 수준을 봤을 때 난이도가 꽤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드니, by 뒤에도 AB를 철저히 잘 잡도록 하자. B가 '거부(reject)'하는 것들이 나오고, 이것들은 다 'A'가 되겠다. '대중 문화(A)'에 의해 제공된 '자연스러운 즐거움(natural enjoyment)' 모두 A로 그룹핑.

For example, in most critics(B) championing Douglas Sirk's films' social critique, self-reflexivity, and, in particular, distancing effects, there is still a refusal of the 'vulgar' enjoyments(A) suspected of soap operas(A).

예를 들어, 대부분의 비평가들에게 있어 / Douglas Sirk 영화의 사회 비평, 자기 반영성, 그리고 특히 거리 효과를 옹호하는, / 여전히 '저속한' 즐거움에 대한 거부가 있다 / 연속극으로 여겨지는.

**선티** 예시이므로, '안 읽어도' B가 A를 까는(철저히 구분하는) 내용이겠다. 그렇다고 아예 안 읽는 느낌보다는, 가볍게 AB를 잡는다는 느낌이 좋다. championing을 포함한 중간 부분이 해석, 단어가 어려운데, 실전이라면 그 부분은 넘기고 문두의 critics를 B로, 문미의 vulgar(저속한)를 A로 잡는 정도가 좋다.

This refusal again functions to divorce the critic(B) from an image of a mindless, pleasure-seeking crowd(A) he or she has actually manufactured in order to definitively secure the righteous logic of 'good' taste.

이러한 거부는 또 다시 가능하다 / 비평가를 생각 없고, 쾌감만 좇는 군중의 이미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 사실상 그 비평가가 만들어낸 / '좋은' 취향이라는 정당한 논리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

**선티** 단어도 어렵고 내용의 추상성도 있는데, 쫓지 말고 'divorce from'을 보고 AB를 잡는 게 중요하다. 이혼은 정말 둘의 철저한 '분리' 아닌가? 내용을 철저히 다 이해한다기보다, 아 critics가 crowd를 배척, 분리시켰구나, 정도만 이해하면 되는 것이다.

It(B) also pushes negative notions of female taste and subjectivity(A).

이는 또한 여성의 취향과 주관성이라는 부정적 관념을 밀어붙인다.

**선티** female taste, subjectivity의 정확한 의미가 와닿지 않더라도, B가 보기에 '부정적'인 것이니, A로 그룹핑한다!

Critiques(B) of mass culture(A) seem always to bring to mind a disrespectful image of the feminine(A) to represent the depths of the corruption of the people.

대중 문화 비평가들은 항상 떠올리는 것처럼 보인다 / 여성의 무례한 이미지를 / 사람들의 타락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

**선티** 계속해서 '여성'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이도이다. 앞 문장에서 여성을 A로 잡았기에, 역시 B가 A를 경멸한다(disrespectful) 정도만 잡고 넘어가도 된다. 내가 이 어려운 내용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순 없다.

The process of taste-making operated, then, to create hierarchical differences between the aesthete(B) and the masses(A)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esthetic positions(B) contrary to the perceived tasteless pleasures of the crowd(A).

\* vulgar: 저속한, 서민의 \*\* aesthetic: 미학의, 심미적인  
그러면, 이러한 취향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작동한다. / 예술 애호가와 대중 사이의 계급간 차이를 만들도록 / 미적 위상을 구성함으로써 / 대중의 감각적이지 않은 인지 쾌감과 대조되는.

**선티** 마지막 문장에서 확실하게 AB를 해주며 글의 논지를 분명히 한다. 'hierarchical difference(계급의 차이)'에서 예술 애호가(aesthete, 외올 필요까진 없다)와 masses를 각각 AB로 잡고, contrary to 앞뒤도 '각각 B,A'로 잡으면, 글의 핵심 논지가 확실히 이해된다. 아, 전문가, 비평가들은 자기들은 '미적인 취향(B)'이라며 으스스대고, 대중의 취향(A)을 깎다고 말하는 글이구나.

**선티** 정말 완벽하게, 1번이 이 AB, 그리고 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B가 A를 부정적으로 보고, 그 결과(effects)가 마지막 문장이라 볼 수 있겠다. 3, 4번은 그럴싸한 '문화' 얘기라 off topic.

- ① critics(B)' negative view on popular tastes(A) and its effects  
대중의 취향에 대한 비평가의 부정적 관점과 그 결과
- ② criticism of cultural hierarchy(반) in soap operas and films  
연속극과 영화에서의 문화 계층에 대한 비판  
(B는 문화 계층을 옹호하는 쪽이다)
- ③ side effects of popularized cultural products on crowds(off)  
대중화된 문화 상품이 군중에 미치는 역효과
- ④ resistance of the masses to cultural separations and its origins(off)  
문화(적) 분리에 대한 대중의 저항과 그것의 기원
- ⑤ critics' tendency to identify the refined tastes of the masses(반)(23%)  
대중의 세련된 취향을 확인하려는 비평가의 경향  
(이글은 B가 A를 철저히 까는 글이다)

Shean.T's Comment

정답: ④번.

좋은 문제다. 좋은 문제라 함은, 어려운데 논리가 참 좋게 어려워서, 얻을 게 많아서, 다음에 비슷한 논리의 지문이 평가원에 나올 수 있다는 것.

문제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① 지문 1/3에서는 단어/문장 길이에 쫓겨 말고 P만 잡을 것.

② P의 원인을 not A but B로 표현하는 것을 잡을 것.

③ 그 후 B를 부연하는 문장들을 통해 B의 개념을 '정확히' 할 것(사회적 이미지나 차별이 아니라 사회적 역할(위치)이 없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위해 엄청난 구문력과 문장 해석력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휘력'과 ABPS '논리력'은 있어야 한다.

Vocabulary

1. dullness	1. 둔함, 둔감함	9. aging	9. 노화
2. withdrawal	2. 철수, 소외, 단절	10. involuntary	10. 비자발적인
3. clinging to N	3. ~에 매달림	11. loosening	11. 느슨해짐
4. worldly affairs	4. 세상사	12. strip A of B	12. A에게서 B를 벗겨내다
5. characteristically	5. 특징적으로	13. the elderly	13. 노인들
6. inevitable	6. 불가피한	14. be deprived of	14. ~가 박탈되다
7. following	7. after	15. cut off from	15. ~로부터 단절된
8. academic discourse	8. 학술 담론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9.24(63%)

From the late nineteenth century on, the **dullness(P)** found in the senile, **their isolation and withdrawal(P)**, their **clinging to** the past and lack of interest in **worldly affairs** were **characteristically** represented as **the symptoms of senility(P)** — the social shame of the **inevitable deterioration of the brain(P)**.

19세기부터 계속해서, / 노쇠한 분들에게 발견되는 둔감함은, / 그들의 고립과 단절은, / 그들의 과거에 대한 집착과 세상에 대한 관심 부족은 / 특징적으로 노쇠함의 증상으로 표현된 것이다 / - 불가피한 뇌의 악화로 사회적 수치이다.

**선티** 문장이 길다. 길수록 단순화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어떻게? ABPS로. 이 문장을 읽을 때의 느낌은, P! 느낌이 나는 단어에 P를 치면서, '노인분들이 문제가 많구나' 정도인 것이다(이걸 하려면 당연히 어휘력은 좋아야 한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이해할 게 없다. 그러지 않고, 이 문장 길이와 단어에 쫓아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말리만 안 되는 것.

**선티** senile을 외울 필요까진 없지만 'deterioration'은 '악화'로 외워두는 게 좋다. 수능영어에서 무조건 각주로 나오는 단어 아니다.

Following World War II, **academic discourse** on aging typically represented **these** as the **causes of senility(P)**.

2차 세계 대전 후, / 노화에 대한 학술 담론은 보통 이러한 것들을 나타냈다 / 노쇠함의 원인으로.

**선티** 'these'를 통해 첫 문장의 많은 단어들을 정리해준다. 이것들이 노쇠함(senility)이라는 P의 원인이거나. P의 '인과관계'가 나오고 있다. 인과관계는 P지문에서 참 중요하다. 아니 님들이 성적이 안 나와(P), 그럼 원인을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The **location of senile mental deterioration(P)** was **no longer the aging brain(A) but a society(B)** that, through **involuntary retirement, social isolation, and the loosening of traditional family ties, stripped(V) the elderly of** the roles that had sustained meaning in their lives.

노쇠한 정신 악화의 위치는 / 더 이상 노화되는 뇌가 아니라 사회였다 / 비자발적 은퇴, 사회적 고립, 그리고 전통적인 가족 유대의 느슨함을 통해, / 노인분들의 역할을 박탈한 / 그들의 삶에서 의미를 지탱했던.

**선티** 옛, not(no longer) A but B 논리가 나오니 또 초집중. 이런 노인의 정신 악화라는 P는 뇌(brain)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society)가 문제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해서도 되고, 좀 더 정확히는 'location'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표현 역할을 한다. 즉 문제의 '원인'이 뇌가 아니라 사회라고 더 정확히 말할 수 있다. 나는 이 AB만 잡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뒤는 그냥 P라는 거구나, 정도 인식한다.

**선티** a society that 뒤 through 전명구를 지우고 동사가 stripped라는 걸 잘 잡자.

When elderly people **were deprived of(P)** these meaningful **social roles(B)**, when they became increasingly isolated and were **cut off from** the interests and activities that had earlier occupied them, **not surprisingly their mental functioning deteriorated(P)**.

노인 분들이 이러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이 박탈될 때, / 이들이 점차 고립되고 단절될 때 / 이전에 그들이 몰입했던 흥미와 활동으로부터, / 그들의 정신 기능은 악화된 것은 놀랍지 않다.

**선티** 나는 이제 머릿속에 '사회가 문제의 원인. 사회. 사회. 사회.'를 박고 읽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보이는 것이 'social roles'라는 B 단어이고, B가 없으면(박탈되면 = were deprived of), P가 생긴다는 것만 확인. 역시 이 긴 문장을 하나 하나 해석하는 느낌은 아니다. 얼른 P를 확인하는 느낌이지.

The elderly did **not so much lose their minds(A) as lose their place(B)**.

\* senile: 노쇠한 \*\* deterioration: 노화

노인들은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기보다 / 그들의 위치를 잃은 것이다.

**선티** 마지막 문장에 한 번 더 뽀! not so much A as B도 not A but B와 같은 의미라는 것 꼭 기억(요즘 평가원이 좋아한다!!) 따라서 minds를 A, place를 B로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해력', 그리고 앞의 것과의 '연결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장소를 잃은 거라고? 뭘 개소리?' 하지 마시고, 아까 잡은 AB를 떠올린다. A는 뇌, B는 사회(적 역할). 아, 뇌, 즉 minds가 잘못된 게 아니라, 장소 → 위치, 즉 '사회적 위치'가 없어서 P가 생긴 거구나!

**선티** 지문을 다 읽고, 혹은 두세 번째 읽은 후, 머릿속에 '노쇠라는 P의 원인이 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역할의 문제구나' 남으시면 된다.

\* 우선 1, 5번 선지는 P!!도 아닌, 뭔가 긍정적 선지라는 것부터 탈락이다. 2,3,4번 중에서 '정확한 P의 인과관계'를 고르는 것. 2번의 P는 노인들의 '사회적 이미지'이고, 3번의 P는 '노인 차별'이다. 하지만 지문의 정확한 P는 노인들이 '사회적 역할(위치, 위상)'을 잃었다는 것. 이를 정확히 표현한 4번으로 가자.

- ① **Aged Mind in Concert with Aged Body(not P): An Unfailing Truth**  
나이든 신체와 조화되는 나이든 정신: 불패의 진실
- ② **No Change from Past to Present: Social Images of Old Age(off,매)**  
과거에서 현재까지 불변: 노년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 ③ **No Country for Old Men: Age Discrimination(off) Intensified(13%)**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이 차별이 강화되었다
- ④ **What Makes the Elderly Decline(P 원인): Being Left Out Socially(B)**  
무엇이 노인을 감퇴하게 하는가: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것
- ⑤ **Not Disabled But Differently Abled: New Faces of Old Age(not P)**  
불능이 아니라 다른 능력이 있을 뿐: 노년의 새로운 얼굴(측면)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어렵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정말 지문 중반까지 무슨 소리인지 1도 모르는 게 정상이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한 포인트는 아래와 같다.

① 첫 문장에서 내가 단련된 AB 내용으로, '개인 집단' AB를 잡았나 하는 것.

② 너무 어려운 부분은 건너 뛰고, AB를 확실하게 표현해준 부분을 통해 이것만 이해하고 답을 끌어내는 것.

지문 구조가 아주 좋으니, 꼭 지문을 '구조적으로' 보도록 하자.

과학의 A: 개인주의 < B: 집단주의

A good

A의 P

B 짱짱

Vocabulary

- |                      |                 |                             |                |
|----------------------|-----------------|-----------------------------|----------------|
| 1. individualist     | 1. 개인주의(의)      | 9. publicity seeker         | 9. 선전만 추구하는 사람 |
| 2. patience          | 2. 인내           | 10. unambiguously           | 10. 명확히        |
| 3. inquiring         | 3. 묻는, 탐구하는     | 11. authorize               | 11. 인가하다       |
| 4. unbiased          | 4. 편견 없는        | 12. disciplinary specialist | 12. 분야 전문가     |
| 5. speak for oneself | 5. 자명하다         | 13. standing(n)             | 13. 입지         |
| 6. insistently       | 6. 고집 세게, 끊임없이  | 14. a collective product    | 14. 집단의 산물     |
| 7. press conference  | 7. 기자회견         | 15. construction            | 15. 구성         |
| 8. permit A to V     | 8. A가 v하도록 허용하다 | 16.                         |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19.6.23(55%)

According to the **individualist(A)** form of rhetoric about science, still much used for certain purposes, discoveries are made in **laboratories(A)**.

과학에 대한 수사학의 개인주의의 형태에 따르면, / 여전히 특정 목적을 위해 많이 사용 되는, / 발견은 실험실에서 이뤄진다.

**선티** AB의 '시그널'은 없으나, 적당량의(많은 양도 아니다) 기출과 EBS를 풀어 본 친구라면 'individualist'에 반응하면 아주 좋다. 왜? 개인 집단 개인 집단 얘기는, 너무나 너무나 AB 단골 손님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첫 문장에서 individualist에 반응하셨다면 best, 바로 A로 잡아준다. 아니라면 지문을 한번 쪽 읽고 '아 개인 vs. 집단' 얘기구나 하고 다시 와서 잡으셔도 된다. 문장을 쉽게 이해하자. '개인주의 과학은 실험실에서 이루어진다.'

**They** are the product of inspired **patience**, of skilled hands and an **inquiring** but **unbiased** mind. Moreover, **they** **speak for themselves**, or at least they speak too powerfully and too **insistently** for prejudiced humans to silence them.

발견들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 인내의 산물이고, / 능숙한 손재주의 산물이며 / 탐구하는, 하지만 편견 없는 지성의 산물이다. / 게다가, 발견들은 자명하고, / 혹은 적어도 너무 강력하게, 너무 고집 있게 말한다. /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침묵시키기에는.

**선티** 이 부분에서의 읽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 선티도 그냥 숙 읽으면 '이거 뭔 말이야?'한다. 수험생은 어땠겠니.. 특히 Moreover 문장은 추상적이라 극혐이다. 이때, 수능영어는 이 부분을 이해할 원하는가? 절대 노노. 이 문장들은, 첫 문장인 'A' 문장을 부연할 뿐이다. 내 머릿속에는 그저 '개인주의 과학에 대한 얘기구나'만 들어와도, 문제 푸는 데 전혀 지장 없다.

It would be wrong to suppose that **such beliefs(A)** are not sincerely held, **yet** almost **nobody** thinks **they(A)** can provide a basis for action in **public contexts(B)**.

가정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이다 / 그러한 믿음들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고, / 하지만 거의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 이 믿음들이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 공적인 상황에서의 행동에 대한.

**선티** 당연히, 역접인 yet에 반응. yet 앞은 A를 나름 옹호하고 있고, yet 뒤는 A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행동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P가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만약, '공적인'이라는 단어를 보고 '개인'과 반대인 '집단' 쪽이구나, 그러니 B구나, 잡았다면 best, 못 잡아도 ok.

Any scientist(A) who announces a so-called discovery at a **press conference** **without** first **permitting** expert reviewers(B) to examine his or her claims is automatically **castigated** as a **publicity seeker**.

어느 과학자든 / 이른바 발견을 기자회견에서 발표하는 / 먼저 전문가들에게 주장을 검사하도록 하지 않고 / 자연스럽게 혹평받는다 / 선전만 추구하는 사람으로.

**선티** without을 통한 AB 대립이 아주 좋다. '전문 검토자들(expert reviewers)'을 AB 분류하면 어디인가? 당연히 B, 집단 쪽이다. B가 보게 하지 않고(without) 발표를 하는 과학자(A)는 사람들에게 까일(castigated) 것이다. AB가 슬슬 명확해진다. 개인 집단 개인 집단.

The norm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presuppose that nature does not speak **unambiguously**, and that knowledge **isn't** knowledge **unless** it has been **authorized by disciplinary specialists(B)**.

과학적 의사소통의 규범은 가정한다 / 자연은 명확히 말하지 않고, / 따라서 지식은 지식이 아니라고 / 분야 전문가들에게 승인되지 않으면.

**선티** 이중 부정을 통해 또 '분야 전문가들' 즉 '집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중 부정을 사랑하는 게 평가원스럽다.

A scientific truth has **little standing** **until** it becomes a **collective(B)** **product**. **What** happens in somebody's laboratory(A) is **only** one stage in its **construction**.

\* rhetoric: 수사(학) \*\* castigate: 혹평하다

과학적 진실은 거의 입지가 없다 / 집단의 산물이 되기 전까지는. / 누군가의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일은 / 한 단계일 뿐이다 / 진실을 구성하는 데 있어.

**선티** 크..... 마지막에 드디어!!!! 내가 찾고자 했던 단어, 첫 문장의 individualist와 대립되는 단어, collective가 나왔다. 신나서 B로 잡아주고, 마지막 문장에서 A를 까는 걸 확인하면서 마무리한다.

**선티** 글을 다 읽고는, '과학을 할 때 not 개인, but 집단으로 해야 한다'만!!! 남으면 된다. 선지에서 '집단'을 찾으면, 1번의 community가 딱 들어오고,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다. 선지 구성이 아주 예쁘게 A 2개, off 2개다.

① Path to Scientific Truth: Scientific **Community's Approval(B)**

과학적 진실로 향하는 길: 과학계의 지지

② The Prime Rule of Science: **First Means Best(off)**

과학의 첫번째 규칙: 최초가 최고다

③ **The Lonely Genius(A)** Drives Scientific Discoveries

외로운 천재가 과학 발견을 추진한다

④ Scientific Discoveries **Speak for Themselves(A)!(18%)**

과학 발견은 자명하다!

⑤ **Social Prejudice(off)** Presents Obstacles to Scientific Research(13%)

사회적 편견이 과학 연구에 장애가 된다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이렇게 첫 문장부터 '통념' '개인'을 언급하는 친구는 정말 지문 초반부터 '개인 vs. 집단(사회)' 개념이구나 하면서 지문을 가지고 놀아야 한다. 이렇게 초반부터 AB가 명확할 경우 뒤에 한번 뒤집을 수도 있는데, 뒤집지 않고 그대로 끝나는 걸 확인만 하자. 지문이 어렵지 않으니 선지에서 AB의 관계를 정확히(A<B) 물어보려는 시도가 보인다.

창의성은 not A: 개인성, but B: 사회성, 집단성

Vocabulary

- |                        |                  |                     |            |
|------------------------|------------------|---------------------|------------|
| 1. conventional wisdom | 1. 일반 통념         | 9. fiction          | 9. 허구      |
| 2. credit A with B     | 2. A에게 B가 있다고 믿다 | 10. illusion        | 10. 환상, 착각 |
| 3. eliminate           | 3. 제거하다          | 11. inherent        | 11. 내재하는   |
| 4. be identified with  | 4. ~와 동일시되다      | 12. collectivity    | 12. 집단성    |
| 5. construction        | 5. 구성물           | 13. separate        | 13. 구별하다   |
| 6. embody              | 6. 구현하다, 구체화 하다  | 14. acknowledgement | 14. 인정, 시인 |
| 7. individuality       | 7. 개인성           | 15. interdependence | 15. 상호의존   |
| 8. connectivity        | 8. 연결성           | 16.                 |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23(53%)

**Conventional wisdom** in the West, influenced by philosophers from Plato to Descartes, **credits individuals(A)** and especially geniuses **with creativity and originality.**

플라톤에서 데카르트에 이르는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서양의 일반 통념은 / 개인, 특히 천재들에게 창의력과 독창성이 있다고 믿는다.

**선택** Conventional wisdom. 통념. 이 단어를 보자마자 '이 지문 쉽네' 생각이 드셔야 한다. 첫 문장부터 대놓고 A 문장. 그리고 individual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이 지문은 '끝나야' 한다. 개인집단 개인집단 개인집단 AB일테니까! '아~ 이 지문은, 통념은 개인에게 창의적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건데, 그게 아니라 사회, 집단에 있다는 거구나.'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and causes(B)** are minimized, ignored, or **eliminated** from consideration at all.

사회적, 문화적 영향과 원인은 고려 대상에서 최소화되거나 무시되거나 완전히 배제된다.

**선택** Social을 보자마자 신이 나서 B로 잡아준다. B를 무시하는 통념!

Thoughts, original and conventional, **are identified with individuals(A)**, and the special things that **individuals(A)** are and do are traced to their genes and their brains.

사상은, 그것이 독창적이든 종래의 것이든 개인과 동일시된다, / 그리고 개인이라는 존재와 개인이 하는 특별한 것들은 / 그들의 유전자와 두뇌로 거슬러 올라간다.

**선택** 되게 지금 '쉽다' 느껴야 한다. 생각, 사상이 다 '개인'에서 나왔다고 믿는구나! A 문장!

The “**trick**” here is to recognize that **individual humans(A)** are **social constructions(B)** themselves, **embodying** and reflecting the variety of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s they have been exposed to during their lives.

여기서 '요령'은 인식하는 것이다 / 개개의 인간이 사회적 구성 그 자체라는 것을, / 그들의 삶 동안 그들이 계속해서 노출되어왔던 사회적, 문화적 영향의 다양성을 구현하고 반영하면서.

**선택** trick의 뜻이 '정확히' 와닿지 않더라도, 이에 당황하지 말고, A가 B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고 이제 통념 부분에서 필자 부분(B)으로 넘어왔구나 인지한다. trick은 속임수, 요령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요령!

Our **individuality(A)** is **not denied**, **but** it is viewed as a product of **specif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B).**

우리의 개인성이 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 특정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의 산물로서 여겨지는 것이다.

**선택** not A but B이니 중요 문장이라 반응하시고, A를 그렇다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A가 B의 일부라는 것이구나 이해하시고!

The brain itself is a **social thing(B)**, influenced structurally and at the level of its **connectivities** by **social environments(B).** The “**individual(A)**” is a legal, religious, and political **fiction(P)** just as the “**I**” is a grammatical **illusion(P).**

뇌 그 자체가 사회적인 것이다, / 구조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사회 환경에 의한 연결성 수준에서 영향을 받는. / '개인'은 법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허구이다 / '나'가 문법적 환상인 것과 마찬가지로.

**선택** social에 B 때려주고, individual을 허구, 환상이라는 P로 까는 걸 확인하면서 지문을 마무리 한다. 기본적으로 A(개인) < B(사회) 라는 지문이구나, 정도만 머릿속에 남으시면 된다.

- ① recognition of **the social nature(B) inherent in individuality(A)**  
개인성에 내재한 사회적 속성의 인식 (B>A)
- ② ways of filling the gap between **individuality(A)** and **collectivity(B)**  
개인성과 집단성의 간격을 채우는 방법  
→ 이 선지는 A, B가 들어있지만 둘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것이니, A < B 느낌이라기보다 A=B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방법들(ways)도 지문엔 1도 보이지 않는다.
- ③ issues with **separating** original thoughts from conventional ones(off)  
독창적인 생각과 종래의 생각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  
→ 개인과 사회의 AB이지, 독창 vs. 기존(종래)의 AB가 아니다.
- ④ **acknowledgment of the true individuality(A)** embodied in human genes (23%)  
인간 유전자에 구현된 진정한 개인성의 인정
- ⑤ necessity of shifting from **individualism(A)** to **interdependence(off)**  
개인주의에서 상호의존으로 전환할 필요성  
→ 매력적 오답. 1. 우선 상호의존은, B쪽으로 볼 수는 있는데, '사회'라는 B 범주에 비해 too specific하다. 항상 선지의 '세부의 함정!!!!'은 꼭 조심하도록 하자. 2. 이 지문은 A에서 B로 옮기자는, 즉 A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A를 인정은 하고 있다.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평가원스러움이 아주 크게 느껴지는 대외파악 문제. 단어/해석 수준이 높지만, 이것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논리(AB, P)는 확실하므로, 나는 이 핵심 논리만 잡아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내는 게 관건. 지문의 1/3 지점까지는 AB, P가 안 느껴지므로 키워드만 잡고, 그 뒤 '구분'하는 표현들(distinguish, separate)을 통해 확실히 AB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식사 예절 - A: 외부자(농민) vs. B: 내부자(귀족)

Vocabulary

- |                         |                    |                      |               |
|-------------------------|--------------------|----------------------|---------------|
| 1. manners              | 1. 예의, 매너          | 9. reference to N    | 9. ~에 대한 언급   |
| 2. offspring            | 2. 후손              | 10. be excluded from | 10. ~로부터 배제되다 |
| 3. subsequently         | 3. 그 후에            | 11. lordly           | 11. 귀족의, 젠체하는 |
| 4. instrument           | 4. 도구, 수단          | 12. etiquette        | 12. 에티켓       |
| 5. intended to V        | 5. ~할 의도인          | 13. social barrier   | 13. 사회적 장벽    |
| 6. distinguish A from B | 6. A를 B로부터 구분하다    | 14. impossibility    | 14. 불가능함      |
| 7. separate A from B    | 7. A를 B로부터 분리하다    | 15. break down       | 15. ~을 부수다    |
| 8. addressed to N       | 8. ~에 초점이 맞춰진, 다뤄진 | 16.                  |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6.23(71%)

In the twelfth to thirteenth centuries there appeared the first manuals teaching “table manners” to the **offspring** of aristocrats. It was a genre that **subsequently** had a great success in the early modern period with *The Courtier* by Baldassare Castiglione, *The Galateo* by Monsignor Della Casa, and many others produced in different European countries.

12~13세기에 첫 번째 매뉴얼이 등장하였다 / 귀족의 후손들에게 ‘식사 예절’을 가르치는. / 이는 그 후에 큰 성공을 거둔 장르였다 / 초기 근대기에 BC의 The Courtier나 MDC의 The Galateo라는 작품으로, / 그리고 많은 다른 작품들이 다양한 유럽 국가에서 생산되었다.

**센터** 이 처음 부분을 읽고 '별로 안 중요하구나', 그냥 'table manners가 인기가 많았다는 거구나' 키워드 정도만 인식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왜? 대립성도 안 느껴지고 문제의식도 없으니까.

In a variety of ways and meanings, these are all **instruments intended to define or distinguish who is in(B) from who is out(A), separating the participants(B) from the ostracized(A).**

다양한 방식과 의미에서, 이 매뉴얼들은 모두 수단이었다 / '내'부자와 '외'부자를 정의하거나 구분할 의도가 있는, / 참여자와 추방자를 분리하면서.

**센터** 'distinguish'와 'separate'를 통해 반응, 초집중. AB를 잡는다. 식사 예절이 누가 안에 있는 사람(내부자)이고 누가 밖에 있는 사람(외부자)인지를 정한다. 둘 중 뭘 AB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식사 예절에 속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필자가 강조하려는 사람들일테므로 내부자를 B로, 외부자를 A로 잡아보자. 식사 예절 매뉴얼들이 내부자(B)와 외부자(A)를 '분리'하는 역할을 했군.

It is for this reason **that** manuals of “good manners” **addressed to the aristocracy(B)** always have a **negative reference(P) to the peasant(A) who behaves badly, who “doesn’t know” what the rules are(P), and for this reason is excluded from the lordly table.**

이러한 이유로 '좋은 예절'에 대한 매뉴얼이 / 귀족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 항상 소작농을 부정적으로 언급했다. / 올바르게 못하게 행동하고, 규칙이 무엇인지 '모르고', / 이러한 이유로 귀족의 식탁에서 배제된.

**센터** It that 강조 구문이 나와있으니, 중요한 문장이란 걸 파악하시고 초집중. AB의 관계를 말해준다. 아 B는 A가 P가 있다고 줬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배제(exclude)한 것이고.

Food etiquette had become a sign of **social barriers(A↔B)** and of the **impossibility of breaking them down.**

\* aristocrat: 귀족 \*\* ostracize: 추방하다

음식 에티켓이 사회적 장벽의 신호가 되었고 / 그 장벽을 부수기가 불가능한 신호가 되었다.

**센터** 결과. A와 B를 구분 짓는 '장벽(barrier)'을 세우는 역할. 그대~로 1번 선지에서 키워드인 'table manners'를 포함하면서 이것의 역할, 즉 A ↔ B의 대립성을 물씬 풍겨주는 'class distinction'이라는 단어를 보고 답으로 골라준다.

① table manners as a marker for **class distinction(A ↔ B)**

계층 구분을 위한 표식으로서의 식사 예절

② **publications(off) to bring about equality(A=B) between classes(반)**

계층 간 평등을 가져오기 위한 출판물

③ **unintended effects(off,매) of distinguishing insiders from outsiders**

내부자와 외부자 구분의 의도치 못한 결과들

\* 매력 오답: 1. 지문 키워드인 'table manners'가 없음, 2. unintended effects 즉 '복수'이기 때문에, 이 선지가 답이 되려면 '여러 의도치 못한 결과들(P 느낌)'이 지문에 명확히 보여야 함.

④ **attempts to elaborate food etiquette for educational purposes(off)**

교육적인 목적으로 음식 에티켓을 상술하려는 시도

⑤ **roles of manners in uniting(A=B) people from different backgrounds(반)**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 예절의 역할(11%)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요즘 대의파악이 참 어려워졌구나 보여주는 문제. 따지자면 국어의 '독서' 느낌이 들어간다(아니 외국어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냐면,

① 처음에 잡은 AB를 수정하고 새로운 AB를 잡아야 한다.

② 미시적 AB(천성 vs. 환경)인 줄 알았는데 더 읽어보니 이 둘의 '관계'라는 더 큰 범주의 거시적 AB가 최종적으로 나온다.

③ 근데 이 AB 관계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복잡하다)는 P까지..

이 셋을 다 잡고 답을 고르면 최고겠지만, 적어도 AB의 관계가 A vs. B가 아니라 A=B와 같은 관계다, 정도만 잡아도 답을 5번으로 고르는 데는 문제 없겠다.

유전자(A)와 환경(B)의 관계는 not A vs. B, but A = B인데, 여전히 이를 설명하는 것은 P

Vocabulary

1. competent	1. 유능한, 능력 있는	9. oversimplified	9. 지나치게 단순화된
2. moral agent	2. 도덕적 행위자	10. nonsensical	10. 무의미한
3. somewhere in between	3. 중간 어디쯤	11. discuss	11. 논의하다
4. qualify	4. 자격을 주다	12. a long way off	12. 멀리 떨어진, 갈 길이 먼
5. contribute to N	5. ~에 기여하다	13.	13.
6. decent	6. 예의 바른	14.	14.
7. nurture	7. 양육	15.	15.
8. grasp	8. 이해하다, 파악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수능.23(65%)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A)**. Nor **does** everyone leave the world in that state. **But somewhere in between**,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B)** that **qualifies** them for membership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B)**.

인간은 유능한 도덕적 행위자로서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 또한 모든 이가 그 상태로 세상을 떠나지도 않는다. / 하지만 (태어나서 죽는) 그 사이의 어딘가에, /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간의 예의를 습득한다 / 그들에게 도덕적 행위자 공동체의 구성원 자격을 준다. / 유전자, 발달, 그리고 학습은 모두 예의 바른 인간이 되는 과정에 기여한다.

**선택지** 23번, 24번은 요즘 어려운 추세이므로 더욱 더 첫 문장부터 ABPS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집중해서 읽으셔야 한다. 바로 not A를 때려준다. 인간은 세상에 왔을 때 '완전한 도덕적 행위자'가 아니구나. 아직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 게 정상이다. not A를 잡으시면 되고, 인간의 '도덕성' 얘기구나 정도 생각하면 된다.

**선택지** 물론 좀 더 AB 대립성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완전한' 도덕 행위자가 아니니까, '불완전한' 상태로 세상에 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이 뒤를 예측해볼 수 있다.

**선택지** not A를 때려주고 but을 해준다 B를 잡자. 아, AB가 잡힌다. 인간이란 '완전한(A)'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지만, 살아가면서 '약간의(B)' 예의(도덕성)를 획득하게 되는 존재구나.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A)** and **nurture(B)** is, **however**, **highly complex(P)**, and developmental biologists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s, and culture, DNA is **inert**.

하지만 천성과 양육 사이의 상호 작용은 매우 복잡하다, / 그리고 발달 생물학자들은 그저 그것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간신히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을 뿐이다. / 세포, 유기체, 사회집단, 그리고 문화에 의해 제공되는 맥락이 없으면, / DNA는 비활성 상태이다.

**선택지** 자, 앞 문장까지의 AB로 쪽 끌고 나가 끝나는 게 예전 쉬운 대의파악. 요즘 대의파악은 앞의 B에서 다시 새로운 AB를 발전시킨다. 그러니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극혐이다 고생 많다 친구들. 그 새로운 AB라는 건 'however'를 통해 집중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도덕성을 획득하는데, 천성(nature=A)과 양육(nurture=B)이 영향을 주는구나. 근데 이게 복잡한(complex) P가 있구나. 선택지도 이 순간에는 nature를 A, nurture를 B로 개별적으로 잡았다. 뒤를 읽어보니 이 둘의 '관계'가 AB였지만, 이 순간에는 이럴 수밖에 없다.

Anyone who says that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A)" to be moral has an **oversimplified view(P)** of how **genes(A)** work. 사람들은 도덕적이라도 '유전적으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다'고 말하는 누구든 / 유전자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선택지** nature(천성) = gene(유전자)이므로 둘 다 A로 그룹핑. A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oversimplified라고 까고 있다. 아, 필자는 천성(유전자)보다 후천적 양육을 강조하는 건가?

**Genes and environment interact(B)** in ways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that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or any other developmental process,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nature versus nurture(A)**. Developmental biologists now know that it is really **both(B)**, or **nature through nurture(B)**.

유전자와 환경은 생각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 작용한다 / 아이들의 도덕적 발달 과정, 또는 다른 어떤 발달 과정이, 천성 '대' 양육이라는 견지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 발달 생물학자들은 이제 안다 / 그것이 진정 둘 다, 즉 양육을 '통한' 천성이 라는 것을.

**선택지** environment, nurture 쪽이 B는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서 좀 더 큰 범주의 AB를 잡을 수 있다. 'AB를 대립(versus)으로 보는 것은 말도 안 되는(nonsensical) 방식이고, 오히려 AB는 상호작용(interact)한다'라고 하니, 정확히는 AB 사이의 '관계'의 AB구나 잡는다. 유전자와 환경은 not 대립, but 상호작용!

A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in the human species(S) is **a very long way off(P)**.

\* decency: 예의 \*\* inert: 비활성의

인간 종의 도덕적 진화와 발달에 대한 완전한 과학적 설명은 까마득히 멀다.

**선택지** 마지막까지 집중하셔야 한다. 결국 '최종' 로직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이 AB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하니, 쉽지 않다, 즉 P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구나. A vs. B가 아니라 A=B(서로 상호작용한다는 equal 표시), 그리고 이를 P로 바라보는 선지는 정확히 5번이 되겠다.

- ①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off)**  
문화적 관점으로부터의 인간 도덕성의 진화
- ②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genes(A)**  
유전자의 진화 과정 연구에서의 어려움 → 작은 범주의 AB에서 A만 있다!
- ③ **increasing necessity of educating children(off) as moral agents**  
도덕적 행위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의 증가
- ④ **nature versus nurture controversies(Avs.B) in developmental biology**  
발달 생물학에서의 천성 대 양육 논쟁 (20%) → 필자의 논지는 기본적으로 A=B 쪽이다.
- ⑤ **complicated(P) gene-environment interplay(A=B) in moral development**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유전-환경의 복잡한 상호 작용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첫 문장부터 'error, assumption' 등 A(P)를 말하는 단어들이 가득하니 천천히 정확하게 읽어서 '유전 vs. 환경'이라는 AB의 개념을 '확실히' 잡아주고, 그 뒤는 이 AB를 확인만 하며 빠르게 내려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만약 그러지 못했다라도, 지문 중간, 끝에 끊임없이 AB의 시그널로 AB를 유전 vs. 환경(행동)으로 말해주니, 이를 어느 지점이든 잡아주면 된다. 그리고 평가원이 제목 문제에서 사랑하는, 물어보고 답하기 1번 선지에서 A나 B냐를 보고 바로 답으로 골라주자.

A: 진화에 있어 유전자가 먼저(중요) < B: 진화에 있어 환경에 따른 행동이 먼저(중요)

Vocabulary

1. assumption	1. 가정	9. behavioural organs	9. 행동 기관
2. prime mover	2. 원동력, 견인차	10. adaptation	10. 적응, 변화
3. in the absence of	3. ~의 부재 속에서	11. immediate	11. 즉각적인, 즉시의
4. natural selection	4. 자연 선택	12. non-random	12. 무작위가 아닌
5. un-biological	5.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는	13. vastly	13. 광대하게
6. emergence	6. 등장, 출현	14. follow	14. 뒤따라가다, 뒤따르다
7. domain-specific	7. 특정 영역의	15. gradually	15. 점차적으로
8. evolutionary psychologist	8. 진화 심리학자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6.24(69%)

A common error(P) in current Darwinian thinking is the **assumption(A)** that “selfish genes(A)” are the **prime mover** in evolution. In strict Darwinism the prime mover is **environmental threat(P, B)**. In the absence of threat, **natural selection** tends to resist change.

현재의 다윈주의 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류는 /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가정이다. / 엄격한 다윈주의에서 원동력은 환경적 위협이다. / 위협이 없을 때, 자연 선택은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선티** 첫 문장 common error에서 바로 A,P 얘기구나 잡아주어야 한다. the assumption은 필자가 까려는 A 가정이 되겠고, 그 가정은 바로 이기적 유전자가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이 가정에 반대하겠다. 따라서 이기적 유전자를 A로 잡아준다. 뒤에는 필자가 이기적 유전자보다 중시하는 B가 나올까 예상하면서.

**선티** 첫 문장의 흔한 다윈주의 vs. 두번째 문장의 엄격한 다윈주의의 대립성을 느낀다면 제일 좋다. 이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첫 문장에서 필자가 ‘유전’을 A로 까고 있고, 두번째 문장에서 ‘환경’이 등장하기 때문. 환경과 유전은 대표적인 AB 대립 개념이다. 따라서 여기서 ‘환경 위협’을 표면적으로는 P이자, 필자가 진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B라고 잡으면 최고.

**선티** 못 잡아도 상관 없다. ‘잡자기 환경 위협이 왜 나오지?’했어도, 뒤에서 유전에 대립되는 B를 잡을 수 있는 문장을 계속 준다.

It is **un-biological** to “explain” behavioural change as **resulting from genetic change(A)** or the **ex vacuo emergence** of **domain-specific brain modules**. **Evolutionary psychologists** surely know why brains evolved: as Cosmides and Tooby point out, brains are **found only in animals that move(B)**.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 / 행동의 변화를 유전적 변화나 영역별 뇌 모듈의 ‘무(無)에서의’ 출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 진화 심리학자들은 왜 뇌가 진화했는지 확실히 안다. / Cosmides와 Tooby가 지적하듯, 뇌는 움직이는 동물에서만 발견된다.

**선티** 한번 더 A를 ‘유전’이라고 잡을 수 있는 문장이 나온다. ‘행동 변화를 유전 변화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지 않다.’ 여기서 이 un-biological이라는 단어를, 구체적인 의미가 아닌, 필자가 ‘까려고 쓰는 표현이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필자는 ‘유전 변화라고 보는 것을 옳지 않다고 보는구나’ 정도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유전을 A로 잡을 수도 있다.

**선티** 앞 문장에서 ‘un-biological’을 통해 사실상 not A 논리를 준 것이고, 따라서 다음 문장이 B 문장이다. ‘found only in’이라는 표현을 통해, in 뒤에 있는 것이 필자가 강조하는 개념임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유전이 아닌, ‘움직이는(B)’ 행동이 중요하구나. 역시 아직은 AB를 못 잡아도 괜찮다. 잡기가 쉽지 않다.

Brains are **behavioural organs(B)**, and **behavioural adaptation(B)**, being **immediate and non-random**, is **vastly more efficient than genetic adaptation(A)**.

뇌는 행동 기관이며, / 즉각적이고 무작위적이지 않은 행동 적응이 유전적 적응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선티** 제일 중요!!!!!! 이 앞까지, 뭘 X소리지? 하고 읽어도 상관 없다. 이 문장에서는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반응했어야 한다. 왜? ‘more than’ 비교 문장이니까 무조건 AB 형성이지 이걸.. 여기서는 정말 무조건, 님의 등급과 상관없이, 필자가 진화에서 강조하는 것은 ‘유전(A)’이 아니라 ‘행동(B)’이구나 잡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머릿속에 이 AB를 박아야 한다.

**So**, in animals with brains, **behavioural change(B/S)** is the usual **first response to environmental threat(P)**.

그러므로 뇌를 가진 동물에게, / 행동 변화는 환경 위협에 대한 보통의 첫 번째 대응이다.

**선티** 행동 변화가 환경 위협에 대한 첫 반응이구나, B로 확실히 잡아주자.

If the change is successful, **genetic adaptation(A)** to the new **behaviour(B)** will **follow more gradually**. Animals do **not evolve carnivore teeth(A)** and then decide it might be a good idea to **eat meat(B)**.

\* ex vacuo: 무(無)에서의 \*\* carnivore: 육식 동물  
그 변화가 성공적이면, / 새로운 행동에 대한 유전적 적응이 더 점진적으로 뒤따를 것이다. / 동물들은 육식 동물의 이빨을 진화시키고 나서 결정하지 않는다 / 고기를 먹는 것이 좋은 생각일 수도 있다고.

**선티** A는 B가 발생한 후 뒤따라갈 뿐이라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맨 마지막 문장의 이빨 예시는 AB로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A=유전, B=행동으로 잡고 선지를 보시면, A선지가 3개, 헛소리가 1개, AB 중에 뭘가? 선지가 1개 보인다. 평가원의 전형적인, 선지에서 물어보고 지문에서 답하기. 답은 1번!

- ① Which Adapts First, Behaviour(B) or Genes(A)?  
행동과 유전자, 어느 것이 먼저 적응하는가?
- ② The Brain Under Control of Selfish Genes(A)(14%)  
이기적 유전자의 통제 하에 있는 뇌
- ③ Why Animals Eat Meat: A Story of Survival(off)  
동물들이 고기를 먹는 이유: 생존 이야기
- ④ Genes(A) Always Win the Battle Against Nature!  
유전자는 자연과의 싸움에서 항상 승리한다!
- ⑤ The Superior Efficiency of Genetic Adaptation(A)  
유전 적응의 우월한 효율성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읽어내려가면서 '집요하게' AB의 개념을 잡아가야 하는 문제이다. 글의 서두부터 A는 정확, 완벽하다고 하니 B는 부정확, 불완전과 같은 개념으로, 선입견 없이 필자가 not A but B를 치는대로 따라가서 아래와 같이 AB 개념 정립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A: 정확, 완전, 절대, 결과 < B: 부정확, 불완전, 상대, 과정

**Vocabulary**

1. accurate	1. 정확한	9. summit	9. 정상, 꼭대기
2. humble(v)	2. 겸허하게 하다	10. integrate	10. 통합하다
3. adjust	3. 조정하다	11.	11.
4. uncertainty	4. 불확실성	12.	12.
5. emerge	5. 등장하다	13.	13.
6. attainable	6. 달성 가능한	14.	14.
7. precision	7. 정확, 정밀	15.	15.
8. inherently	8. 본질적으로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24(40%)

The discovery that man's knowledge is not, and never has been, perfectly accurate(A) has had a humbling and perhaps a calming effect(B) upon the soul of modern man.

인간의 지식이 완벽하게 정확하지 않다는, 그리고 결코 완벽하게 정확했던 적이 없다는 발견은 / 현대 인간의 영혼에 겸허하게 하는, 그리고 아마도 진정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센터** 첫 문장부터 not A!!! 반응하시고 신나야 한다.. 나만 신나니..? 인간의 지식은 '정확하지 않다'고 하니, 정확함이라는 개념이 A. 이것의 대립 개념, 즉 부정확함, 애매함과 같은 개념이 B겠구나 예측하셔야 한다.

The nineteenth century(A), as we have observed, was the last to believe that the world, as a whole as well as in its parts, could ever be perfectly known(A).

19세기는, 우리가 목격했듯이, 마지막 시기였다 / 세계가, 부분 뿐만 아니라 전체로서, 언젠가 완벽하게 알려질 수 있다고 믿은.

**센터** 'perfectly'라는 개념이, '정확함'이라는 개념과 같은 범주라는 게 들어오으면서, A 문장으로 정의. 19세기니까 '과거'에는 A. 뒤에 현재가 B일 것이 예상된다.

We realize now(B) that this(A) is, and always was, impossible. We know within limits(B), not absolutely(A), even if the limits(B) can usually be adjusted to satisfy our needs.

우리는 이제 이것이 불가능하며, 언제나 불가능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 우리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닌, 한계 내에서 안다, / 비록 그 한계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통 조정될 수 있을지라도.

**센터** 현재 A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드디어 B를 명확하게 지칭하는 표현 등장. '완벽하게(A)' 아는 것이 아닌, '한계 내에서 = 불완전하게(B)' 아는 것이 B임을 머릿속에 또렷하게 박으셔야 한다. 이제 내려가면서 각 범주 속에 AB grouping 하자.

Curiously, from this new level of uncertainty(B) even greater goals(B) emerge and appear to be attainable.

의아하게도, 이 새로운 수준의 불확실성으로부터 / 훨씬 더 위대한 목표가 나타나고 달성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센터** 새로운 B 단어, uncertainty를 B로 grouping! 조심하자. 일반적인 context라면 P 느낌이지만, 필자가 개입해서 B라고 딱 정의해주면 '선입견 없이' AB grouping 하셔야 한다.

Even if we cannot know the world with absolute precision(A), we can still control it(B). Even our inherently incomplete knowledge(B) seems to work as powerfully as ever.

비록 우리가 절대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세계를 알 수 없을 지라도, /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 / 심지어 우리의 본질적으로 불완전한 지식조차도 작동하는 듯 보인다 / 그 어느 때만큼이나 강력하게.

**센터** 완벽하게, 정확하게는 아니지만(not A), 통제하고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드는 B!

In short, we may never know precisely(A) how high is the highest mountain, but we continue to be certain that we can get to the top(B) nevertheless.

간단히 말해, 우리는 결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 가장 높은 산이 얼마나 높은지, /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확신한다 / 그럼에도 우리가 정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센터** 'In short'로 결론을 마무리 해주니, 그리고 또 not(never) A but B를 해주니 또 반응하면서 AB를 다시 한 번 머릿속에 새긴다. 혹은 이 앞까지 무슨 소리인지 1도 몰랐더라도, 이 문장을 기반으로 답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산의 정상(완벽한 정복)은 정확히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정상(top)에 도달하기를 계속한다(과정). 1번이 아름답게 이 AB를 드러낸 선지!

① Summits(A) Yet to Be Reached: An Onward Journey to Knowledge(B)

아직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지식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② Over the Mountain: A Single But Giant Step to Success(A, 23%)

산을 넘어: 성공으로 가는 하나 뿐이지만 거대한 발걸음

③ Integrating Parts into a Whole(off): The Road to Perfection(A)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통합하기: 완벽으로 가는 길

④ How to Live Together(off) in an Age of Uncertainty(B)

불확실성의 시대에 함께 사는 방법

→ 매력적 선지. 수능에서도 항상 조심하도록 하자. 이렇게 'B' 선지이기기는 하지만, 관련 없는 주제 / 세부적인 내용으로 헛소리를 지껄이는 선지는 탈락이다!

⑤ The Two Faces of a Knowledge-Based Society(off)

지식 기반 사회의 두 얼굴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전형적인 AB 지문! 밑줄 의미이든 무슨 새로운 유형이 나오든 항상 일관된 논리로 풀어야 한다. 나는 밑줄을 AB 혹은 PS로 정의할 줄 알면 된다. 지문의 앞 1/3, 뒤 1/3을 통해 빠르게 '개인 vs. 집단'의 AB이군, 핵심을 잡고 밑줄을 A<B 정도로 정의하여 이를 명확히 표현한 답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A: 창의성은 개인의 산물 < B: 창의성은 환경, 문화, 해당 영역 전체의 산물

Vocabulary

1. common idea	1. 통념	9. properly	9. 적절히, 제대로
2. come up with	2. ~을 제시하다	10. phase	10. 단계
3. in isolation	3. 단독으로	11. good fortune	11. 행운
4. in place	4. 자리 잡은	12. a breakthrough	12. 중대한 발전
5. astronomer	5. 천문학자	13. receive credit	13. 공로를 인정 받다
6. telescope	6. 망원경	14.	14.
7. devote A to B	7. A를 B에 바치다	15.	15.
8. domain	8. 영역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19.9.21

Psychologist Mihaly Csikszentmihalyi suggests that **the common idea(A)** of a creative individual **coming up with** great insights, discoveries, works, or inventions **in isolation(A)** is **wrong**.

심리학자 MC는 말한다 / 창의적인 개인이 위대한 통찰, 발견, 작품, 발명을 단독으로 내놓는다는 통념은 / 잘못된 것이라고.

**선티** 처음부터 '혼한 생각 = 통념'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A로 잡아주어야 한다. 창의성에 대한 AB이고, 통념은 창의성이 어떤 때 나온다고 생각하는지 그 개념을 딱 잡아주셔야 한다. 이 때 AB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단독으로(in isolation)'이어야 한다. 정말 많이 나오는 AB의 표현. '혼자(개인) vs. 집단'을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다. 여기서 이 지문은, 창의성이 not 개인 but 집단이구나, 하고 AB 개념을 잡아주면 제일 좋다.

Creativity results from a **complex interaction(B)** between a person and **his or her environment or culture(B)**, and also depends on **timing**.

창의성은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나온다 / 한 사람과 그의 환경 혹은 문화 사이의 / 그리고 타이밍에 달려있다.

**선티** 첫 문장이 A를 까면서 사실상 not A의 논리를 때린 것이고, 다음 문장에서 but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로직 B가 이어진다. '집단'의 개념에 해당하는 단어들 이 빨리 빨리 눈에 들어와야 한다. 여기서 정말 AB 확정!

For instance, if the great Renaissance artists like Ghiberti or Michelangelo had been born **only 50 years before they were**, **the culture of artistic patronage(B)** would not have been **in place** to fund or shape their great achievements. Consider also individual **astronomers**: Their discoveries could not have happened unless **centurie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telescope and evolving knowledge of the universe(B)** had come before them.

예를 들어, 기베르티나 미켈란젤로 같은 위대한 르네상스 예술가들이 5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 그들이 태어난 때보다, / 예술 후원 문화는 자리를 잡지 못했을 것이다 / 이들의 위대한 업적에 자금을 조달하고 형성할. / 개별 천문학자들도 떠올려보자: / 그들의 발견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 망원경의 수 세기에 걸친 기술 발전과 / 우주에 대한 지식 발전이 그 전에 생겨나지 않았다면.

**선티** 예시를 보고, '아직' AB를 못 잡은 상태라면 다시 앞 부분을 읽으며 AB를 잡는다는 생각을 한다. 왜? '핵심 로직'을 얘기했으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시를 드는 것이니까! AB를 잡은 상태에서 이 예시를 봤다면, 훑으며 수 넘어가는 느낌으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이 예시를 '정리'해주는 부분으로 빠르게 가야 한다.

**선티** 가법계 B 개념에 해당하는 부분만 체크하는 정도면 좋다. '문화' '지난 수 세기에 걸친 지식'은 모두 혼자서(A)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집단(B)'에 기반하고 있다.

Csikszentmihalyi's point is that we **should devote** as much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a domain(B)** as we do to **the people(A)** working within it, as **only this(B)** can **properly** explain how advances are made.

Csikszentmihalyi의 요점은 / 바로 우리가 한 영역의 발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 영역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이나, / 오직 이것만이 적절히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 어떻게 발전이 이루어지는지.

**선티** 이 문장이 예시를 정리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임을 인식하고 반응한다. 어떻게? 'should!' 그리고 다시 한 번 AB를 추가적으로 잡아준다. '영역의 발전(the development of a domain)'이 있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people)'이 있는데, 둘 중 상대적으로 더 큰 ~ 범위의 집단에 해당하는 것은 전자, 개인들은 후자라고 할 수 있겠다.

Individuals(A) are **only** (의미)"**a link(A) in a chain(B), a phase(A) in a process(B)**," he notes.

\* patronage: 보호, 후원, 찬조

개인들은 오직 "사슬의 한 연결 고리,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선티** 의미 문장. 확실하게 AB로 정의해준다. 밑줄은 '개인들'을 말하고 있으니, A의 의미이다. 실제로 밑줄 부분을 AB로 이해하면 더 좋다. 자전계 체인을 떠올려보면, 그 체인은 전체를 가리키는 B이고, 그 중 하나의 연결 고리(a link)는 A가 되겠다. 또한 하나의 과정은 전체 과정(B)이고, 그 속의 한 단계(a phase)는 A가 되겠다. 이 A를 'only(-일 뿐)'라는 뉘앙스로 살짝 까고 있으니, 나는 선지에서 '개인, 일부'라는 로직 A를 살짝 제한하고 까는, 'A<B' 뉘앙스의 선지를 고르면 되겠다. 5번이 이를 정확히 드러내고 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B를 '집단, 전체 영역' 등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를 '필수적 조건' 정도로 좀 더 포괄적으로 돌려 말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대의파악이든 빈칸이든 정답 선지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자주 표현한다는 것도 꼭 챙겨두자.

- ① Individuals' creativity results **only** from **good fortune**.(off)  
개인의 창의력은 오직 행운에서 비롯된다.
- ② Discoveries can be made **only** due to **existing knowledge(B)**.  
발견은 단지 기존의 지식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다.  
→ B쪽 선지이긴 하나, 밑줄 의미가 B를 물어봤다고 해서 이 친구가 답이 되기는 힘들다. 오직(only) B 때문에만 가능하다.. 이런 극단적 선지는 항상 답이 되기 힘들다.
- ③ **One's genius(A)** is a key element of a series of **breakthroughs**.  
사람의 천재성은 일련의 획기적인 발전의 핵심 요소이다.
- ④ **Individuals(A)** **receive no credit** for their creative achievements.  
개인은 자신의 창의적인 업적에 대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  
→ 2번과 마찬가지로 극단적인 선지이자 매력적 오답. 이 지문은 개인을 A로 보고는 있지만, 완전히 not A를 하는 게 아니라, 창의성에는 not only A, but also B가 중요하다는 뉘앙스. 이렇게 완전 부정을 하면 안 된다.
- ⑤ **Individual creativity(A)** emerges **only** in its **necessary conditions(B)**.  
개인의 창의성은 오직 창의성에 필요한 조건에서만 나타난다.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아주 강추하는 AB 문제. 무조건 not A but B만 하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A만 있어도 P, B만 있어도 P이고 이 둘의 '균형'을 강조하는 논리의 지문이다. 최근 대외파악에서 AB의 균형,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지문도 왕왕 나오고 있으니 꼭 논리의 흐름, 논지를 얻어가도록 하자. 지문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 only A or only B = P
- A but not B = P
- B but not A = P

**Vocabulary**

1. deal with	1. ~을 다루다	9. a fund of	9. a lot of
2. instinct	2. 직감, 본능	10. improviser	10. 즉흥 연주자
3. improvisatory	3. 즉흥의, 즉석의	11. intellectual	11. 지적인, 총명한
4. be bound to V	4. 반드시 ~하다	12. air guitar	12. 기타 연주 흉내
5. jam(v)	5. 즉흥 연주를 하다	13.	13.
6. emphasize	6. 강조하다	14.	14.
7. drill A into B	7. B에게 A를 주입시키다	15.	15.
8. install	8. 설치하다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0.수능.21(69%)

Any learning environment that **deals with only** the database **instincts** or **only** the **improvisatory** instincts **ignores** one half of our ability(P). **It is bound to fail**(P).

데이터베이스에 근거한 직감 혹은 즉흥적인 직감만 다루는 어떤 학습 환경이든 / 우리 능력의 절반은 무시한다. / 그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선티** ignore our ability, fail 등을 통해 P를 잡자. 그렇다면 database만 강조하거나 improvisatory(즉흥)만 강조하는 경우 P가 되기에, 이들을 A 쪽으로 봐도 좋다. 물론 뒤에서는 이 둘이 '대립적인' 개념이고, 이 둘 중 하나에만(only) 치우치는 게 P라고 말해주고 이에 따라 AB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이 첫 문장만 보고 그렇게 잡기는 (가능한 친구도 있을 건데) 쉽지 않다.

It makes me think of jazz guitarists: They're **not going to make it**(P) if they know a lot about music theory(A) **but don't** know how to **jam** in a live concert(B).

이는 내게 재즈 기타리스트를 생각나게 한다. / 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 음악 이론에 대해 많이 알고 있지만, 라이브 콘서트에서 즉흥 연주하는 법을 모른다면.

**선티** 여기서 선티는 AB 개념을 확실히 잡았다. 이론(A)만 알고 즉흥(B)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P가 생긴다.

Some schools and workplaces **emphasize** a stable, rote-learned database(A). They **ignore** the **improvisatory** instincts(B) **drilled** into us for millions of years. **Creativity**(B) suffers.

일부 학교와 직장에서는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다. / 그들은 수백만 년 동안 우리에게 주입되어 온 즉흥적인 직감을 무시한다. / (그 결과) 창의력이 약화된다.

**선티** 그대로 이어서 AB를 grouping해준다. A의 개념은 암기 데이터, 지식, 시스템.. 이런 느낌이고 B는 즉흥, 창의성, 자유 이런 느낌으로.

Others emphasize **creative usage** of a database(B), **without installing a fund of** knowledge(A) in the first place. They **ignore** our need to obtain a **deep understanding** of a subject(A), which includes **memorizing and storing a richly structured** database(A).

다른 곳에서는 창의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을 강조한다 / 애초에 많은 지식을 축적하지 않고. / 그들은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를 무시한다, / 풍부하게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암기하고 저장하는 것을 포함하는.

**선티** 중요!!!!!! 여기서 'A'는, 필자가 무조건 까려는 A가 아니라, B와 동등한 중요도를 지니는구나, 사고를 수정할 줄 알아야 한다.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은 이해, 지식(A)도 중요하데, 이를 무시하고 창의성(B)만 강조해도 P가 생긴다. 필자는 AB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구나.

You get people who are **great improvisers**(B) **but don't** have **depth of knowledge**(A). You may know someone like this where you work. They may look like **jazz musicians**(B) and have the appearance of **jamming**(B), **but** in the end **they know nothing**(not A=P). They're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B but not A).

\* rote-learned: 기계적으로 암기한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훌륭한 즉흥 연주자이지만 깊이 있는 지식은 없는 사람들을 알게 된다. / 여러분은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서 이런 누군가를 알지도 모른다. / 그들은 재즈 뮤지션처럼 보이고 즉흥 연주를 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을지 모르지만, / 결국 그들은 아무 것도 모른다. / 그들은 지적으로 기타 연주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선티** B이지만 A가 없어도 P라는 것 계속 확인!! 그리고 밑줄 부분이 물어보는 사람은, '에어 기타가 뭐지? 굵적굵적' 이런 게 아니고 제발 AB로 분류하고 이해를 하라고ㅠㅠ B인데 A가 없는 사람이다. 즉, 즉흥성, 창의성이 뛰어나지만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 이를 'not'을 통해 아름답게 드러낸 선지는 5번밖에 없다. 정말 좋은 문제. 사고의 흐름 꼭 챙기기!

- ① **acquiring necessary experience to enhance their creativity**(B)  
자신들의 창의력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경험을 습득하고 있는
- ② **exhibiting artistic talent coupled with solid knowledge**(A) of music  
탄탄한 음악 지식과 결합된 예술적 재능을 드러내고 있는
- ③ **posing as experts by demonstrating their in-depth knowledge**(A)  
자신들의 심층 지식을 보여줌으로써 전문가인 체하고 있는
- ④ **performing musical pieces to attract a highly educated audience**(off)  
고학력 청중을 끌어들이기 위해 음악 작품을 공연하고 있는
- ⑤ **displaying seemingly creative ability**(B) **not** rooted in **firm knowledge**(A)  
확고한 지식에 뿌리를 두지 않은 겉보기에만 창의적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밀줄 의미는, 대의파악과 빈칸의 중간이라고 보면 된다. 빈칸처럼 밀줄 부분이 ABPS 중 무엇인지 잡으시고, 대의파악처럼 글 전체 구조에서 그 로직을 잡아 답을 내면 된다.

이 지문은 과학을 not A but B로 딱 표현해주기 때문에 언뜻 쉬워 보이지만, '같은 단어'일지라도, 필자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뉘앙스에 따라 AB가 둘 다 가능함을 보여준다. 그렇게 AB를 확실히 잡는 것은 쉽지 않으나, 정말 답만 내는 것은, 밀줄에 이미 의미가 담겨있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지문의 AB를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최고의 과학은, not A: 세속적인 대단한 결과들, 발견들  
but B: 무지를 깨닫게 하는 단 하나의 발견, 결과

Vocabulary

- |                      |                   |                       |                  |
|----------------------|-------------------|-----------------------|------------------|
| 1. explicit          | 1. 명백한            | 9. prove a hypothesis | 9. 가설을 입증하다      |
| 2. refine ignorance  | 2. 무지를 개선하다       | 10. a measurement     | 10. 측정치          |
| 3. get obsessed with | 3. ~에 강박관념을 갖게 되다 | 11. discovery         | 11. 발견           |
| 4. mad chase         | 4. 맹목적 추종(미친듯 좇기) | 12. uncovering        | 12. (사실을) 밝힘     |
| 5. get grants        | 5. 보조금을 얻다        | 13. award citations   | 13. 상 수여 문구      |
| 6. make the case for | 6. ~에 대한 주장을 하다   | 14. honor(v)          | 14. 찬양하다, 존중하다   |
| 7. admire            | 7. 찬양하다           | 15. open a field up   | 15.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다 |
| 8. be concerned with | 8. ~와 연관되다        | 16.                   | 16.              |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19.수능.21(54%)

Although not the explicit goal, the best science can really be seen as (의미)refining ignorance(B).

명시적인 목표는 아니지만, / 최고의 과학은 실제로는 보여질 수 있다 / 무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선택** 밀줄의 피상적 해석 자체도 긍정적인 뉘앙스이고(무지의 개선), 이것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하니, 무리 없이 밀줄을 'B'라고 잡아준다. 필자는 과학의 목표로서 '좋은 것'이 B, 즉 무지의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다.

Scientists, especially young ones, can get too obsessed with results(A,P). Society helps them along in this mad chase(P). Big discoveries(A) are covered in the press, show up on the university's home page, help get grants, and make the case for promotions.

과학자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은, / 결과에 너무 강박관념을 갖게 될 수 있다. / 사회는 이들을 돕는다 / 이 맹목적 추종에 있어서. / 대단한 발견은 언론에서 다루지고, / 대학 홈페이지에 뜨며, / 보조금을 받는 데 도움을 주고, / 홍보해달라 주장할 수 있다.

**선택** 막 신나서야 한다. 선택량 맨날 한 시그널이 마구마구 보인다. 우선 too를 통해, 강박관념(obsessed)를 통해, 그리고 미친(맹목적) 추종(chase) 등을 통해 '결과(results)'를 A로 잡는다. 이 순간 내 머릿속에 B는, 결과와 '상식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인, '과정'의 느낌인가? 생각하시면 지문 예측에 좋다.

But it's wrong. Great scientists, the pioneers that we admire, are not concerned with results(A) but with the next questions(B).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 위대한 과학자들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선구자들은, / 결과와 관련이 있지 않고 / 다음 질문과 관련이 있다.

**선택** But을 때리면서 A를 까고 너무 not A but B를 대놓고 해주니 거의 몸 둘 바를 모르겠다. 신나서 AB를 잡는다. B는 '다음 질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해력이 좀 있는 친구라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라는 의미구나 '상식적으로' 캐치할 수 있겠다.

The highly respected physicist Enrico Fermi told his students that an experiment that successfully proves a hypothesis is a measurement(A); one that doesn't is a discovery(B). A discovery(B), an uncovering — of new ignorance(B).

매우 존경받는 물리학자 EF는 그의 학생들에게 말했다 /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는 실험은 / 하나의 측정치이고; / 가설을 입증하지 않는 실험은 하나의 발견이라고. / 발견은, 새로운 무지를 밝히는 것이다.

**선택** AB의 paraphrase가 나온다. 여기가 약간 그쪽(?)이다. discovery가 나왔고, 지문 상단에 Big discoveries가 A였으니 이것도 A인가 했는데.. 'A discovery'를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보니 '새로운 무지를 밝히는 것(uncovering)'이라고 한다. 여기서 아주 큰 flexibility와 이해력이 필요하다. '아, 발견 중에서도, 막 대단한 발견' 들만 좇는 것은 A, 새로운 무지를 밝히는 하나의 발견은 B구나.'

The Nobel Prize(B), the pinnacle of scientific accomplishment, is awarded, not for a lifetime of scientific achievement(A), but for a single discovery, a result(B).

과학 분야 성과의 정점인 노벨상은 수여된다, / 일생의 과학적 성취가 아니라, / 단 하나의 발견, 즉 하나의 결과에 대해.

**선택** 그리고 노벨상이 등장하는데, 같은 단어여도(discovery, result) 뉘앙스(이 지문에서는 단복수)에 따라 AB가 바뀔을 여기서 잡을 수도 있겠다. 노벨상은 일생동안 열심히 성취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의' 발견, 결과, 즉 무지를 밝혔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는 것.

Even the Nobel committee realizes in some way that this is not really in the scientific spirit(A), and their award citations commonly honor the discovery(B) for having "opened a field up," "transformed a field," or "taken a field in new and unexpected directions."

\* pinnacle: 정점

심지어 노벨상 위원회도 어느 정도 깨닫는다 / 이는 과학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 그리고 이들의 수상 문구는 보통 발견을 찬양한다 / "분야를 개척함," "분야에 변화를 줌," 혹은 "분야를 새로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끌."이라고.

**선택** 노벨상 위원회도 B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완전 과학 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내가 모르는 '새로운' 분야를 밝힌, 즉 무지를 밝힌 것(B)에 대해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선택** 그대로 다시 밀줄 부분으로 간다. 밀줄은 B를 물어보는 것. B는? 과학의 '무지를 밝혀서 다음 질문을 이끌어내는 것'이 되겠다. 1번 선지에서 전치사를 통해 AB 느낌을 주는 걸 확인하시고,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B임을 딱 잡는다!

- ① looking beyond what is known(A) towards what is left unknown(B)  
알려진 것을 넘어 미지로 남은 것을 보기
- ② offering an ultimate account of what has been discovered(A)(14%)  
발견된 것에 대한 궁극의 설명을 제공하는 것
- ③ analyzing existing knowledge with an objective mindset(off)  
객관적인 마음가짐으로 기존 지식을 분석하기
- ④ inspiring scientists to publicize significant discoveries(A)(13%)  
중대한 발견을 홍보하도록 과학자들을 고무하기
- ⑤ informing students of a new field of science(off)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학 분야를 알려주기

**Shean.T's Comment**

정답: ①번.

밑줄 의미가 강력한 '명령문'이니, 바로 '박스'의 의미를 로직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박스는 넘어뜨리면 안 되는 대상이니 B로 잡고, 지문을 읽으면서 AB의 개념을 '변동 vs. 고정(예측)'으로 딱 잡아서 그대~로 B를 말하는 1번 선지로 가야 한다.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말에 휩쓸리지 말고 핵심 로직 개념을 이해하려 하자.

A: 사건의 변동, 예측 불가능 < B: 사건의 고정, 예측 가능성, 틀(박스)

**Vocabulary**

1. figure out	1. ~을 알아내다	9.	9.
2. fluid	2. 액체	10.	10.
3. demanding	3. 고된, 힘든	11.	11.
4. pound(v)	4. 치다, 두드려다	12.	12.
5. fixedness	5. 고정성, 고착됨	13.	13.
6. relief	6. 안도(감)	14.	14.
7. curse	7. 저주	15.	15.
8.	8.	16.	16.

**KISS Logic & Interpretation**

출처 2021.9.21(32%)

By expecting what's likely to happen next(B), you prepare for the few most likely scenarios so that you don't have to **figure things out** while they're happening.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함으로써, / 여러분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몇 안 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한다 / 그것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상황 파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선티**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해서 상황에 잘 대비할 수 있구나.. 다음을 예측하는 게 중요하다는(B) 얘기네, 정도 잡으시면 된다.

It's therefore not a surprise when a restaurant server offers you a menu. When she brings you a glass with a clear **fluid** in it, you don't have to ask if it's water. After you eat, you don't have to figure out why you aren't hungry anymore. All these things are expected and are therefore not problems to solve.

그러므로 놀랄 일이 아니다 / 음식점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메뉴를 제공하는 것은 / 종업원이 여러분에게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잔을 가져다줄 때, / 여러분은 그것이 물인지 아닌지 물어볼 필요가 없다. / 식사를 한 후에, 여러분은 왜 더 이상 배가 고프지 않은지 알아낼 필요가 없다. / 이 모든 것들은 예상된다 / 그러므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선티** 식당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예시임을 알아채시고, '예상이 되니 잘 대비가 된다는 얘기군' 정도로 속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한다. 첫 문장을 아무 생각없이 읽었고 지금 이 부분이 예시임을 알아챘다면, 다시 첫 문장으로 가서 '다음 상황을 예상하는 것'을 B로 잡을 수 있다. 중요하니까 예시를 들겠지!

Furthermore, imagine how **demanding(P)** it would be to always consider all the possible uses for all the familiar objects with which you interact(A). *Should I use my hammer or my telephone to **pound** in that nail?*

더욱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상상해보자 / 모든 사용 가능한 방법들을 항상 고려하는 것이 / 여러분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친숙한 물건들에 대해. / "내 망치나 전화기를 사용해야 할까 / 저 못을 박기 위해서?"

**선티** demanding P로 반응!!!('요구하는'이 아니라 '힘든, 고된'으로 알고 있어야 반응을 한다. 단어 먼저.) 내가 항상 모든 쓰임을 고려해야 한다면 P. 다시 말해 나는 많은 것들을 '예상'해서 모든 쓰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니 P가 없는 것.

On a daily basis, functional fixedness(B) is a **relief**, **not a curse(P)**. That's why you **shouldn't** even attempt to consider all your options and possibilities(A).

매일을 기준으로, 기능적 고정성은 저주가 아니라 안도이다. / 그것이 이유이다 / 여러분이 모든 선택권과 가능성을 고려하려는 시도를 해서도 안 되는.

**선티** 제발 또 not A but B 논리에 반응하자. '기능적 고정성'이 저주, 즉 P가 아니라 안도(좋은 것)이다. 따라서 기능적 고정성을 바로 B로 잡아준다. 이 순간, 바로 A의 '개념'을 대립적으로 떠올려야 한다. A는 고정되지 않은 것, 계속 바뀌는 것. 그것을 다음 문장에서 'shouldn't'로 '가능성을 다 고려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You can't. If you tried to(A), then you'd never get anything done(P). **So** (의미)**don't** knock the box(not A = B). Ironically, **although** it(B) limits your thinking, it(B) also makes you smart. It helps you to stay one step ahead of reality.

그럴 수도 없다. / 여러분이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 어떤 일도 끝낼 수 없을 것이다. / 그러니 상자를 (두드려) 부수지 말라. / 역설적으로, 비록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를 제한하지만, / 그것은 또한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들어 준다. / 이는 현실보다 한발 앞서도록 여러분을 도와준다.

**선티** 앞 문장에 계속 이어서, A를 하려고 하면, P가 생긴다. 그러니, 'not A!!!!'라는 게 don't knock the box일 뿐이다. 밑줄 부분을 ABPS로 '정의'하시고 답을 내시는 것이지, 밑줄 부분을 해석해서 그 세부적 의미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다. not A 곧 B. B는 뭔데? 상황들을 다 예상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이 대비가 되는 것. 이렇게 B를 확실히 잡으면, 사실상 다른 선지를 막 제긴다기보다(그럼 시간도 아깝다), 1번 선지의 '습관적인 예상'이 B로 눈에 딱!!! 들어오면서, 1번을 고르고 넘어가는 것이다.

- ① Deal with a matter based on your **habitual expectations(B)**. 습관적인 예상을 바탕으로 하여 문제를 처리하라.
- ② Question what you expect from a familiar object.(반, 17%) 여러분이 익숙한 물건으로부터 기대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으라.
- ③ Replace **predetermined routines(B)** with **fresh ones(A)**. 미리 정해진 일상을 새로운 일상으로 교체하라. → 결국 A 선지.
- ④ Think over all possible outcomes of a given situation.(A, 34%) 주어진 상황의 모든 가능한 결과에 대해 숙고하라.
- ⑤ **Extend all the boundaries(A)** that guide your thinking to insight. 사고를 통찰력으로 이끄는 모든 경계를 확대하라.

**Keep It Short and Simple**

해설편  
**KISS ESSENCE**

by Shean.T

# Week 5



# Set 1

Aries

**Shean.T's Comment**

정답: ⑤번.

① 첫 문장에서는 개인과 종의 관계 얘기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Yet 뒤로 '추상 vs. 정형(형태)'의 개념을 AB 정도로 잡는다. 아 개인과 속한 종의 관계가 최근에 서야(lately) 정형화되었구나.

② Even yet에서 살짝 역접을 느끼며 우생학을 키워드로 잡아준다. But!!에 반응하시고, 시점의 AB를 잡아준다. 우생학이라는 건 현대의 개념이 아니라(far from), 오래된 개념이고, 인간이 자신의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시도이구나~ 이해한다.

③ 이 시점의 AB(우생학은 항상 있어 왔다), 우생학의 의미를 담고 있는 5번으로 가자.

**Vocabulary**

1. relation	1. 관계	9. stand for	9. ~을 의미하다
2. intimate	2. 밀접한, 친밀한	10. ancient	10. 오래된
3. so 형/부 as to V	3. ~할 정도로 ...한/하게	11. (un)consciously	11. (무)의식적으로
4. vague	4. 모호한	12. disguise	12. 숨기다
5. abstract	5. 추상적인	13. motive	13. 동인(動因)
6. concern(v)	6. 영향을 미치다	14. neglect	14. 소홀히 하다
7. formulate	7. 만들어내다	15. exclusively	15. 오로지
8. breed(n)	8. 종, 품종	16. die out	16. 멸종되다

**KISS Logic & Interpretation**

1. 밑줄 친 far from moder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relation** of an individual person to the species he belongs to is the most **intimate** of all relations. **Yet** it somehow seems **so vague**, **so abstract**(A, P), **as** scarcely to **concern** us at all. Indeed, it is only lately that there has been **formulated**(B) even so much as a science to discuss this relationship and the duties which it throws upon the individual. **Even yet** the word “Eugenics,” the name of this modern science, sometimes arouses a smile. It was chosen by Francis Galton to express the effort of Man to improve his own **breed**. **But** the thing the term **stands for**(B) is, in reality, **far from** modern(not A). It is indeed **ancient**(B) and may even be nearly as old as Man himself.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sometimes under excuses that have **disguised** his **motives** even from himself, Man has always been attempting to improve his own quality or at least to maintain it(B). When a man **neglects** that effort(B), when he allows his attention to be too **exclusively** drawn to other ends, he suffers, falls into a decline and even tends to die out(P).

\* Eugenics: 우생학(優生學)

- ① inclination to form crowd(off)
- ② recent awareness of one's potential(off, 반 - 최근이 아님)
- ③ old species beyond the time constraint(off)
- ④ unscientific approach to human problems(off)
- ⑤ long-standing commitment to personal growth(B)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종에 대해 가지는 관계는 /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밀접한 것이다. / 하지만 어쩌면 일인지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 우리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우리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사실, 겨우 최근에 들어서이다 / 심지어 과학이라는 것조차 만들어진 것도 / 이러한 관계와 그것이 개인에게 지우는 의무에 대해 다루는. / 아직까지도 이 현대 과학의 이름인 “우생학”이라는 단어는, 때때로 웃음을 자아낸다. / 그것은 Francis Galton에 의해 채택되었다 / 자신이 속한 종을 개선시키려는 인간의 노력을 표현하기 위해. / 그러나 이 용어가 의미하는 것이, 실제로는, 현대와는 거리가 멀다. / 그것은 정말 오래되었고, / 심지어 거의 인류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것일 수 있다. /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 때때로 심지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핑계를 통해[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 동인(動因)을 숨기는 핑계 아래에서], / 인간은 항상 그 자신의 자질을 개선시키거나 최소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한 인간이 그 노력을 소홀히 할 때, / 그가 그의 관심을 다른 목적들에만 너무 이끌리게끔 허용할 때, / 그는 고통받고, 쇠락하게 되며 심지어 소멸하는 경향이 있다.

- ① 집단을 형성하려는 성향
- ② 자신의 잠재력에 대한 최근의 인식
- ③ 시간 제약을 초월한 오래된 종
- ④ 인류 문제에 대한 비과학적 접근
- ⑤ (인간의) 개인 성장에 대한 오래된 전념

Summary

ESSENCE 정답: ⑤번. | 주간 KISS 정답: ④번.

- ① 기본적 귀인 오류: 사람들의 행동 원인을 상황(B)이 아닌 그 사람의 기질(A)로 돌림
- ② Ex. - 노예나 성별 행동의 문제는 not A: 노예의 본성이나 각 성별의 내부 기질 but B: 노예 제도나 성 역할 제약 때문!
- ③ A에 집중할수록 고정관념, 인종 차별 등의 P가 더 심해짐!

Vocabulary

1. commit	1. 저지르다	9. slavery	9. 노예 제도
2. fundamental	2. 근본적인	10. overlook	10. 간과하다
3. attribution	3. 귀속, 귀인	11. constraint	11. 제약
4. attribute A to B	4. A를 B 탓으로 돌리다	12. solely	12. only
5. disposition	5. 기질, 성향	13. innate	13. 선천적인
6. discount	6. 무시하다	14. stereotype	14. 고정관념
7. situational	7. 상황적인	15. racial	15. 인종의
8. visible	8. 눈에 보이는	16. inequity	16. 불평등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이 주제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한 점은, 1단락이 '주제' 부분, 2, 3단락이 '예시, 부연' 부분인 것을 파악하는 거다. 대의파악의 경우 이렇게 '구조적으로' 예시, 부연을 안 읽는 부분이 생길 때가 많으므로 핵심 부분과 부연 부분을 구조적으로 잘 파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 ② 이 지문의 핵심 로직은 '귀인 오류'라는 P의 원인을 not A but B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erroneous와 rather than으로 완벽히 표현한 5번으로 가자.

- ① 노예제를 용인하려는 몇몇 문화의 잘못된 선택(off)
- ② 근본 귀인 오류를 피하는 새로운 접근방식
- ③ 인종 불평등이 모든 체계에서 지속되는 다양한 이유들
- ④ 여성의 커리어에 대한 성 고정관념의 막대한 영향
- ⑤ 상황이 아닌 개인 특성으로의 잘못된 행동 귀인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11강.5번

①  
In explaining others' actions, we frequently commit the fundamental attribution error(A,P). We attribute others' behavior so much to their inner dispositions(A) that we discount important situational forces(B). The error occurs partly because our attention focuses on the person(A), not on the situation(B). A person's race or sex(A) is vivid(A) and gets attention; the situational forces(B) working on that person are usually less visible(B).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 우리는 자주 기본적 귀인오류를 범한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너무 많이 그들의 내적 기질의 결과로 보아서 / 중요한 상황의 힘을 무시한다. / 그 오류는 부분적으로 발생한다 / 우리의 관심이 사람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 상황이 아니라, / 사람의 인종이나 성별은 선명하여 주목을 받지만; / 그 사람에게 작용하는 상황의 힘은 대개 덜 보인다.

선택지 첫 두 문장에서 바로 AB를 잡아주어야 한다. 우리가 저지르는 오류(P)는 바로 사람의 행동 원인을 내적 기질(A)로 돌리는 것. 중요한 '상황적인 요인들(B)'을 무시하고. 어렵지 않게 그 뒤도 다 AB로 잡아준다.

②  
Slavery(B) was often overlooked as an explanation for slave behavior; the behavior was instead attributed to the slaves' own nature(A). Until recently, the same was true of how we explained the perceived differences between women and men. Because gender-role constraints(B) were hard to see, we attributed men's and women's behavior solely to their innate dispositions(A).

노예 제도는 노예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는 흔히 간과되었다; / 대신에 그 행동은 노예 자신의 본성의 결과로 여겨졌다. / 최근까지, 똑같은 것이 적용되었다 / 여성과 남성 사이의 차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 성 역할의 제약은 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 우리는 남녀의 행동을 오로지 타고난 기질의 결과로 보았다.

선택지 AB의 예시. AB를 잡으면서 내려오자. 노예 제도(slavery)는 상황적, 외부적 요인이니 B, 노예의 본성은 개인 기질이니 A. 엇, 그런데 노예 예시에서 갑자기 성별 예시로 넘어간다. 전환하는 문장이 필요하겠다. 주어진 문장을 이 4번 자리에 넣어서, 성별 문제도 노예 문제와 똑같다며 topic 전환을 해주어야 한다.

③  
The more people assume that human traits are fixed dispositions(A), the stronger are their stereotypes(P) and the greater their acceptance of racial inequities(P).

사람들이 인간의 특성은 고정된 기질이라고 더 많이 가정할수록, / 그들의 고정 관념은 더 강하고 / 인종적 불평등에 대한 그들의 수용은 더 크다.

선택지 The 비교, the 비교(~하면 할수록 ~하다)를 통해 A의 P를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Summary

ESSENCE 정답: ⑤번. | 주간 KISS 정답: ③번.

- ① 기술 채택에 있어 A: 빠르게 하는 사람 < B: 느리게 하는 사람
- ② 패스트푸드 운동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느리게 살기 운동(슬로 무브먼트)도 B에 포함됨
- ③ B를 하는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기술적 침묵, 명상을 하는 것!

Vocabulary

1. obsessively	1. 집요하게	9. preference	9. 선호
2. go after	2. ~을 뒤쫓다	10. so-called	10. 소위, 이른바
3. latest	3. 최신의	11. tranquility	11. 평온, 평정
4. taste(n)	4. 입맛, 취향	12. precisely	12. 정확하게
5. ultimate	5. 궁극적인	13. alternative	13. 대안(의)
6. temporary	6. 일시적인	14. spread	14. 퍼지다
7. interruption	7. 방해	15. silence	15. 고요, 침묵
8. inappropriate	8. 부적절한	16. meditation	16. 명상

KISS ESSENCE 문항 해설

① 사실 어휘 변형에서 제목으로 오면 참 쉬워지는(?) 문항이다. 대략적으로 not fast, but slow의 AB만 잡아주면 어렵지 않게 5번으로 갈 수 있겠다.

- ① 환경 보호를 위해 천천히 움직이기(off)
- ② 가장 최신 기술 트렌드에 적응하는 방법(off, A 쪽)
- ③ 명상: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단순하고 빠른 방법(off)
- ④ 정신 건강에 대한 기술의 부정적 효과들(off)
- ⑤ 기술과 거리를 두는 여유로운 삶을 추구하기(B)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3강.5번

①

There are people who do **not obsessively go after the latest digital devices(A), taking their time(B) before changing hardware.** There are even **some people(B)** who have ① **developed a taste for “vintage” technology(B), not only for vintage decoration or fashion.** **None** of these cases reveal an **ultimate** or total renouncement of technology(A), **but rather a ② temporary interruption** of its use or **a preference** for a slower pace(B).

강박관념을 가지고 최신 디지털 기기를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 기계를 바꾸기 전에 서두르지 않고. / 심지어 '빈티지' 기술에 취미를 붙인 사람들도 일부 있다 / 빈티지 장식물이나 패션뿐만 아니라. / 이 경우 중 어떤 것도 기술에 대한 근본적이거나 완전한 단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 오히려 기술 사용의 일시적 중지 혹은 더 느린 속도에 대한 선호를 드러낸다.

**선티** 지문의 서두부터 AB 잡기가 아주 좋다. 기술 채택에 있어 빠른 사람들을 A, 느린 사람들을 B로 잡는다. 선지 1, 2번은 모두 이 B라는 기준에서 문제 없다. B라는 개념 속에는 빈티지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과 '일시적인' 기술 사용 중지가 들어갈 것이다.

**선티** None이 '대명사'로 쓰인 것 체크하자. 수일치는 보통 of 뒤에 나온 명사에 맞추는 편이나 애매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자.

②

We consider it ③ **appropriate(← inappropriate)** to include in this list(B) **so-called slow movement(B), with its taste for slowness and tranquility(B), since often** technologies are used **precisely** to speed up some processes in life(A). The movement(B) was born as an ④ **alternative** to fast food(A), but quickly it **spread** to other realms of life.

우리는 이 목록에 소위 '느리게 살기 운동'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 느림과 평온함에 대한 취향과 함께 / 흔히 기술은 정확하게 삶의 일부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 그 (느리게 살기) 운동은 패스트푸드의 대안으로 탄생했으나, / 그것은 빠르게 삶의 다른 영역으로 퍼졌다.

**선티** 로직 AB가 아주 예쁘게 전개되고 있다. 이 B의 개념에 slow movement라는 단어가 추가적으로 등장. 당연히, 이 B라는 개념을 B의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다(appropriate)'. 어휘 답은 3번으로 확정. 4번 선지도 아주 좋다. 주어가 로직 B에 해당하는 운동이고, 대안(alternative) 뒤에 나오는 개념이 A. 당연히 B는 A에 대한 대안책으로 탄생했겠다.

③

**Whoever chooses slowness(B) may indeed practice a form of technological silence(B).** In this path of **slowness(B)** we also find the many forms of **meditation(B),** whether traditional or new, that are so ⑤ **fashionable nowadays** and that can be seen as a way to temporarily **refrain from technology(B).**

\* renouncement: 단념 \*\* refrain: 삼가다

느림을 선택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말로 기술적 침묵의 한 형태를 실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 이런 느림의 길에서 우리는 또한 많은 형태의 명상을 발견한다, / 전통적이든 새롭든, / 요즘 크게 유행하고 있고 또 일시적으로 기술을 삼가는 한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는.

**선티** 선지 5번. 명상(meditation)이 로직 B의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온다. 이 B는 필자 입장에서 당연히, 요즘 유행(fashionable)이겠다. fashion이 유행이라는 것을 모르고 정말 옷 패션만 알았다면 반성..!

**선티** Whoever 명사절. who와 쓰임은 같다. 즉 뒤가 불완전하다. 이 경우 S가 없다. who에 '~든지' 정도의 뉘앙스만 붙이면 된다. '~하는 누구든지' 정도로 해석되었다. whatever, whichever도 비슷.

**선티** 두 개의 that이 the many forms of meditation을 수식하고 있다.

**Shean.T's Comment**

정답: ③번.

① 수일치: 주어가 that절이므로 단수 취급! 단수 is 맞다.

② 보어 자리 형용사: 동사 turned out의 보어로 형용사인 successful이 왔다. 문제 없다.

③ 능동 vs. 수동: 뒤에 목적어인 us가 있으므로 수동태가 올 수 없다. 능동태인 distanced가 되어야 한다.

④ 의문사 명사절 how: how 뒤는 완전해야 하는데 뒤에 comes to be로 be동사로 끝이 났다. be동사는 '존재하다'라는 의미일 때 완전자동사로 보어가 필요 없다. 따라서 완전! '~이다'라는 의미일 때는 보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아 두자.

⑤ 관계부사 where: 뒤 완전 불완전만 본다. the social realm and machine learning이 주어, meet이 동사다. social realm과 machine learning이 서로 만났다는 의미이므로 자동사로 쓰였다. 따라서 완전하므로 where은 문제 없다.

**Vocabulary**

1. skyrocket	1. 치솟다	9. realm	9. 영역
2. be attributed to N	2. ~에 기인하다	10. dominant	10. 지배적인
3. steep	3. 가파른	11. typical	11. 전형적인
4. observations	4. 관찰	12. application	12. 적용
5. reliance on	5. ~에 대한 의존	13. objectivity	13. 객관성
6. distance A from B	6. A를 B로부터 멀어지게 하다	14. unattainable	14. 달성 불가능한
7. prominent	7. 저명한	15. pursuit	15. 추구
8. bias	8. 선입견	16. subjectivity	16. 주관성

**KISS Logic & Interpretation**

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That the commercial interest in artificial intelligence **skyrocketed** in the last two decades ① **is** generally **attributed to** the exponential rise in computing power and the **steep** drop in data storage costs. These two developments allowed us to teach machines with an ever increasing amount of **observations**. The results turned out remarkably ② **successful**. Yet our **reliance on** computing power and cheap data storage has also ③ **been distanced**(→ **distanced**) **us from** the reality we try to model. The most **prominent** example is the sometimes near human-like **bias** in machine learning models. To understand ④ **how** this distance from reality comes to be, we need to realize that many of our machine learning models run in the social realm. In the social **realm**, human interaction is the **dominant** factor. But we can think of social media as a **typical** example ⑤ **where** the social realm and machine learning meet. Against the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in the social realm, there is a traditional argument: the anti-positivism argument. This argument tells us that in the 'social' application of machine learning **objectivity** is an **unattainable pursuit**. We are human and therefore there is **subjectivity**.

\* exponential: 기하급수적인 \*\* anti-positivism: 반실증주의

지난 20년 동안 인공지능에 대한 상업적 관심이 급증한 것은 / 일반적으로 컴퓨터의 정보 처리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 데이터 저장 장치의 비용이 급격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 이 두 가지 발전은 우리가 기계를 가르칠 수 있게 해주었다 / 점점 더 많은 양의 관찰 결과를 가지고. / 그 결과는 놀랍게도 성공적이었다. / 그러나 컴퓨팅 성능과 저렴한 데이터 저장 장치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를 현실과 동떨어지게 했다 / 우리가 설계하려는. / 가장 두드러진 예시는 때때로 인간과 같은 선입견이다 / 설계를 학습하는 기계에서의. / 이 거리가 현실로부터 얼마나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다 / 설계를 학습하는 많은 기계가 사회적 영역 안에서 실행 된다는 것을. / 사회 영역에서는 인간의 상호작용이 지배적인 요인이다. / 하지만 우리는 소셜 미디어를 전형적인 예로 생각할 수 있다 / 사회적 영역과 기계 학습이 만나는. / 사회적 영역에서 학습하는 기계의 적용에 반대하는 / 전통적인 논쟁이 있다. / 그것은 반실증주의 주장이다. / 이 주장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 객관성을 학습하는 기계의 '사회적' 적용에서 / 객관성은 얻을 수 없는 추구라는 것을. / 우리는 인간이다 / 그러므로 주관성이 있는 것이다.

Summary

ESSENCE 정답: ④번. | 주간 KISS 정답: ②번.

- ①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돼지를 경멸했던 이유 A: 돼지 고기를 먹으면 병 걸리니까.
- ② But, 돼지나 다른 고기나 상하고 병 걸리는 건 똑같음 → 이유 B: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음.
- ③ B: 유목민들이 자신들은 못 기르는 돼지를 농부들은 기르니까 농부들과 돼지를 같이 경멸하는 데서 유래됨!

Vocabulary

1. despise	1. 경멸하다	9. domestication	9. 사육
2. flesh	2. 고기, 과육	10. tropical	10. 열대의
3. distrust	3. 불신	11. have to do with	11. ~와 관련이 있다
4. the former	4. 전자	12. valuable	12. 귀중한
5. be prone to N	5. ~하기 쉽다	13. nomad	13. 유목민
6. consequent	6. 결과적인	14. superior	14. 우월한
7. lead to N	7. ~로 이어지다	15. breed	15. 사육하다
8. censor	8. 검열하다	16. prohibition	16. 금지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이 지문은 돼지가 유대교, 이슬람교에 의해 경멸 받는(despised) P의 원인을 탐구하고 있다.
- ② 사람들은 돼지가 병에 쉽게 (prone) 걸리게 한다 믿었기 때문에 경멸했다(A 관점).
- ③ But!! Zeuner형은 A 관점을 거부했다(rejects).

- ④ 소와 돼지를 대립적으로 보고, 유목민과 농부를 대립적으로 보자. 유목민은 돼지를 몰 수 없으므로 농부에게만 가치가 있다. worthless가 아닌 valuable!
- ⑤ 돼지에 대한 경멸은 '사람'에서 '동물'로 이전된(transferred) 것이 되겠다.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29강.1번

①

One has to wonder why the pig came to be despised by both Jews and Muslims(P). Was it merely the flesh of the pig(A) that was distrusted, or the pig itself(B), as an animal? By and large people have believed the former(A), claiming that because pig meat was so easily prone to spoiling and trichinosis(P), the consequent human diseases(P) led them to avoid the meat and thereby censor the animal.

사람들은 틀림없이 궁금할 것이다 / 왜 돼지가 유대교도와 이슬람교도 모두에 의해 경멸을 받게 되었는지. / 불신을 받은 것이 단지 돼지의 고기였는가, 아니면 동물로서의 돼지 자체였는가? / 대체로 사람들은 주장하면서 전자를 믿어 왔다, / 돼지고기가 아주 쉽게 상하고 선모충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인간의 질병이 사람에게 그 고기를 피하고 그럼으로써 그 동물을 금하게 했다고.

**선터** 돼지와 인간을 비교한다든가.. 돼지와 다른 동물을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despised, distrusted, 등과 같은 P 단어가 딱딱 보이니 P 지문임을 파악하자. 해당 종교들에서 돼지를 경멸하게 된(P) 그 원인이 궁금하다. 항상 P인데 S가 나오지 않는 지문, 즉 P에 집중하는 지문은 그 원인을 파고든다는 점에 주목하자. 그리고 그 두 개의 이유를 바로 AB로 잡아준다. A는 돼지의 고기가 문제라는 것, B는 돼지 그 동물 자체가 문제라는 것. 아직 이 시점에서는 이 AB가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니, 읽으면서 각 AB의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고든다.

**선터** 읽어보니 A의 의미는 바로 돼지 '고기'를 먹으면 병 걸리니까 사람들이 돼지를 경멸하게 됐다는 것.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전자(A)를 믿었다고 하니, 뒤에 이유 B가 나올 거라 예상하자.

②

But F. E. Zeuner, a leading expert on domestication, rejects this view(A), pointing out that pork is no more likely to spoil(P) than any other meat in a hot country, and in any event there are tropical islands where pork is the main meat eaten. He proposes instead an interpretation having to do with the people who raised pigs(B).

그러나 사육에 관한 손꼽히는 전문가인 F. E. Zeuner는 이러한 견해를 거부한다, / 돼지 고기는 더운 나라에서 다른 어떤 고기보다 상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 그리고 아무튼 돼지고기가 섭취되는 주된 고기인 열대의 섬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 그는 대신에 돼지를 길렀던 사람들과 관련된 해석을 제시한다.

**선터** But!!!이 나오니 B가 나올 거라 생각하며 집중! 우선 A를 까고 있다. 즉 돼지 고기나 다른 고기나 먹었을 때 문제 생기는 건 똑같다는 것. 그리고 B를 제시한다. 돼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를 기른 사람들이 문제. 아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므로 뒤를 읽으며 B의 개념이 뭘지 구체화하자.

③

Unlike cattle, pigs cannot be driven, and therefore the pig is only valuable to the settled farmer. The nomad(B), who always felt superior to the farmer, "came to despise the pig as well as the farmer who bred it(P)." The religious prohibitions(P) seem to have been transferred from the people on to the animal, one they (의미) "themselves could neither breed nor keep(P)."

\* trichinosis: 선모충병(旋毛蟲病)

소와 달리 돼지는 몰 수 없으며, 따라서 돼지는 정착한 농부들에게만 가치가 있다. / 항상 농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던 유목민들은 '돼지를 기르는 농부뿐만 아니라 돼지도 경멸하게 되었다'. / 종교적인 금지 규정이 옮겨진 것처럼 보인다 / 사람에게서 그 동물로, 즉 그들 '스스로 번식시킬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는' 동물로.

**선터** 돼지를 경멸한 사람들이 나온다. 누구? 유목민들! 따라서 B로 잡아주자. 그 이유를 읽어보니, 자기들이 농부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는데, 농부들은 돼지를 기를 수 있고 이들은 못 길러서 농부들을, 그리고 농부들이 기르는 돼지들을 경멸했던 것! 돼지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돼지라는 동물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도 여기서 이해가 된다.

**선터** 밑줄을 보자. 밑줄은 유목민들이 자기들은 못 기르는 P!!!를 드러내고 있고,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자기들은 못 길러서, 그래서 뺏쳐서(?) 짜증나서(?) 질투나서(?) 등의 이유로 돼지를 경멸했다는 것까지 끌어낼 수 있겠다. 이를 '포괄적'으로 잘 표현한, 2번으로 가자.

- ① Cattle are the only animals nomads breed and keep.(off)
  - 소들은 유목민들이 번식시키고 기를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 ② Jealousy of nomads led to a religious taboo on an animal.(B)
  - 유목민의 질투가 한 동물에 대한 종교적 금기로 이어졌다.
- ③ Keeping pigs is strictly prohibited by religious regulations.(off)
  - 돼지를 기르는 것은 종교적 규율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 ④ Possible diseases are the main reasons of the disregard for pigs.(A)
  - 가능성 있는 질병들이 돼지를 경시하는 주요 이유이다.
- ⑤ The expensiveness of pork can be explained by the difficulties of breeding pigs.(off)
  - 돼지고기의 비싼 가격은 돼지를 번식시키는 어려움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Summary

ESSENCE 정답: ①번. | 주간 KISS 정답: ④번.

- ① 무리 짓기는 중요한 생존 본능이기에 인간은 옛날부터 가족 단위로 살았음
- ② A: 동물,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 소유 vs. B: 인간, 큰 뇌와 유연한 신체 소유
- ③ B를 통해 인간은 많은 수의 집단을 이루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동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인류의 발전으로 이어짐

Vocabulary

1. flock	1. 떼, 무리	9. put ~ into practice	9. ~을 실행하다
2. pack	2. 묶음, 무리	10. hide(n)	10. 가축
3. relative(n)	3. 친척	11. muscularity	11. 강건함
4. descendant	4. 후손	12. communal	12. 공동의
5. be down to N	5. ~의 책임이다	13. co-operation	13. 협력, 협동
6. herding	6. 무리 짓기	14. in-built	14. 내재된
7. instinct	7. 본능	15. lie behind	15. 이면에 있다
8. flexible	8. 유연한	16. subsequent	16. 이후의

KISS ESSENCE 문항 해설

① 무난쓰한 어휘 빈칸으로 출제하였다. 요약 및 로직 해설대로 AB를 '동물, 신체 능력 vs. 인간, 협동 능력' 정도로 잡는다면 어렵지 않게 1번 herding(무리 짓기)으로 갈 수 있겠다.

- ① herding(무리 짓기, B)
- ② sensibility(감성, off)
- ③ originality(독창성, off)
- ④ intelligence(지능, off)
- ⑤ manipulation(조작, off)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독.3강.8번

① **Flock or pack** behaviour explains why the great apes, our closest biological **relatives**, have close families(B). There is also evidence to suggest that ancestral forms of human beings, such as Australopithecus, who lived in Africa two to four million years ago, and more recently their distant **descendants**, the Neanderthals, also lived in family groups(B). Ultimately, it's **down to** Darwin and evolution: **herding(B)** is an **essential** survival **instinct**.

떼 혹은 무리 행동은 설명한다 / 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생물학적 친척인 대형 유인원이 긴밀한 가족을 갖는지. / 또한 암시하는 증거도 있다 / 200만~400만 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살았던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같은 인류의 조상이, / 그리고 더 최근에는 그들의 먼 후손인 네안데르탈인이 가족 집단을 이루어 살았음을. / 결국, 그것은 다윈과 진화에 의한 것이다: / 무리를 짓는 것은 필수적인 생존 본능이라는.

**선티**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빨리 '주어 동사' 위주로 독해하면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인지 키워드 B!만 잡는 게 중요하다. 우리는 옛날부터 가족을 이루고 살았다는 것, 즉 '무리 짓기'가 생존에 중요한 것이었다고 하니 가족, 무리 짓기 정도를 B로 잡아주자. 기본적으로 '개인 vs. 집단' 중 집단이 B인 지문이다.

② ( ① ) It's especially **important** if, as a species, you have evolved a **larger brain as your means of survival(B)**, **rather than** thick skin, **ferocious claws or teeth(A)**. ( ② ) Thanks to evolution, our bodies are remarkably **flexible**, and are good at **putting the brain's ideas into practice(B)**. ( ③ ) **Nevertheless**, we **lack** the tiger's teeth, the elephant's **hide** or the bear's **muscularity(A)**.

그것은 특히 중요하다 / 종으로서, 여러분이 더 큰 뇌를 생존의 수단으로 진화시켰다면, / 두꺼운 피부, 사나운 발톱 혹은 이빨보다는. / 진화 덕분에, 우리의 몸은 놀랄 만큼 유연하고, 뇌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데 능숙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는 호랑이의 이빨, 코끼리의 가죽, 혹은 곰의 강건함이 없다.

**선티** 동물과 인간을 대조하고 있다. 동물은 날카로운 발톱, 이빨 등이 있지만, 인간은 큰 뇌와 유연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각각 동물의 특성을 A, 인간의 특성을 B로 잡아주면서 독해하자.

③ ( ④ ) Our strength lies in numbers(B) and, even more important,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for the **communal good(B)**. And families(B) are the basis for **that vital co-operation(B)**. ( ⑤ ) I would suggest that the **in-built** human herd instinct(B), the need to communicate clearly and bond with others, **lies behind** most of mankind's **subsequent** achievements.

\* ferocious: 사나운 \*\* claw: 발톱  
우리의 힘은 수에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능력에 있다. / 그리고 가족은 그 중요한 협력의 기초이다. / 나는 말하고 싶다 / 인간의 내재하는 무리 본능이, / 즉 타인과 분명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유대감을 형성하려는 욕구가 / 인류가 이후에 이룬 대부분의 업적들 이면에 존재한다고.

**선티** 동물과 비교한 인간의 강점은 '숫자, 집단 의식, 협동' 등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특징들이 결국 인류의 발전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으로 일관성 있게 로직 B를 강조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선티** 문장삽입: 4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을 경우, 'And'라는 순접을 통해 로직 B가 이어지면서, 'that vital cooperation'이라는 로직 B를 앞 문장에서 받아줘야 하는데, 4번 앞 문장은 A 문장이다. 따라서 gap을 느끼고 주어진 문장을 4번에 넣으면, B 문장으로 로직을 이을 수 있다.

Summary

ESSENCE 정답: ①번. | 주간 KISS 정답: ④번.

- ①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인간을 보면 개인과 집단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띤다.
- ② 유추 - A: 개별 흑연, 더 취약함 < B: 흑연이 연결된 다이아몬드, 더 강력함
- ③ Similarly, 혼자(A)일 때보다 연결된 집단(B)일 때 더 강력하고 회복력 있음!

Vocabulary

1. bird's eye view	1. 조각, 개관	9. arrangement	9. 준비, 배열
2. individual	2. 개인(의)	10. when it comes to N	10. ~에 관한 한
3. draw analogy	3. 비유를 끌어내다	11. make sense	11. 말이 되다
4. material	4. 재료, 물질	12. in terms of	12. ~에 관하여
5. carbon atom	5. 탄소 원자	13. extend	13. 확장하다
6. (inter)connected	6. (상호)연결된	14. metaphor	14. 비유, 은유
7. determine	7. 결정하다	15. resilient	15. 회복력이 있는
8. layered	8. 층이 있는	16. vulnerable	16. 취약한

KISS ESSENCE 문항 해설

① 어렵지 않은 지문이고 어렵지 않은 빈칸으로 출제했으나 꼭 들어가야 할 문항이었다. 이번 9평 21번, 33번은 모두 크기는 '개인 vs. 집단'의 AB였다. 21번은 그 중 개인을 강조하는 쪽, 33번은 집단을 강조하면서 '상호작용, 연결, 문화' 등이 '집단'의 범주 속에 들어가 있었다. 수능에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 AB 소재이므로 AB 때린 단어들을 머릿속에 박으며 학습하자.

② 빈칸 문장의 'Alone'을 '혼자서는, 혼자 있으면' 정도로 해석하는 디테일이 중요하다. A 케이스이므로 빈칸에는 P가 들어간다. 1번으로 가자!

- ① 더 취약하고 약하다(P)
- ② 디지털 연결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off)
- ③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밀도가 있다(off, 반)
- ④ 탄소 원자를 더 상세하게 연구한다(off)
- ⑤ 고품질 다이아몬드를 제조할 수 없다(off)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14강.6번

① Harvard's Nicholas Christakis says that when you take a **bird's eye view** of humans through the prism of social networks, the picture of both **the individual and the group** changes.

Harvard 대학의 Nicholas Christakis는 말한다 / 소셜 네트워크라는 프리즘을 통해 인간을 조감하면, / 개인과 집단 모두 그 상이 바뀐다.

**선티** 소셜네트워크라는 키워드 정도 잡고, individual과 group을 통해 개인 vs. 집단의 AB인가?까지 생각하시면 좋다.

② He draws the ① **analogy** with graphite and diamonds. Both **materials** are made of **carbon atoms** but it is the way these individual atoms are ② **connected(B)** that **determines** why one material is soft and dark and the other is hard and clear. The **layered lattice arrangement** of graphite carbon atoms(A) means that it shears easily, **whereas** the highly **interconnected** arrangement of diamond carbon atoms(B) means that it is as ③ **hard** as — well, diamonds, of course. Therefore, **when it comes to** carbon atoms, the **whole(B)** is ④ **greater(← weaker) than** the sum of its parts(A).

그는 흑연과 다이아몬드에서 유사점을 끌어낸다. / 두 물질 모두 탄소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 바로 이 개별 원자들이 연결되는 방식이다 / 왜 한 물질은 부드럽고 검으며 다른 한 물질은 단단하고 투명한지를 결정하는 것은. / 흑연 탄소 원자의 층을 이룬 격자 배열은 의미한다 / 그것이 쉽게 부러진다는 것을, / 반면에 다이아몬드 탄소 원자의 고도로 상호 연결된 배열은 의미한다 / 그것이 물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하다는 것을. / 그러므로, 탄소 원자의 경우 전체는, 그것의 부분의 합보다 더 강하다.

**선티**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를 흑연과 다이아몬드의 관계로 표현하려고 하니 1번 유추(analogy) 맞다. 2번 문장에서 connected를 명확히 B로 잡아준다. 왜? connected 되어 있는 방식이 물질을 결정한다고 하니까! 2번의 근거는 whereas 문장에서 명확하다. 그냥 흑연을 쌓아 올린 개별적 형태는 A, 이것들이 상호 연결된(interconnected) 다이아몬드 형태는 B이다. B 형태이고, 상식적으로 다이아몬드이므로... 당연히 단단하겠다(hard).

**선티** 4번 문장 또한 AB 표현이 than 앞뒤로 아주 예쁘다. 전체(whole)는 B로 잡아주고, 그냥 부분을 합친 것(sum)은 A로 잡아준다. 당연히 B는 A보다... 더 단단하고 더 강해야 한다. 더 약하면(weaker) 안 되고. 4번을 greater로 수정하자.

③ Similarly, understanding **the individual self(A)** only really **makes sense in terms of** the groups to which they are **connected(B)**. To **extend** the carbon **metaphor**, when we are well **connected(B)**, we are **more** ⑤ **resilient(B)** because there is safety and strength in numbers. **Alone(A)**, we are more **vulnerable** and weaker.

\* graphite: 흑연 \*\* lattice: 격자, 격자 모양의 것 \*\*\* shear: 부러지다  
마찬가지로, 개별 자아를 이해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있을 뿐이다 / 그것이 연결된 집단의 관점에서. / 탄소의 비유를 확장하자면, / 우리는 잘 연결되어 있을 때 더 회복력이 있다, / 다수일 때 안전(함)과 힘이 있기 때문에. / 혼자 있으면, 우리는 더 공격받기 쉽고 더 약하다.

**선티** 마지막 단락도 가볍게 AB를 잡아주며 내려온다. 5번 resilient의 경우 사실 각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애매한 친구인데, 각주로 안 나왔을 경우 중요하므로 챙겨두자. '회복력이 있는'이라는 뜻이고, 로직 B이니 당연히 A보다 회복력이 있겠다.

Summary

ESSENCE 정답: ③번. | 주간 KISS 정답: ④번.

- ① 과학 분야에는 A: 역사가 중요한 분야 vs. B: 역사가 안 중요한 분야가 있음
- ② B 학문들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을 탐구하며 항상 같은 답을 얻음
- ③ B 학문들은 시공간에 구애 받지 않고 항상 같은 결론에 도달함!

Vocabulary

1. discipline	1. 학문 분야	9. respectively	9. 각자, 각각
2. make up	2. 구성하다	10. matter(v)	10. 중요하다
3. geology	3. 지질학	11. timeless	11. 무한한, 영원한
4. utmost	4. 최고의	12. deal with	12. ~을 다루다
5. reconstruct	5. 재구성하다	13. property	13. 재산, 속성
6. cosmos	6. 우주	14. in principle	14. 원칙적으로
7. life forms	7. 생명체	15. assumption	15. 추정, 가정
8. inhabit	8. 거주하다	16. independent	16. 독립적인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AB가 아주 돋보이는, '평가원스러운(참 복잡한 의미이지만)' 지문이다. 요약과 같이 AB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아래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다.  
A 학문: 상대적, 역사 중요, 시공간 중요 vs. B: 절대적, 역사 중요 X, 시공간 중요 X
- ② 빈칸의 주어는 the conclusions이고 이 결론은 '물리학자, 화학자'가 내린 것이고 이들은 B!!! 이므로,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독립적이다). 답은 3번!

- ① 시간 기준에 달려있다(A)
- ② 간학문적 연구를 촉진한다(off)
- ③ 시공간과 독립적이다(B = not A)
- ④ 사람에 따라 다른 경향이 있다(A)
- ⑤ 경험적 증거에 기인한다(off)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21강.2번

① The disciplines that make up the natural sciences can be divided into two classes: those that are historical(A), and those that are not(B). For subjects like cosmology, geology, and biology(A), history is of utmost importance. The goal of much of the activity in these disciplines(A) is to ① reconstruct the history(A) of the cosmos, the Earth, and the life forms that have inhabited it, respectively.

자연 과학을 구성하는 학문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다: / 역사적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이라는. / 우주론, 지질학, 생물학 같은 과목에서, 역사는 지극히 중요하다. / 이들 학문의 대다수 활동의 목표는 재구성하는 것이다 / 우주, 지구, 그리고 거기에 서식해 온 생명체의 역사를, 각각.

**선티** 지문 서두부터 two!!! 두 개!!!라고 해주니 별 무리 없이 학문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준비하자. 역사가 중요한 학문들은 A, 그렇지 않은 학문들을 B로 grouping하자. 그리고 A 얘기부터 나온다. A는 역사가 중요한 학문들이므로, 당연히 역사 재구성(reconstruct)이 A의 핵심 활동이겠다.

**선티** discipline은 '훈육, 절제, 극기' 같은 사관학교스러운(?) 뜻과 '학문 분야'라는 뜻이 있는데 둘 다 중요하다. 다만 요즘 수능영어에는 학문 분야라는 뜻이 참 많이 보이는 편이다. 왜? 두 개의 학문을 AB로 나눠 전개하는 지문이 많이 나오니까.

② For the mathematician, physicist or chemist(B), on the other hand, history does not matter. The logical structures mathematicians explore(B) are ② timeless(B), and both physics and chemistry deal with properties of the universe that we have every reason to believe are the same today as they ever have been, or ever will be(B). Thus, in principle, all the open questions in physics and chemistry could be ③ answered this afternoon if the right experiments were done.

반면에 수학자, 물리학자, 혹은 화학자에게는, 역사가 중요하지 않다. / 수학자가 탐구하는 논리 구조는 시간을 초월한다, / 그리고 물리학과 화학 모두 우주의 성질을 다룬다 / 우리가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 현재의 상태가 지금까지의 상태나 앞으로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 따라서, 원칙적으로, / 물리학과 화학의 모든 미결 문제는 오늘 오후에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제대로 된 실험이 이루어진다면.

**선티** 로직 B 등장. 이 학문들은 역사, 즉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시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무한하고 영원한(timeless) 것이고 시간에 상관 없이 항상 답이 같으므로 당장 오늘 오후에도 답이 나올 수 있겠다(answered).

③ Moreover,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the outcomes of those experiments(B) would be any ④ different(A ← identical) if they were done by other people, at other times, or in other places. The assumption that the conclusions reached by physicists and chemists(B) are ⑤ independent of time and place(A) is fundamental to the way geologists, biologists and cosmologists use them.

\* cosmology 우주론

더욱이, 실험의 결과가 조금이라도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 만약 그 실험이 다른 사람에 의해, 다른 시기에, 혹은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면. / 물리학자와 화학자가 도달한 결론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가정은 / 지질학자, 생물학자, 우주론자가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에 매우 중요하다.

**선티** Moreover(더욱이)라는 순접으로 계속 로직 B를 이어오고 있다. B 학문들은 장소,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독립적으로 = independent), 언제 어디서나 측정값이 같다. 4번 선지의 경우, 문장의 서두에 'no'라는 부정어를 센스 있게 활용한 선지. no가 들어갔으므로 that 이하는 A의 내용이 나와야 'not A = B'가 되는데, 실험의 결과(outcomes)가 동일하다(identical)고 하면, 로직 B가 되고, 결과적으로는 not B가 되어 B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identical을 different로 수정해야 한다.

Summary

ESSENCE 정답: ④번. | 주간 KISS 정답: ③번.

- ① A: 혁신은 경쟁이 있어야 한다 < B: 혁신은 공유를 통해 이루어진다.
- ② 자신의 아이디어가 유출될까 무서워하는 연구자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잘 되기 힘들다.
- ③ 다른 이들과 결과를 공유할 때만 잠재성이 드러날 것!

Vocabulary

1. innovation	1. 혁신	9. terrified	9. 무서워하는
2. absurd	2. 터무니없는	10. approach	10. 접근법
3. given that S V	3. ~을 고려하면	11. rarely	11. 거의 ~않는
4. national border	4. 국경	12. finding	12. 연구 결과
5. language barrier	5. 언어 장벽	13. expertise	13. 전문 지식
6. isolation	6. 고립	14. perspective	14. 관점, 원근법
7. awfully	7. 끔찍하게	15. potential	15. 잠재력 있는
8. nondisclosure	8. 비공개	16. emerge	16. 나타나다

KISS ESSENCE 문항 해설

① 1번 앞 문장까지 해서 요약과 같이 AB를 이해하고 3번 문장의 의미가 '카드를 자신의 옷에 너무 가까이 대고 남에게 안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이해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었을 흐름 문항이다.

④번 문장 해석: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과 카드 놀이를 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실현된 첫번째 게임 중 하나이다.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3강.1번

①

We are often told that there is **no innovation without competition(A)**, which is **absurd(P)** given that most of the greatest innovations in science and technology have resulted from the **sharing(B)** of research across academic silos, **national borders**, and **language barriers**.

우리는 경쟁 없이는 혁신이 없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 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 과학과 기술의 가장 위대한 혁신의 대부분이 연구를 공유하는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 학문 영역, 국경, 언어 장벽에 걸쳐서.

**선티** 주어진 글부터 AB를 등장시키는, 아주 좋은 도입부다. We are often told.. 를 통해 통념임을 알아차리고, 이중부정을 통해 경쟁을 A로 잡는다. 이 A를 터무니 없다(absurd)고 까고, 실제로는 혁신이 '공유'하는 것에서 나왔다고 하니 공유를 B로 잡는다. 여기서 AB의 개념을 A는 혼자(경쟁), B는 같이(공유)로 잡고 가야 한다.

**선티** given (that) = considering (that): ~을 고려하면. 좋은 표현이니 꼭 기억하자.

②

**(B) In truth, no great innovations occur in isolation(A).** Personally, I have been asked to sign an **awfully** large number of **nondisclosure** agreements(A) from **other researchers(A)** **terrified** that their ideas will get out. **(C) But** in truth, I've found **this approach(A)** **counterproductive(P).** **Those who hold their cards too close to the vest(A)** are **rarely** the ones who play the winning hand(B).

사실, 위대한 혁신은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 개인적으로, 나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다 / 끔찍하게 많은 비공개 협약서에 서명하라는 /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알려질 것을 두려워하는. / 그러나 사실, 나는 이 접근법이 역효과를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카드를 조끼에 너무 가까이 대고 있는 사람들은 / 이기는 패를 들고 있는 사람인 경우가 거의 아니다.

**선티** (B) or (C): (C)단락은 역접 후 A 접근 방식을 까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미 주어진 글이 A를 까는 내용이므로, But(역접)으로 연결될 수 없다. (B)단락으로 오면, In truth(순접)을 통해 로직 A를 까는 내용으로 연결될 수 있겠다.

**선티** terrified that.. 이 other researchers를 수식하는 걸 확인. 이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아이디어가 새어 나가는 것(get out)을 무서워하는, 혼자만 생각하는 연구자들이니 로직 A가 되겠다.

KISS ESSENCE

**선티** hold their cards too close to the vest가 원래 EBS의 의미 문제였다. 카드를 남에게 안 보여주고 자신에게만 너무 가까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로직 A의 의미가 되겠다.

③

**(A) It is** when we **share(B)** our **findings** with people with other areas of **expertise** or **perspectives**, or seek feedback about our concept from someone in a different field, or try out our idea with **potential users**, **that** suddenly the **real potential(B)** starts to **emerge**.

\* academic silo: (구분되는) 학문 영역 \*\* counterproductive: 역효과를 내는  
바로 우리의 연구 결과를 다른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공유하거나, / 다른 분야에 있는 누군가로부터 우리의 개념에 관한 피드백을 구하거나, / 또는 우리의 아이디어를 잠재적 사용자와 함께 시도하는 때이다 / 갑자기 진정한 잠재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선티** (A) or (C): (C)단락의 this approach가 지시/논리 측면에서 강력한 판단 기준이 되겠다. 앞 문장이 로직 A여야 하는데, (A)단락은 share가 나오니 로직 B의 내용인 반면, (B)단락의 예시는 로직 A의 연구자들 얘기. 따라서 (B)단락의 마지막을 (C)단락에서 받으면 되겠다.

**선티** It that 강조구문으로 B를 강조하면서 마무리하는 것 확인. It is와 that 사이에 when절이 동사 병렬로 긴데, 우리는 공유(share)하니 로직 B구나 정도만 잡으면 된다. 이 병렬(나열)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안 된다.

- ① (A) — (C) — (B)
- ② (B) — (A) — (C)
- ③ (B) — (C) — (A)
- ④ (C) — (A) — (B)
- ⑤ (C) — (B) — (A)

Summary

ESSENCE 정답: ④번. | 주간 KISS 정답: ⑤번.

- ① 통념 A: 예술가는 감정을 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생각만 해도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Yet, B: 일반적으로 예술은 공개적인 일로, 안에 있는 감정을 밖으로 꺼내는 것!
- ③ Thus, 여러 형태들로 감정을 표현하여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Vocabulary

1. clarify	9. transmission	1. 분명하게 하다	9. 전달, 전송
2. conceivable	10. secure(v)	2. 상상할 수 있는	10. 확보하다
3. externalize	11. means(n)	3. 외면화하다	11. 수단
4. violate	12. guarantee	4. 위반하다	12. 보장하다
5. regard A as B	13. in principle	5. A를 B로 여기다	13. 원칙적으로
6. public affair	14. accessible	6. 공적인 일	14. 접근 가능한
7. inconsistent	15. embody	7. 일치하지 않는	15. 구현하다
8. block(v)	16. medium	8. 막다, 차단하다	16. 매체(pl.media)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주어진 글: 머릿속 생각으로 예술 감정 표현하는구나~ 읽어준다.
- ② (B) or (C): (C)단락 externalized를 보고 아 주어진 글이 '내부'의 생각이었구나~ AB를 내부 vs. 외부로 잡아준다.

③ (A) or (B): (C)단락 마지막에 A 할 수 있을까??? 물어보고 (A)단락에서 B를 위반하는 P가 생긴다고 답을 해주는 순서가 되겠다.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10강.3번

①  
Needless to say, an artist might **clarify** her feelings by **just focusing** on them **mentally(A)**. That is, it is at least **conceivable** that one could get clear on one's emotional state **simply** by thinking about it(A). The emotion, then, would be clarified **but not externalized(B)**.  
말할 필요도 없이, 예술가는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할 수도 있다 / 단지 자신의 감정에 정신적으로 집중함으로써. / 즉, 적어도 상상할 수 있는 일이다 / 자신의 감정 상태를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 그저 자신의 감정 상태에 관해 생각함으로써. / 그럴 때 그 감정은 분명해지겠지만 표면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티** just, simply 등의 부사로 A 뒤양스를 느끼는 게 중요하다. 아 예술가가 '정신적으로' '생각해서' 감정 표현하는 건 A 느낌이구나~. 그리고 but not을 보면서, 그리고 externalized를 보면서 AB의 개념을 확정하는 것이다. A: 예술가는 내적으로 생각해서 감정 표현 < B: 외적으로 표현!

②  
**Yet** could an artwork exist entirely, so to speak, **inside someone's head(A)**? **This(A)** would appear to **violate** our ordinary understanding of art(B) which **regards** an artwork as a **public affair(B)**. **It(A)** would also seem **inconsistent** with the notion of **expression(B)** which fundamentally rests on the idea of something "inside(A)" being brought "outside(B)."  
하지만 예술 작품이 전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 / 이를테면, 누군가의 머릿속에서만? / 이것은 예술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이해를 위배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 예술작품을 공개적인 일로 여기는, / 그것은 또한 표현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것이다 /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밖으로' 꺼낸다는 생각에 근본적으로 기초하는.

**선티** Yet으로 역접을 때리면서, A를 까고 B를 제시하고 있다. 아 필자는 예술가가 공개적으로(public), 밖으로(outside) 감정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잡아준다.

③  
**Thus**, in order to **block** cases of completely **mental artworks(A)**, the expression theorist **should** add that the process of the clarification and **transmission** of emotions **should** be **secured** by **means** of lines, shapes, colors, sounds, actions and/or words(B). **This(B)** **guarantees** that an artwork is, at least **in principle**, **publicly accessible(B)** — that it is **embodied** in some publicly accessible **medium**.

따라서, 완전히 정신적인 예술작품의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서, / 표현 이론가는 덧붙일 것이다 / 감정을 분명하게 하고 전달하는 과정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 선, 모양, 색, 소리, 행동, 그리고/또는 말에 의해서. / 이것은 보장해 준다 / 예술 작품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 — 즉 예술 작품이 어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표현 수단으로 구현된다는 것을.

**선티** 추가적으로 B의 개념이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여러 형태들로 감정을 표현해서 이것을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선티** 이 5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야 한다. 5번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지 않으면, 5번 앞 문장의 주어는 A이므로 A로직을 깔고 오게 되고 5번 뒤 This가 A를 받게 되면서 논리적 충돌이 생긴다. 내용은 publicly accessible로 B니까. 주어진 문장을 5번에 넣으면, A에서 B로 전환되면서 로직 B로 글을 마무리할 수 있다.

Summary

ESSENCE 정답: ③번. | 주간 KISS 정답: ④번.

- ① 하이데거의 다자인(Dasein) 개념: 의식적 인간은 외부 세계와 not 분리된 것, but 연관된 것
- ② Ex.: 우리가 옷을 사든 정치를 공부하든, 다 '우리(의식적 인간)'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것
- ③ 우리의 의식은 not 외부와 단절, but 외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것!

Vocabulary

1. term(n)	1. 용어, 기간	9. satisfy	9. 충족시키다
2. being	2. 존재, 실재	10. principally	10. 원칙적으로
3. external	3. 외부의	11. be immersed in	11. ~에 깊이 빠지다
4. separate from	4. ~에서 분리된	12. define	12. 정의하다
5. conscious	5. 의식적인	13. context	13. 문맥, 맥락
6. twisted	6. 뒤틀린	14. aspect	14. 양상, 측면
7. make sense of	7. ~을 이해하다	15. shut A off from B	15. A를 B에서 분리하다
8. in terms of	8. ~에 관하여	16. enclose	16. 두르다, 동봉하다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주어진 글: reject에 반응하며 하이데거의 관점과 하이데거가 가는 관점(A)을 잡아준다.
- ② (B) or (C): 주어진 글과 (B)단락 Instead 문장이 not A but B로 아름답게(?) 하이데거의 논리를 표현해준다.

③ (A) or (C): (C)단락의 This applies ~ 부분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되겠다. (B)단락 jumper 케이스가 나온 후 이것이 '지식' 케이스에도 적용된다는 (C)로 이어진다.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19강.4번

① Heidegger used the term *Dasein* — “being there” — for the being that exists. He **rejected** the idea that there is an external world **separate from a conscious** observer(A). **Instead**, he developed a *phenomenological* view, in which our understanding of things is always **in relation to ourselves**(B).

Heidegger는 'Dasein'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 '거기에 존재함'을 나타내는 / 실존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 그는 거부했다 / 의식적인 관찰자로부터 분리된 외부 세계가 있다는 생각을. / 대신에, 그는 '현상학적' 견해를 발전시켰다, / 그 견해로 보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항상 우리 자신과 관련된다.

**선타** 하이데거의 '다자인(Dasein)' 개념에 대해 not A but B의 논리로 표현하고 있으니 잡아주고 이해하자. 외부 세계는 의식적 관찰자(우리)와 분리된 것(A)이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것(B)이다. 이 지문의 핵심 AB는 사실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한 거시적인 AB라 할 수 있다. 즉, '외부와 우리'라는 두 개념의 '관계'에 대해서, '분리되었다'라는 게 A, 아니다 '둘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게 B의 개념. 따라서 이들의 관계로 AB를 잡으면서, 미시적으로는 외부와 우리 중에 좀 더 방점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인간 존재를 또 B 쪽으로 볼 수도 있겠다.

② For example, if you put on a jumper, it is because the jumper will keep you(B) warm, or you(B)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It is **not** because the jumper is made of **twisted** yarn and is a few millimeters thick(A). **This**(B) applies to knowledge, too. We might read a book about politics because it **interests us**(B), or because understanding politics **helps us make sense of** what we see **happening around us**(B). We see it **in terms of** a tool, or **satisfying** a need.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스웨터를 입는다면, / 그것은 스웨터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유지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 스웨터가 여러분에게 잘 어울릴 것이라고. / 그것은 스웨터가 꼬인 실로 만들어졌고 몇 밀리미터 두께이기 때문은 아니다. / 이것은 지식에도 적용된다. / 우리는 정치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이다 / 정치가 우리의 흥미를 끌기 때문에, / 혹은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 우리가 보기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데에. / 우리는 그것을 도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 또는 필요를 충족시킨다는 관점에서.

**선타** 예시가 나온다. '우리'와 '우리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B로 잡으면서 쪽 내려오자. 우리가 스웨터를 입는 이유는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이고, 우리가 정치를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

③ Heidegger saw the *Dasein* (**principally** the human “being”) as **completely immersed in** and part of the world that **defines** it(B). **No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A) is possible. “Being *there*” means that “there”— our **context** — is the defining **aspect** of “being”. We are **not shut off from** the world **in an enclosed mind**(A) — which Heidegger calls the “cabinet of consciousness”(A).

\* phenomenological: 현상학의 \*\* yarn: 실, 방적사  
Heidegger는 'Dasein'을 (주로 인간 '존재'를 나타내는) 간주했다 / 그것을 규정하는 세계에 완전히 담겨 있고, 그 세계의 일부인 것으로. / 의식과 환경 사이의 어떤 분리도 가능하지 않다. / '거기에 존재함'은 의미한다 / '거기'가 — 우리의 배경이 — '존재'를 규정하는 측면이라는 것을. / 우리는 차단되어 있지 않다 / 바깥세상과 접촉이 거의 없는 정신 속 세상으로부터 / — Heidegger가 '의식의 캐비닛'이라고 부르는.

**선타** 다자인 개념은 우리가 세상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immersed), 즉 B인 개념. 빈칸 문장으로 오자. 당연히 No!!!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한다. 당연히 로직 A가 들어가야 한다. 로직 A의 입장은? 바로 세상과 우리(의식)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어렵지 않게 4번으로 갈 수 있겠다. 지문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지 않고 갇혀있다는 뉘앙스의 단어들을 다 A로 잡으면서 마무리 하자.

- ① satisfaction for human needs is met only by oneself(off)  
인간의 욕구에 대한 만족은 자신에 의해서만 충족된다
- ② definition for consciousness is agreed upon among philosophers(off)  
의식에 대한 정의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합의되었다
- ③ connection between human beings and their surroundings exists(B)  
인간과 주위 환경 사이의 연결이 존재한다
- ④ separation between consciousness and environment is possible(A)  
의식과 환경 사이의 분리가 가능하다
- ⑤ distinction is seen between politics and philosophy in the external world(off)  
외부 세계에서는 정치와 철학 사이의 구분이 보인다

Summary

ESSENCE 정답: ⑤번. | 주간 KISS 정답: ④번.

- ① 수입 망고에 의해 발생한 오염 경로가 굉장히 역설적(S가 S가 아니고 P가 돼서)
- ② A: 유럽인들, 브라질 산 망고를 먹었지만 not P vs. B: 미국인들, 같은 망고를 먹었지만 P, 원인은 열탕 처리로 인한 미생물 병원균!
- ③ 파리와 같은 곤충들, 즉 P를 없애기 위한 열탕 처리 S가 오히려 병원균을 만든 P가 됨!

Vocabulary

1. contamination	1. 오염	9. bar(v)	9. 막다, 금하다
2. outbreak	2. 발발	10. adopt	10. 채택하다
3. be associated with	3. ~에 관련되다	11. pesticide	11. 살충제
4. paradoxical	4. 역설적인	12. submerge	12. 물에 담그다
5. strain	5. 종족, 변종	13. initiate	13. 시작하다
6. hospitalize	6. 입원시키다	14. contract	14. 수축하다
7. trace(v)	7. 추적하다	15. ultimately	15. 궁극적으로
8. destined for	8. ~행(行)인	16. entree	16. 출입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PS의 케이스를 심도있게 잘 이해해야 하는 고난도, 고려했던 문항이다. 제발 잘 뜯어보며 '이해력'을 기르도록 하자.
- ② 주어진 문장: But!!을 때리며 망고를 담그는 행위가 오염된 물을 빨아들이는 P 문장이 나오거나 인식한다. 앞에는 S의 뉘앙스가 있다면 금상첨화.

③ 지문: 로직과 해설은 아래 상세히 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고, 5번 앞 문장이 나름 P를 S하려는 문장인데 5번 뒤 문장이 병원균의 원인이 되는 P 문장인 것을 파악하자. 둘이 So로 연결되기에는 논리가 부족하다. 주어진 문장을 5번에 넣어 S로 도입했지만 P의 원인이 되었다는 문장이 있어야 한다.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13강.6번

①

The **contamination pathway(P)** in the first known case of an **outbreak associated with imported mangoes(P)** is particularly ① **paradoxical**.

맨 처음 알려진 발병 사례의 오염 경로는 / 수입 망고와 관련된 / 특히 역설적이다.

**선티** 첫 문장부터 오염이라고 해주니, P 지문이구나 잡는다. 오염의 원인은 망고. 1번 선지 '역설적이다(paradoxical)'는 지문을 거의 다 읽어야 알 수 있다. S가 S인 줄 알았는데 P거든... 왕왕 이렇게 지문 전체를 관통하는 선지도 있으니 참고해 두자.

②

In 1999, 78 people in 13 US states **became ill(P)** from a common **strain of Salmonella enterica**; 15 patients were **hospitalized** and two died. Investigators **traced the mangoes(P)** back to a farm in Brazil. They discovered that, surprisingly, **no Europeans(A)** who had consumed mangoes from the same farm were affected. Investigators deduced that the mangoes **destined for the US(B)** had probably ② **absorbed the microbe(P)** as a result of a **hot water treatment(P)** used to fight off fruit flies. The **treatment(S로 도입했지만 P)** was required to meet US standards ③ **barring** produce carrying the Mediterranean fruit fly — standards the Europeans did not impose. The farmer had **adopted the hot water treatment(S로 도입했지만 P)** to avoid employing **cancer-causing pesticides(P)** to fight off the fruit flies.

1999년에, 미국의 13개 주에서 78명의 사람들이 병에 걸렸다 / '살모넬라 엔테리카'의 한 가지 흔한 균주로 인해; / 15명의 환자가 입원했고 2명이 사망했다. 조사관들이 그 망고의 출처를 밝혀냈다 / 브라질의 한 농장까지 되짚어가서. / 그들은 알게 되었다 / 놀랍게도, 바로 그 농장의 망고를 먹은 유럽인 중에서는 병에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 조사관들은 추론했다 / 미국행의 망고가 아마도 세균을 흡수했을 것이라고 / 과실파리를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열탕 처리의 결과로. / 그 처리는 미국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었다 / 지중해과실파리를 옮기는 농산물을 금지하는 / - 유럽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 그 농부는 그 열탕 처리를 채택했었다 / 과실파리를 퇴치하기 위해 암 유발 살충제를 쓰는 것을 피하려고.

**선티** P에서 가볍게 not A but B가 나온다. 즉, 유럽인들은 문제가 아니었지만 미국인들은 문제였다. 이 둘의 차이가 진짜 문제의 원인이겠다. 읽어보니, 미국인들은 유럽인들과 달리 열탕 처리를 해서 그 결과 생긴 세균을 망고가 흡수했다(absorbed). 그래서 P. 이 열탕 처리는 원래 파리(fly)라는 P를 금지(bar)하는 기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S인데 오히려 P가 된 것!!! 평가원이 킬러 빈칸에서 몇 번 보여준 아주아주 중요한 논리이니 꼭 익히도록 하자.

③

**But** investigators discovered that **dipping the mangoes in hot water(P)**, then **submerging** them in cool water before packing ④ **initiated(← prevented) a process(P)** in which gases inside the fruit **contracted**, drawing in **contaminated water(P)**. So **steps(S로 도입했지만 P)** that the farmer had taken to clear the mangoes of insects without using carcinogens had **ultimately** provided an ⑤ **entree** for the **pathogen(P)**.

\* deduce: 추론하다 \*\* carcinogen: 발암 물질 \*\*\* pathogen: 병원균  
그러나 조사관들은 알아냈다 / 망고를 열탕에 담그는 것, / 그리고 나서 그것을 포장 전에 냉수에 담그는 것으로 인해 /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 과일 속의 기체가 수축해서 오염된 물을 빨아들였다. / 그래서 그 농부가 망고에서 곤충을 제거하기 위해 했던 조치들이 / 발암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 결국 병원균을 침투하게 했었던 것이다.

**선티** But을 통해 S인 줄 알았던 열탕 처리한 망고가 P로 드러났음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이제 선지 4, 5번도 이 P의 로직에서 읽는 거다. 헌데 4번 뒤를 보면, 이 과정(process)는 오염된 물(contaminated water)을 빨아들이는 과정으로, P 과정이다. 열탕 처리 망고는 이 P를 예방하는(prevented) 게 아니라, 시작해야(initiated) 한다. 답은 4번!

**선티** 5번 선지도 아주 예쁘다. steps를 S로 잡고, 이 S가 까보니까 병원균이라는 P에 대한 '출입(entree)' 역할을 했던 것.

**선티** 다시 한 번 강조. S가 S인 줄 알았는데 P,라는 이 논리를, 피상적인 문표보다 더 깊게 느끼고 넘어가자.

Summary

ESSENCE 정답: ③번. | 주간 KISS 정답: ②번.

- ① P: 개인 정보의 홍수 → S: 정보 유효 기한 설정을 통한 정보 망각 활용
- ② But, S에 대한 P: 많은 비용과 기술 회사의 비협조적 태도
- ③ +, 유효 기한을 교묘히 피하려는 기술 게릴라전 발생(P)

Vocabulary

1. considerable	1. 상당한	9. be worth Ving	9. ~할 가치가 있다
2. legal	2. 합법적인	10. pursue	10. 추구하다
3. explosion	3. 폭발(적 증가)	11. practical	11. 실질적인
4. mimic	4. 흉내를 내다	12. implementation	12. 실행
5. requirement	5. 필요 조건	13. fundamental	13. 근본적인
6. further(ad)	6. 더 나아가	14. expenditure	14. 비용, 지출
7. proposal	7. 제안, 제의	15. transition	15. 변화, 이행
8. appropriate(a)	8. 적절한	16. concerned	16. 염려하는, 관계하는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문장의 PS 판단을 잘해야 하는 고난도, 고퀄 문항이다. S 문장에서 P 문장으로의 전환되는 느낌을 잘 기억하도록 하자. 수능 문답이 참 좋아한다구..
- ② 주어진 문장: Although에 반응하면서 문장의 로직은 barriers가 있다고 하니 P로 잡아주고, these proposals 지시어도 체크하자.

③ 지문: 로직과 해설은 아래 상세히 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뜯어보자. 단어, 해석, 논리를 다 얻어가야 '근본 실력'이 는다. 3번 앞 문장은 proposal로 S를 제시하고 있는데, 3번 뒤 문장은 P가 시작되고 있다. 주어진 문장을 3번에 넣으면 S에서 P로 전환하면서, proposal이 지시어로 연결된다.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Test1.19번

①

There is obviously a **considerable** range of possible **legal**, technical and social options for **managing** the ① **explosion** of personal information(S). For example, Mayer-Schönberger proposes **mimicking** human ② **forgetting**(S ← remembering) **by** introducing **requirements** to allow users to set **expiry** dates for digital information(S). As he **further** explains, **this proposal**(S) would **need** to be supported by an **appropriate** legal framework(S).

분명히 꽤 넓은 범위의 가능한 법률적이고, 기술적이며, 사회적인 선택들이 있다 / 개인 정보의 폭발적 증가를 관리하기 위한. / 예를 들어, Mayer-Schönberger는 인간의 망각을 모방할 것을 제안한다 / 필요조건을 도입함으로써 / 사용자들이 디지털 정보에 대해 유효 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 그가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대로, / 이 제안은 적절한 법적 체제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선티** 폭발하는(explosion) 개인 정보 관리를 위한 S가 나오거나 잡으셔야 한다. 예시에서 그 방편으로 정보의 '유효 기한'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는 S가 나온다. 여기서 사고력이 좀 필요하다. 정보가 넘쳐나고 있는데 정보의 유효 기한을 설정하겠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더 기억하게(remembering)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잊혀지게(forgetting)하는 방식을 모방하겠다는(mimicking) 것이다. 따라서 답은 2번으로 앞에서 나온다. 어휘 답이 앞에 위치해 있어 심리적 난이도가 올라간 부분. 항상 '대립적으로' 사고하는 걸 잊지 말자. 인간이 기억하는 건가~ 잊는 건가. 이렇게 두 갈래로 사고했다면 어렵지 않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것이다.

**선티** 이 인간의 망각 S는 법적 체제라는 또 다른 S로 뒷받침 되어야 한다.

②

Although these sorts of proposals(S) are worth pursuing, they face considerable **practical** ③ **barriers** to **implementation**(P). To begin with, such a **fundamental** change in our technology infrastructure would require **expenditure** of considerable resources(P). It may, moreover, be **difficult** or **impossible** to get the ④ **agreement** of technology companies to support the proposed **transition**(P).

비록 이런 종류의 제안이 추진해 볼 만하긴 하지만, / 그것들은 실행에 꽤 많은 현실적인 장애에 직면한다. / 우선, 기술 기반 시설에 있어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는 상당한 양의 자원 소비를 필요로 할 것이다. / 게다가, 제안된 변화를 지원하겠다는 기술 회사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

**선티** Although를 통해 S에 대한 P!!! 등장! 이 S는 이행, 실행(implementation)에 있어 많은 장애(barriers, P)에 직면할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 것이고, 기술 회사의 동의(agreement)를 얻기 어려운 P도 생길 것이다.

③

In addition, **even if** some form of technology-based expiry date were to be implemented(S), it may lead to a technological "guerrilla war"(P), as some interests may be ⑤ **concerned** to circumvent technology-based expiry dates.

\* expiry date: 유효 기한, 만기 날짜 \*\* circumvent: 교묘히 피하다[면하다]

그에 더하여, 어떤 형식의 기술 기반 유효 기간이 실행된다고 하더라도, / 이는 기술적 '게릴라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기술 기반 유효 기간을 교묘히 피하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티** 마지막까지도 even if를 통해 S와 P를 대립하면서 P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자. 이 유효 기한을 설정하는 S가 실행된다 할지라도, 기술 게릴라전이라는 P가 생긴다.

Summary

ESSENCE 정답: ⑤번. | 주간 KISS 정답: ⑤번.

- ① 통념과 달리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감정적으로 강해지고 긍정적이게 된다.
- ② 나이드는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not 단순한 행복이나 불행, but 복잡한 감정의 mix!
- ③ Thus, 감정을 잘 통제하면서 더 건강히 잘 살게 된다 ㅎㅎ.

Vocabulary

1. profile	1. 옆모습, 윤곽	9. complexity	9. 복잡성
2. resentful	2. 분개하는	10. mixed	10. 복합적인
3. aging	3. 노화	11. emotional states	11. 감정 상태
4. enhance	4. 향상시키다	12. dramatic	12. 극적인
5. typically	5. 일반적으로	13. ups and downs	13. 오르내림
6. co-occurrence	6. 동시 발생	14. manage	14. 다루다
7. occasion	7. 때, 경우	15. enrich	15. 풍부하게 하다
8. capacity	8. 능력, 수용력	16. healthspan	16. 건강 수명

KISS ESSENCE 문항 해설

- ① 요약 (A): 어른의 감정은 not 순전히 불행, 순전히 행복 같은 이분법, but 복잡하게 섞여있다는 not A but B를 통해 '동시에(simultaneously)'라는 개념을 끌고 오면 되겠다.
- ② 요약 (B): 이에 따라 감정적 P를 통제한다는 S의 논리이므로 P의 단어인 imbalance로 가면 되겠다.

- ③ 요약문 해석:  
일반적인 고정관념과는 대조적으로, / 나이드는 어른은 동시에 (작용하는) 방식으로 여러 감정을 경험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 감정 불균형에 대한 통제력을 얻고 / 따라서 감정적으로 더 잘 지내면서.

Interpretation & Comment(Logic 분석 / 주간 KISS 문항 해설)

출처 수특영어.10강.5번

①  
What is the **profile** of our emotional life as we age? **Despite** the image of older people as cranky or **resentful** of the young(A), Laura Carstensen, a researcher of **aging** at Stanford University, shows that our daily emotional experience is actually **enhanced** with age(B). **Typically**, older people(B) experience **more positive emotions**(B) than negative ones in daily life.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감정적 생활 모습은 어떤 것일까? / 짜증을 잘 내는 것으로 보이는 노인들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 혹은 젊은이들에 대해 화가 난 것으로 보이는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 Stanford 대학의 노화 연구자인 Laura Carstensen은 보여 준다 / 우리의 일상적인 감정적 경험은 사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향상된다는 것을. /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긍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한다 / 일상 생활 속에서.

**선티** 주어진 글부터 Despite를 통해 나이드는 사람들에게 대한 AB를 드러내고 있다. 잡아주고 이해하셔야 한다. A: 나이드는 사람들은 젊은이들에게 짜증남 < B: 나이드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더 강하고 긍정적!

**선티** 주어진 글 마지막 문장에 'not A'의 논리를 때려주니, 다음 단락에 but B의 논리가 나와야 하겠다. but 혹은 but을 대체하는 표현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내용으로 B구나 눈치 챌 수 있어야 한다.

②  
The experience **isn't** purely "happy."(A) (C) **Rather**, our emotions grow richer and more complex over time(B). We experience **more co-occurr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emotions(B), such as those poignant **occasions** when you get a tear in the eye at the same time you feel joy, or feeling pride at the same time you feel anger — a **capacity** we call "emotional **complexity**." (B) **These mixed emotional states**(B) help us **avoid** the **dramatic ups and downs**(A) that younger people(A) have, and they(B) also help us **exercise** more control over what we feel(B). **Mixed emotions**(B) are easier to **manage** than purely positive or purely negative emotions(A).

그 경험은 순전히 '행복한' 것이 아니다. / 오히려, 우리의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부해지고 더 복잡해진다. / 우리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의 동시 발생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 그런 가슴 사무치는 경우들 처럼 /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눈에 눈물이 차오를 때, / 혹은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뿌듯함을 느낄 때 / — 이는 우리가 '정서 복잡성'이라고 부르는 능력이다. / 이러한 복합적인 감정 상태는 우리를 도와준다 / 젊은이들이 겪는 극적인 기쁨을 피할 수 있도록 / 또한 우리가 느끼는 것에 대해 통제력을 더 행사할 수 있도록. / 복합적 감정은 다루기가 더 쉽다 / 순전히 긍정적이거나 순전히 부정적인 감정보다.

**선티** (B) or (C): (C)의 Rather를 보자마자 이건 거의 뭐.. 확정이라고 보여서 되겠다. 읽어보니 내용 또한 순전한 행복(A)이 아닌, 복잡한 감정(B)이라는 B의 내용이다. (B)단락의 'These mixed emotional states' 또한 강력한 지시어 판단 기준인데, 주어진 글의 마지막을 '섞여 있는 감정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C)부터 가자.

③  
(A) **Thus**, emotionally speaking, life just feels better(B). **Better control over emotions and increased complexity**(B) means **more enriched** daily experiences. **People with more emotional complexity**(B) also have a longer **healthspan**.

\* cranky: 짜증을 내는, 까다로운 \*\* poignant: 가슴에 사무치는  
그러므로, 감정적인 면에서 말하자면, 삶은 그저 더 낮게 느껴진다. / 감정을 더 잘 통제하고 복잡성이 증가하는 것은 의미한다 / 더 풍요로워진 일상 경험을. / 정서 복잡성이 더 많은 사람은 또한 더 긴 건강 수명을 가진다.

**선티** (A) or (B): 강력한 판단 기준은 (B)의 지시어로 삼는다. (C)의 마지막 문장, (A)의 마지막 문장에서 '이러한 섞인 감정 상태'를 어디서 받는지 체크한다. 엇, 근데 이 경우는 조금 악랄하다(내가 만든 문제지만). 둘 다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제는 판단 기준이 지시어가 아닌 Thus라는 논리가 되겠다. 인과관계가 어디가 어울리는지. (A)는 Thus, B의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앞에서 B의 장점을 얘기해야 한다. (C)의 경우 마지막 문장에 그저 감정이 섞여 있다는 얘기지만, (B)의 경우 마지막 문장에 B가 A보다 더 다루기 쉽다는 장점이 나오고 있으므로, (B)가 먼저 오는 게 맞겠다.

**선티** B의 장점들을 서술하면서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감정의 복잡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 잘 산다!